가극편람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머 리 말

우리의 가극예술은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음악사에 빛나는 페지를 장식하며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 위대한 창조의 나날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우리 식의 새로운 5대혁명가극이 탄생하였으며 우리의 가극예술은 인류음악예술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옮김으로써 가극혁명의 포성을 온 세상에 울렸으며 가극예술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새로운 가극창조에로의 력사적전환의 시발점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극의 력사는 그리 길지 않다. 더우기 20세기에 들어와 갓 태여난 우리 나라 가극분야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그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가극예술이 오늘 세계인류가극의 본보기로 급속히 발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문학예술의 천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문학예술의 발전과 대중교양에서 가극예술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창작하시여 혁명적가극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가극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발전을 위해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가극예술분야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더 발전풍부화되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지난 시기 낡은 가극방식의 제한성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가극혁명을 일으키시고 주체적인 가극건설사상과 리론이 구현된 5대혁명가극창조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가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식의 새롭고도 독창적인 가극방식이 확립되고 세계인류음악예술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 《피바다》식혁명가극이 련이어 창조되는 놀라운 성과들이 일어나게 되였다.

도서는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가극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발전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해 집필하였다.

이로부터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창조된 가극 및 창극작품들을 선택하고 매 작품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도서에서는 작품들의 사상주제적내용과 주요노래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나라 가극 및 창극작품들을 잘 알고 우리 가극예술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옳게 리해하며 특히는 《피바다》식가극의 우월성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도록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는 음악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세계음악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럽 고전가극들중의 일부 작품들의 줄거리와 주요노래들에 대한 간단한 해설도 첨가하였다.

—편 집 부—

차 례

4. 외국가극

—상식—

1. 《피바다》식혁명가극

《우리는 로동당시대에 지난날의 가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바다〉식가극을 창작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고 혁명가극의 시원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마땅히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당의 참된 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김 정 일

1) 5대혁명가극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인류가극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우리 식의 독특한 가극입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는 혁명적가극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완성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는 주체60(1971)년 7월 17일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의 막을 올림으로써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가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무대에 옮긴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격전장에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연극작품으로서 주체25(1936)년 8월 만강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당시 일제의 대살륙만행으로 지엔다오(간도)땅은 피바다에 잠겼지만 절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은 이 참혹한 운명앞에 순종한것이 아니라 녀성들과 아이들까지 떨쳐일어나 항쟁을 계속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였으며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만들고싶은 심정에서 《피바다》를 창작하였다고 감회깊게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때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까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고 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주체60(1971)년 7월 17일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이 잘되였다고, 한 녀성이 점차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하였으며 일제를 증오하는 사상을 잘 나타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의 극구성은 물론 노래의 가사와 곡도 잘되였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교양적가치도 있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예술을 독창적으로 창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의 1장에서 어린 오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 별재마을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원남이가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떠나기 전날 밤에 부르는 갑순이의 노래, 이 장면에서 부르는 3중창, 6장에서 원남이를 찾으며 갑순이가 부르는 노래가 좋다고 하시면서 노래는 이런 식으로 작곡하여야 한다고, 즉 선률이 고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노래를 극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 반복하여 부르게 한것이 좋다고, 특히 방창을 많이 넣은것은 잘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식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주고받는 말을 가사화하여 절가로 만든것도 아주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대로 양풍냄새가 나고 오페라식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목에서는 말로 하고 될수록 나머지는 가사로 고쳐 절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가극창작에서 필요한 대목에 무용을 넣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가극에서 무용을 배합시킨것은 잘한것이라고, 물방아간장면의 가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무용을 필요한 대목에 잘 넣었다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아주시고 대화창을 없애고 노래를 모두 절가화하니 작품이 더 좋아졌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인민들이 리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절가와 방창을 가극의 기본음악수단으로 하니 통속성이 있어서 좋다고, 가사도 알기 쉽게 통속화되였으며 혁명적인 내용도 잘 담았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교양에도 좋고 특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이 가극은 형식면에서도 혁명적대작으로 완성되였으며 현대성이 구현되였다고, 앞으로 가극창조는 이번에 창작한 《피바다》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가극무대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가극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에 대한 력사적인 지도로부터 가극혁명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지

도하시면서 우선 대본창작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0(1971)년 3월 28일 창조성원들을 불러주시고 대본창작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수정방도를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창조사업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함은 창작가들이 원작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은데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혁명가극으로 옮기는데서는 원작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피바다가》와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주제곡으로 할데 대한 문제, 주인공인 어머니를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로부터 장면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 유능한 창작가들로 창조력량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을뿐아니라 수시로 대본창작정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주심으로써 대본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대본이 완성된 후 주체60(1971)년 6월말 몸소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여 가극혁명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우수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강력한 가극창조집단을 꾸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곡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집체적인 창작방법에 의한 우리 식의 새로운 음악창작원칙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 창작가들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힘찬 전투를 벌려 창작한 2 400여곡의 노래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47곡을 골라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울지 말아 을남아》와 같은 명가사, 명곡이 창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가극의 모든 장면들이 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명장면으로 손색없이 완성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감동적인 장면들중의 하나인 원남과 갑순이 범벅을 먹는 장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명장면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창작가들이 범벅 먹는 장면이 무대조건에 맞지 않기때문에 빼려고 한다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술영화 《피바다》를 보시면서 두 아이의 성격과 어머니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린 잘된 장면이라고 평가하시였다고 하시며 가극에도 이 장면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만일 무대적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당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범벅을 먹는것으로 하면 될것이라고 그

해결방도까지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0(1971)년 7월 한달만에도 십여차례나 친히 창조현장을 찾으시여 극조직에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주체의 사실주의적연기체계를 바로세우고 연출가들의 연기지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데 대한 문제, 절가에 기초한 가극관현악형상창조문제 등 우리 식 가극창조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혁명가극 《피바다》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되였으며 이 과정에 노래의 절가화, 방창의 도입, 극과 밀착된 무용, 흐름식립체무대미술, 우리 식의 음악극작술과 같은 새롭고도 독창적인 가극방식이 확립되고 세인을 경탄케 하는 새형의 《피바다》식혁명가극이 탄생하게 되였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피바다》의 종자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민족적 및 계급해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항이 있는 법이라는 위대한 반제혁명사상과 무장폭동사상,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인 역할과 혁명조직의 의의, 단결의 힘에 대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 혁명가극 《피바다》창조가 가지는 의의

첫째로, 지난날의 가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극,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데 있으며

둘째로, 가극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낡은 틀을 마스고 혁명가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가극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된것이다.

셋째로, 가극혁명의 불길속에서 불과 2년기간에 세계인류음악예술의 재보로 되는 5대혁명가극을 창조할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토대를 쌓아놓은데 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대극장

창조단체: 피바다가극단

등장인물: 어머니: 후에 부녀회장(녀성중음)
윤섭: 그의 남편(남성중음)
원남: 그의 맏아들. 후에 항일유격대원(남성고음)
갑순: 그의 딸(녀성고음)
을남: 그의 둘째아들
조동춘: 항일유격대 정치공작원(남성중음)

응팔: 마을청년(남성고음)
별재로인(남성저음)
달삼: 마을청년(남성중음)
영실: 마을처녀(녀성중음)
야학선생(남성고음)
청년무장대장
경철: 마을청년
경철 어머니: 후에 부녀회원(녀성저음)
복돌 어머니: 후에 부녀회원(녀성고음)
칠성: 마을청년
칠성 어머니: 후에 부녀회원(녀성저음)
귀순: 광산주의 첩(녀성고음)
수비대장(남성고음)
수비대 오장(남성고음)
변구장: 후에 자위단장(남성고음)
기타 유격대원들, 마을사람들, 광부들, 꽃정들, 왜병들

— 이야기줄거리

작품은 1930년대초부터 후반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어머니는 남편만을 하늘같이 믿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일제와 지주놈의 착취와 천대속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녀성이였다. 하기에 그는 3.7제투쟁에 앞장선 남편 윤섭의 신상을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불의에 들이닥친 왜놈《토벌》대에 의해 마을은 피바다에 잠기고 남편도 왜놈들과 싸우다가 화형을 당한다. 크나큰 슬픔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먼 친척이 살고있는 별재마을로 떠나가다 로상에서 그 마을에서 살다가 역시 왜놈들의 《토벌》에 살곳을 잃고 류랑의 길에 오른 로인을 만나 친척마저 놈들의 손에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어머니에게 별재로인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나라와 겨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놈들을 족치고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고 희망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마을에 와서 살게 되며 세월의 흐름속에 원남과 갑순이는 자라 혁명투쟁에 참가하게 된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남편처럼 잘못될것 같은 불안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점차 유격대공작원의 영향속에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첫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혁명을 하자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을남에게서 글도 배우면서 녀성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 일과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솔선 앞장선다.

어머니는 원남이가 왜놈들에게 체포되여가는 야학선생을 구출하고 유격대로 떠나게 되였을 때에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밤새워 군복을 지어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며 부녀회장이 되여서는 유격대에 보내는 화약운반을 비롯한 어려운 혁명임

무를 도맡아 수행한다. 뿐만아니라 어머니는 혁명임무수행과정에 뜻하지 않게 체포되였을 때에도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에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며 가석방되여서는 적들의 추격을 받는 유격대공작원을 목숨걸고 숨겨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사랑하는 아들 을남이가 원쑤의 총탄에 맞아죽고 마을은 또다시 피바다, 불바다에 휩싸인다.

격노한 마을사람들은 마침내 원쑤들을 쳐부시는 준엄한 싸움에 일떠나서게 되며 어머니는 적들이 있는 성문을 열어 유격대의 성시해방전투를 도와나선다. 유격대와 혁명조직에 망라된 마을사람들이 합세하여 적들을 모조리 쓸어눕히고 유격대의 승리를 경축한다.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가운데 어머니는 유격대원이 된 원남이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며 군중들앞에서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연설한다.

작품은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이 철수하는 유격대와 여기에 탄원해나선 갑순이를 비롯한 마을청년들을 바래주며 붉은기 높이 들고 혁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결의를 다지는 장면에서 막을 내린다.

— 가극의 주요노래

○ 주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는 노래 〈피바다가〉와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주제곡으로 하여야 하며 이야기의 흐름전반에 깔아주어야 합니다.》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피바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피바다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 주는 노래입니다. 〈피바다가〉와 같이 한번 들어도 인상에 남고 두고두고 불러도 싫지 않은 노래가 명작입니다.

〈피바다가〉는 들을수록 깊은 감흥을 받게 되고 노래의 깊은 세계에 빠져 들게 됩니다.》

나오는 장면: 서곡과 1장 원한의 피바다장면에서 관현악으로, 6장 을남의 죽음장면에서 1절은 갑순의 노래로, 2, 3절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밝히고 극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주제가로 되고있다.

노래는 강도 일제의 야수적만행으로 온 강토가 피바다에 잠겼던 1930년대의 엄혹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당시 우리 인민이 겪은 눈물겨운 참상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와 일제를 쳐없애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려는 우리 인민의 굳센 혁명적의지를 보여주고있다.

피바다가

2. 죽은자 가족의 비참한 그 모습과
기막힌 원통에 가슴이 터진다
사무친 이 원한을 천만추에 못 잊으리

3. 락심을 말아라 전세계 무산자야
혁명자 하나의 죽음의 피값에
16억 7천만의 무산정권 수립된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속에서 절절하게 토로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원한과 울분에 찬 호소를 통해 일제가 저지른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규탄하면서 천만추에 못 잊을 사무친 원한을 천백배로 갚으려는 열렬한 복수의 감정과 그 길에서 굴함없이 싸워 이 땅우에 인민의 정권을 세우려는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노래는 강렬한 열정으로 충만된 선률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1부분형식의 간결한 구조로 된 노래의 선률은 비장하면서도 호소적이고 정서적이면서도 극성이 강하다. 가슴속에 사무친 원한의 분출인양 처음부터 폭발적인 울림으로 시작되여 극적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다시금 한음한음 비장하게 톺아올라가는 선률적상승과 무게있는 선률음조로 끝맺는 선률형상은 일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울분의 세계를 음악적으로 잘 보여주면서 강한 정서적여운으로 혁명의 한길에서 굴함없을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선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아름답고 부드럽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자연히 극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나오는 장면: 5장 어머니가 가석방되여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1절은 갑순과 을남의 2중창, 2, 3절은 녀성소방창 및 녀성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또한 6장 을남의 죽음장면에서 관현악과 무가사혼성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가극의 주제가로서 혁명가로서의 어머니의 형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내고있으며 가극의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혁명의 한길을 끗끗이 걸어가려는 주인공어머니의 철석같은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모진 세월 모진 고생 가시덤불 헤치고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혁명절개 고이 지켜 싸우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앞길 막아도
굴함없이 혁명의 길 걸어갑니다
저 멀리 구름너머
붉은 서광 아름답게 비껴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일편단심 붉은 마음 변함없이 간직하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가려는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는 승리와 영광뿐이라는 굳은 확신, 붉은 서광 아름답게 비껴오는 래일에 대한 지향의 감정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노래가사에 담겨진 혁명적신념과 의지에 대한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사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서정성과 풍만한 민족적정서로 충만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랑만적인 서정심리적양상으로 일관된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 첫 부분에서는 혁명에 대한 어머니의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아름다운 서정과 지향적인 정서로 부각시키고있다면 둘째 부분에서는 보다 폭넓은 선률진행과 밝은 대조식화음들의 인입 등을 통하여 하늘가 저 멀리에서 태양이 비쳐오는듯 한 형상적화폭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속에서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밝아올 래일을 그려보며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불굴의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절절히 강조되고있다.

ㅇ 기둥노래

• 《울지 말아 을남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와 〈울지 말아 을남아〉는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답지만 가사에 담겨진 뜻이 노래가 불리워지는 장면의 정황과 어울리면서 강한 극성을 띱니다.》

나오는 장면: 배고파우는 을남이를 달래는 1장 첫 장면에서 1절은 갑순, 2절은 어머니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의 선률은 1장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우린 못살아》(1절 전렴은 원남, 2절 전렴은 갑순, 후렴들은 녀성방창), 6장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약을 사왔나》(갑순의 노래)로 반복된다.

노래는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어머니일가의 인정선을 성격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노래는 을남에 대한 갑순과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의 감정을 통해 가난속에서도 뜨겁게 오고가는 주인공일가의 애정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갑순과 어머니의 노래

울지 말아 을남아

울지 말아 을남아 귀여운 아가
하루종일 얼마나 배고팠느냐
애처롭게 우는 소리 가슴 허빈다
울지 말아 을남아 귀여운 아가

노래의 가사에서는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갑순이의 눈물겨운 사랑과 존경의 감정, 어린 자식에게 젖조차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소박하고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묘사되고있다.

노래가사에 담겨진 주인공과 그 일가의 인정의 세계는 애절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의 정서로 일관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절절하게 안겨온다.

노래는 6/8박자로 씌여진 소조식선률로서 동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지고있다.

노래의 첫 부분에서는 무거운 정서적분위기속에 측은하면서도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선률형상으로 처량하면서도 애정으로 충만된 서정적주인공의 애달픈 심정을 펼쳐보이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고조되면서 어린 아기의 작은 배조차 채워줄수 없는 한많은 세상에 대한 울분의 하소인듯 절절함을 북돋아주다가 마치도 어린 아기를 달래는듯 한 눈물겨운 형상적화폭을 그려보이며 뜨거운 애정속에 깊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며 끝맺는다.

- 혁명가요 《〈토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토벌〉가〉와 같은 노래는 선률이 좋을뿐아니라 가사의 뜻이 깊기때문에 강한 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극의 세계에로 끌어당깁니다.》

나오는 장면: 1장 윤섭의 화형장면에서 1, 2절이 녀성소방창으로, 경철 어머니와 헤여지는 장면에서 저대독주로, 별재마을로 찾아가는 장면과 4장 광산마을장면에서 녀성소방창과 어머니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는 극발전의 중요대목들에서 여러번 반복되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혁명투쟁에 나서는 어머니의 성격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밝혀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노래 《〈토벌〉가》는 일제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으로 하여 피바다에 잠겼던 당대의 현실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그 직접적체험자인 어머니일가의 비통한 심정과 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강의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토벌》가

울지 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
운다고서 이 원한이 가시여지랴
저 산을 넘어가서 살길을 찾자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을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리라
혁명의 붉은 맹세 굳게 다진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일제의 야수적인 《토벌》만행으로 남편을 잃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방황해야만 하는 주인공의 비참한 처지와 그속에서 강하게 분출되는 울분의 감정이 토로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가사에서는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한 피타는 절규와 함께 수난에 잠긴 인민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 한목숨 다 바쳐 싸워나갈 주인공의 굳센 의지와 견결한 투쟁정신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비분의 감정으로 가슴허비는 가사는 구슬프면서도 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선률형상으로 더욱 절절하게 안겨온다.

하나의 악절로 이루어진 5음계대조식의 선률은 심리극적인 정서를 띠고있는것으로 하여 극성이 강하다.

첫 악단에서 마치 흐느낌소리마냥 점4분소리표와 련속적인 8분소리표의 리듬진행을 일관하게 반복하면서 절망과 비애, 쓰라린 아픔을 눈물겹게 펼쳐보인 선률은 둘째 악단에서 3련음부와 결합된 높은 음구에서의 선률진행으로 울분의 감정을 터뜨리며 절정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셋째 악단에서 상승진행을 통해 항거의 정신을 다시금 보여준 후 의지적이고 지향적인 정서로 저력있게 흐르면서 울분을 씹어삼키며 기어이 원한을 풀려고 마음 다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부각시키고있다.

-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싸리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나무는 꺾지 못한다고 하면서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는 내용의 가사는 소박한 시어로 단결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고있습니다. 가극의 가사는 이렇게 표현이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어야 합니다.》

나오는 장면: 2장 2경 첫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유격대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에서 유격대공작원과 남성소방창으로 불리워지며 3장 1경 어머니가 마을녀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와 마을녀인들, 녀성소방창으로 불리

워지며 4장 광산마을장면에서 주인공과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로 불리워진다.

가극에서 노래는 여러 장면에서 반복되면서 혁명에 대해 인식하는 어머니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명가로 성장하는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노래는 녀성들도 한데 뭉쳐 나라찾는 싸움에 일떠설 때 그 어떤 강적도 이길수 있다는 내용을 통하여 혁명에 대한 깊은 리해와 단결의 사상을 노래하고있다.

공작원의 노래와 남녀소방창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강기슭의 모래알은 흩어지여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노래의 가사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자연현상을 통해 녀성들의 단결된 힘의 위력을 소박하고도 감명깊게 노래하면서 우리 녀성들이 모두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노래의 가사는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선률형상으로 하여 더욱 감명깊게 안겨온다.

마치 혁명의 진리를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듯 8분소리표의 규칙적이고 절제있는 리듬에 의해 유유히 흐르는 선률의 순차진행은 밝고 생신하면서도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것으로 하여 녀성적인 따뜻함과 친절성을 나타내며 내적인 힘이 느껴지는 동도진행과 상승위주의 진행으로 하여 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정서를 나타내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제1장

1. 서곡 관현악 《피바다가》
2. 갑순과 어머니의 노래 《울지 말아 을남아》
3. 윤섭, 달삼과 청년들의 중창 《캄캄한 어둠속에 갈길 모르네》
4. 마을청년들의 중창 《우리 마을에 큰 야단났소》
5. 녀성소방창 《가난한 살림에도 살뜰한 정 오고가네》
6. 갑순의 노래 《소쩍새》
7. 원남과 갑순의 노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린 못살아》
8.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낯설은 땅에 와서》
9. 윤섭의 노래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하리》
10. 어머니와 윤섭의 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11. 원한의 피바다장면
12. 윤섭의 화형장면과 혼성대방창 《〈토벌〉가》
13.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원한을 품고》
14. 녀성소방창과 류랑하는 녀인들의 노래 《류랑의 노래》
15. 숲속장면
16. 갑순과 원남의 노래 《소쩍새야》
17. 녀성소방창과 어머니의 노래 《〈토벌〉가》
18. 별재로인의 노래 《피바다에 잠긴 땅》
19. 혼성대방창 《아 백두산》

제2장

1경

1. 처녀들의 중창 《새봄이 왔네》
2. 수비대장과 구장놈의 야학방수색장면과 남성소방창
   《조선의 백두산에 어찌 비기랴》
3. 야학방처녀들의 노래 《웬일인가》
4. 야학선생과 청년들의 합창 및 혼성대방창
   《우리는 피끓는 무산청년이다》

2경

1. 원남, 갑순, 을남의 노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2. 칠성의 체포장면
3. 별재로인의 노래와 남성소방창 《조용하던 우리 마을 이 산속에도》
4.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이 마음 놓이지 않는구나》
5. 어머니와 원남, 갑순의 노래 《조국의 광복위해 싸우렵니다》
6. 어머니와 공작원의 노래 《혁명은 아무리 간고하여도》
7. 구장, 수비대장의 장면과 응팔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8. 응팔의 노래 《어제는 반가운 소식》
9. 녀성소방창 《첫 임무 받아안고》
10. 구장의 노래 《성시로 간다니 거참 잘됐수다》
11. 야학선생 구출장면
12. 공작원의 노래와 남녀소방창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13. 녀성소방창 《어머니는 글을 배우네》
14. 어머니와 갑순의 노래 《사랑하는 오빠를 유격대에 보내자요》
15. 녀성소방창과 갑순의 노래 《그 앞길 밝혀다오》
16. 원남, 갑순, 영실의 3중창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17. 원남과 영실의 노래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은 오리》
18.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9. 어머니, 원남의 노래와 혼성대방창 《광복의 새날 안고 돌아오너라》

제3장

1경

1. 녀성소방창 《녀성해방가》
2. 공작원과 어머니의 노래 《혁명임무 기어이 완수하리라》
3. 복돌 어머니와 녀인들의 노래 《살아갈 길 생각하니 막막하구나》
4. 복돌 어머니와 칠성 어머니의 노래 《피맺힌 이 원한 기어이 풀리》
5.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들의 중창 및 녀성소방창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2경

1. 처녀들의 가무 《유격대원호의 노래》
2. 처녀들의 노래 《부녀회장이 누굴가》
3. 구장의 노래 《자네 자위단에 안 들겠나》
4. 응팔의 노래 《한잔하러 가십시다》
5. 어머니와 부녀회원들의 노래 《원쑤들의 총칼이 우리 앞길 막아도》

제4장

1. 남성대방창 《캄캄한 막장속에》
2. 굴 무너지는 장면
3. 녀성소방창과 어머니의 노래 《〈토벌〉가》

4. 어머니와 경철 어머니의 상봉장면
5. 어머니와 경철 어머니,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
《고향에 간다 한들 내 어이 살리》
6. 어머니와 경철 어머니,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
《우리들이 믿을건 우리의 힘뿐》
7. 어머니와 경철 어머니,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 및 녀성소방창
《혁명위한 한길로 나가게 하자요》
8. 왜군오장과 왜병들의 노래 《몽땅몽땅 체포하라》
9. 어머니와 귀순,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
《자유권리 찾기 위해 싸워가리라》

제5장

1. 녀성소방창 《어머니는 굴함없이 싸워갑니다》
2. 수비대장과 왜병들의 노래 《어서 대답하여라》
3. 구장의 노래 《사람의 목숨은 하나라오》
4. 꿈장면 무용과 녀성소방창 및 혼성대방창 《광복의 새날에 다시 만나리》
5. 갑순, 을남의 2중창과 녀성소방창 및 녀성대방창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제6장

1. 갑순의 노래 《사랑하는 을남이는 어데로 갔나》
2. 을남의 노래 《기럭기럭 기러기야》
3. 갑순의 노래 《어머니를 위하여 약을 사왔나》
4. 어머니의 노래 《귀여워라 내 아들아》
5. 공작원의 투쟁장면
6. 을남의 죽음장면
7. 원한의 피바다장면과 갑순의 노래 및 대중창 《피바다가》
8. 노호하는 군중
9. 어머니의 노래와 대중창 《판가리싸움에 일어나라》

제7장

1. 수비대장과 왜병들의 노래 《수상한 사람들 모조리 체포하라》
2. 성시공격장면
3. 합창 《오매에도 그립던 혁명군이 왔네》
4. 합창과 무용 《총동원가》
5. 어머니와 원남의 상봉장면
6. 어머니의 노래와 군중들의 합창 《혁명만이 살길이다》
7. 합창 《혁명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대단한 걸작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사상이 심오하고 철학성이 있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사상예술적으로 나무랄데 없는 작품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같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예술작품은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남아 있을것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만점짜리 작품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혁명가극들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음악은 5대혁명가극의 음악들가운데서 제일 좋습니다. 사실 가극음악으로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음악보다 더 좋은 음악이 없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음악은 아무 때나 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김 정 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각색되여 주체61(1972)년 11월 30일에 첫 막을 올렸다.

작품의 원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가자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가극 《꽃파는 처녀》를 친히 창작하시였다.

원작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주체19(1930)년 사회주의10월혁명 13돐 기념일을 맞으며 삼성학교 강당에서 첫 공연의 막을 열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3월 20일 새로 발굴정리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보시고 새로운 혁명가극창조의 구상을 펼치시였다.

주체61(1972)년 11월 30일 완성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우리의 가극이 점차 발전한것이 알린다고, 확실히 이전 가극보다 더 발전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사와 노래, 무대미술이 좋고 배우들이 노래와 연기를 잘하며 특히 가극에서 노래를 절가화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훌륭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전 가극들에서는 가사와 곡이 맞지 않아서 더듬거리거나 가사를 급하게 번져서 어색한감이 있었는데 《피바다》식으로 발전하면서부터 그것이 없어지게 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사의 내용이 깊고 시적으로 정리되고 노래의 선률과 음악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 가극은 계급교양에 좋은 작품이라고, 작은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극으로 전개하기가 힘들었겠는데 원작을 살리면서도 깊은 사상을 밝히는데로 이야기를 잘 끌고나갔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장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꽃분이와 순희가 헤여지는 장면이 제일 슬프다고, 이 장면이 가극에서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작품을 보면 지주놈이 얼마나 악착한가를 잘 알수 있다고, 주인공이 드디여 반항하여 일떠서는 극적처리를 잘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대미술은 최고수준이라고, 립체감이 나고 그것이 주인공과 그 일가의 운명발전과 잘 밀착되여있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치하하시면서 감사를 주시고 표창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6(1977)년 10월 5일 또다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가극은 예술성이 강하다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이러한 가극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남반부에는 계급적원쑤들이 자기의 옛 제도가 오기를 꿈꾸고있다고, 우리는 인민들을 항상 과거의 처지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하던 그때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각색할 결심을 품으시고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창조한 귀중한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시대

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몸소 창조의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주체61(1972)년 9월 25일 창조현장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대본의 첫장에 씌여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그대로 옮겼다는 내용의 글을 보시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원작의 기본내용을 가지고 확대시킨것만큼 각색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극의 제목을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로 고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원작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가극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주체61(1972)년 10월 9일 평양대극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존영화창작의 경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창작가들에게 가극에서는 배우들의 얼굴을 영화처럼 확대시켜 보여줄수 없기때문에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충분한 생활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가극의 특성에 맞는 생활을 더 찾아내여 새롭게 할데 대해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가극노래창작정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이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창작한 무려 2 700여곡의 노래들을 다 들어주시고 한곡한곡을 골라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3장 2경 달밤장면을 형상할 때 처량한 달밤의 정경묘사에 치우치는 창작가들에게 이 장면이야말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성을 도출해낼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를 철학성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달밤장면을 한갖 자연의 정서를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둘것이 아니라 달은 세상만물을 공정하게 비쳐주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제나름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며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며 슬퍼한다, 하늘에 달은 하나이지만 모순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그 느낌과 뜻이 다르다는 심오한 형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창작가들에게 창작적흥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이 그대로 가사가 되여 심오한 철학성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안겨준 명곡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을 낳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지난 시기 대화창식의 선률창작방법에 사로잡혀 부정인물들의 노래창작에서 애로를 겪고있는 창작가들의 고충을 헤아려보시고 민요풍의 선률에 기초하여 절가화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의 나날 가극에서 관현악도 우리 식의 독특한 울림을 가진 배합관현악편성으로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연주형상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이처럼 대본과 명곡창작으로부터 배우들의 노래형상과 연기, 무대장치와 배경은 물

론 세부적인 의상과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은 수준에서 발휘한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종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는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심오한 종자가 심어져있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종자는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나라잃고 수난당하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주제를 제기하고 근로인민들이 자신을 구원할 힘은 오직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모두가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달려나가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대극장

창조단체: 만수대예술단

등장인물: 꽃분(녀성고음)

순희: 꽃분의 동생(녀성고음)

어머니(녀성중음)

철룡: 꽃분의 오빠. 후에 조선혁명군대원(남성고음)

영란 어머니: 이웃녀인(녀성중음)

황로인: 지주집 머슴(남성중음)

약방주인(남성중음)

이밖에 조선혁명군대원, 산전막로인, 마을사람들과 군중들, 무용수들

배지주(남성저음)

지주처(녀성중음)

백만: 배지주의 마름(남성중음)

거간군, 점쟁이, 기타 순사, 간수들

― 이야기줄거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강도 일제침략자들의 횡포한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민족적비운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서경, 7개의 장, 종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은 좁쌀 두말 빚진것으로 하여 강요당하였던 철룡이의 억울한 8년간의 머슴살이가 끝나는 날에 또다시 겪게 되는 불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한데 모여살게 되였다고 온 가정이 기뻐할 때 지주놈과 그 녀편네의 만행으로 꽃분의 동생 순희가 두눈을 잃는 참상이 벌어진다.

귀여운 어린것의 두눈을 빼앗고 매질까지 하는 지주놈의 행위에 격분한 철룡은 그놈의 집에 불을 지르며 그로 하여 일제경찰에 억울하게 잡혀간다. 지주놈은 잡혀간 오빠대신 어머니에게 또다시 머슴살이를 강요하며 어머니가 앓아눕게 되자 꽃분이마저 머슴으로 끌어간다. 꽃분은 온갖 고역과 멸시를 피눈물로 참아가며 낮에는 머슴살고 밤에는 꽃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결심을 가진다. 하지만 위선과 허위로 가득찬 약육강식의 착취사회에서 꽃분이의 아름다운 마음은 무참히 짓밟힌다.

거지라는 모욕을 받고 도적의 억울한 루명까지 쓰면서도 기어이 어머니의 약을 마련하려는 꽃분의 눈물겨운 정상은 뜨거운 사랑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건만 지주놈은 오히려 그를 거간군에게 팔아버리고도 모자라 꽃분의 집에 뛰여들어 갖은 행패질을 다하던 끝에 어머니마저 숨지게 한다. 온갖 고역과 멸시를 피눈물로 참아가며 마련한 약 한첩도 받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두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불쌍한 꽃분이와 순희는 슬픔으로 몸부림친다.

꽃분이는 오빠를 찾아갈 결심을 품고 팔려가는 도중에 도망치며 눈먼 동생을 홀로 두고 눈물속에 칠백리 험한 길을 떠난다. 그러나 온갖 고생속에 찾아간 그 길에서 기다리는것은 오빠마저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뿐이다. 모진 절망속에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던 꽃분이는 언니만을 애타게 기다릴 동생을 생각하여 찬바람 부는 타향길을 헤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지주놈은 지금껏 저지른 죄악으로 악몽속에 헤매이는 제 녀편네의 병을 고칠 살풀이로 마름을 시켜 눈내리는 언덕에서 언니를 기다리며 울고있는 눈먼 순희를 산속에 내버리도록 한다.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꽃분은 더는 참을길 없는 원한을 안고 지주집에 뛰여들어 불붙는 화로를 놈들의 면상에 집어던지며 항거하나 놈들에게 매를 맞고 창고에 갇히게 된다.

이때 죽은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하여 조선혁명군이 된 오빠 철룡이가 산전막로인에 의하여 구원된 순희를 찾게 되며 마을사람들과 함께 원쑤놈들을 때려부시고 꽃분이도 구원한다. 헤여졌던 삼형제가 꿈과 같이 다시 만나는 속에서 철룡은 마을사람들에게 이 원한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혁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가극은 주인공 꽃분이가 마침내 혁명을 인식하고 새삶의 길에 들어서는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처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꽃분의 일가의 비극적인 생활을 통하여 일제식민지시기 우리 나라의 현실과 나라잃은 인민의 민족적수난, 착취계급의 횡포와 착취밑에 신음하는 근로인민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이로부터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꽃파는 처녀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파는 처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요 〈꽃파는 처녀〉는 민족적이면서도 시대상이 안겨오며 부드러우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습니다. 혁명가요 〈꽃파는 처녀〉는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명곡입니다.》

나오는 장면: 제3장 1경 유흥거리장면에서 녀성소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파는 처녀》는 꽃보다도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꽃분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인공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뿐만아니라 노래는 가극의 중심에 놓이면서 작품의 기본사상을 천명할수 있는 생활적 및 감정적바탕을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가극의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도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앓는 어머니의 약을 마련하기 위해 꽃을 파는 꽃분의 형상을 통해 그가 지닌 아름답고 순결한 정신세계,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과 밝은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의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

2.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여나는 연분홍빛살구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많은 가슴에도 새 봄빛이 안겨요

노래의 가사에서는 앓는 어머니에게 약 한첩 대접할 돈이 없어 꽃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꽃분이의 기막힌 정상을 통해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억압받는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선한 마음을 간직한 서정적주인공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5음계대조식에 기초한 하나의 악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은 꽃분이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여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래일에 대한 희망을 부드럽고 우아한 선률에 담아 애절하면서도 지향적이고 밝으면서도 수심에 어린듯 한 독특한 정서로 그려보이면서 어머니의 병이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행복한 생활을 열렬히 희망하는 그의 뜨거운 념원을 음악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 《해마다 봄이 오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주제가 〈해마다 봄이 오면〉은 서곡과 종곡으로 두번밖에 부르지 않지만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 심오한 종자를 제시하고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나오는 장면: 가극의 서경에서 1절은 녀성소방창, 2절은 꽃분, 3절은 녀성대방창, 반복되는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종장에서 꽃분의 삼형제와 방창, 대중창에 의해 불리워지는 노래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주제가 《해마다 봄이 오면》은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꽃분이에 대한 음악적성격화에서 중추를 이루며 서곡과 종곡(《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으로 불리여지면서 작품의 심오한 종자를 제시하고 해명하는데 이바지한다.

서경에서 주제가 《해마다 봄이 오면》은 꽃분이일가가 겪게 될 눈물의 슬픈 사연을 암시하고 그들의 운명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갈수 있는 극적전제를 마련해준다. 이와 함께 노래는 눈물속에 꽃을 파는 꽃분이를 통해 나라잃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꽃분의 노래와 방창 및 대중창

해마다 봄이 오면

산에도 들에도 꽃은 피건만
이내 가슴속에는 설음뿐이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고 가건만
마음속엔 방울방울 이슬맺혔네

눈물속에 꽃을 파는 어여쁜 처녀
송이송이 슬픈 사연 안고 간다네
아름다운 꽃송이도 이슬에 젖어
깊고깊은 그 사연을 말해주는가

들어보자 그 이야기 눈물의 사연
어이하여 처녀는 꽃을 파는가

노래가사에서는 나라잃은 망국노의 불행과 고통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당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함께 아름다운 꽃송이와 설음에 잠긴 꽃분이와의 형상적인 대조속에 꽃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불행만을 강요하는 착취사회의 모순을 해부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이러한 가사내용은 애절하고 사색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률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가극에서 씨내림대조로 불리워지는 노래의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 있다.

첫 부분에서 대조식의 안정음들을 위주로 하여 부드럽게 시작된 선률은 소박하고 어진 꽃분이의 모습을 그려보이다가 점차적으로 폭넓게 전개되면서 밝고 지향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선률은 더 승화되지 못하고 마치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에 맺힌 설음의 한숨인냥 5도하강진행과 같은 인상적인 음조들로 깊고도 무거운 정서를 자아내는

둘째 악단의 선률형상에 의해 나라없고 봄도 없는 꽃분의 마음속 설음을 애절하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시원스럽게 상승하여 감정의 폭을 넓히면서 밝은 앞날이 오기를 열렬히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열망을 담아 보다 의지적이고 열정적인 정서로 발전하다가 다시금 첫 부분의 둘째 악단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사색적이며 웅심깊은 정서로 이미 설정을 이루었던 선률형상을 공고화하면서 정서적으로 해결한다.

○ 기둥노래

•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나오는 장면: 가극의 제3장 3경 어머니의 죽음장면에서 1절은 녀성소방창, 2절 전렴은 순희, 후렴은 꽃분, 3절과 반복하는 후렴은 대방창으로 불리워지며 제5장 1경에서 《찾아와도 찾아가도 눈물뿐이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꽃분이일가에 절망적인 불행이 들이닥치는 장면들에서 반복되는 이 노래는 주인공의 운명선에서 기둥을 이룬다.

노래는 어머니를 위하는 꽃분이의 아름다운 효성의 세계마저 무참히 짓밟는 당대 사회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감정을 담고있다.

아침이면 걱정에 잠을 깨시고
저녁이면 근심에 잠 못드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데 갔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아직도 딸의 정성 모자랐는가
원한의 이 세상 야속한 사연
그 누가 사람들께 말하여주랴

노래의 가사에서는 어머니마저 잃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꽃분이자매의 눈물겨운 생활을 통하여 사랑과 지성만으로는 살수 없는 착취사회의 모순을 울분에 넘쳐 폭로규탄하고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간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통곡하는 꽃분이형제의 원통한 심정과 험악한 사회에 대한 저주와 원망의 감정은 비장하고 절절하게 형상된 선률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정적2부분형식에 4/4 박자로 이루어진 노래는 레소조로서 강한 극성을 띠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꽃분이자매의 가슴저미는 슬픔의 세계가 절절하게 강조되고있다. 특히 특징적인것은 반음계진행이 자주 나타남으로써 일정한 극성과 함께 비분의 감정을 더욱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에서 절절하게 토로되던 슬픔의 감정으로부터 악착한 세상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감정으로 폭발되다가 첫 부분의 둘째 악단을 다시금 반복함으로써 꽃분이자매의 비분의 감정을 진하게 나타내고있는것이다.

-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의 선률이 좋습니다.》

나오는 장면: 제2장 1경, 앞 못 보는 순희가 여섯해전 삼형제가 함께 심은 무궁화꽃나무를 만져보며 감옥에 끌려간 오빠를 그리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순희, 후렴은 녀성소방창, 2절은 꽃분과 순희의 2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의 선률은 제5장 2경 꽃분이의 꿈장면에서 녀성방창 《사랑과 정성이 꽃피여나서》로, 산속에서 눈먼 순희가 오빠를 만나는 제7장 1경에서 순희의 노래와 방창 《오빤가요 나의 오빠 참말인가요》로, 제7장 2경의 삼형제장면에서 무가사

방창으로 반복된다.

꽃분이형제의 인정선에서 기둥을 이루는 노래는 동생 순희의 성격을 구체화하면서 인정심리극으로서의 작품의 양상을 통일시킬수 있는 생활적 및 감정적바탕을 마련하여준다. 노래의 선률은 꽃분이 삼형제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 그들의 뜨거운 상봉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에서 반복되면서 꽃분이형제의 인정세계를 섬세하게 펼쳐보일뿐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음악적으로 구체화한다.

노래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사랑하는 오빠를 애타게 그리는 꽃분과 순희의 형상을 통해 그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혈육의 뜨거운 정을 보여주고있다.

순희와 꽃분의 2중창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노래의 가사에서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될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삼형제가 무궁화나무를 심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의 감정과 그로 하여 더욱 강렬해지는 오빠에 대한 꽃분이자매의 그리움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다.

노래가사에 반영된 사상은 밝고 다정하면서도 절절한 서정적양상으로 일관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3/4박자에 기초한 서정적인 3박계통의 리듬을 타고 정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된 노래의 선률은 가극에서 쏠대조로 불리워진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오빠에 대한 추억의 감정이 아름다우면서도 처량한 정서로 형상되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오빠를 애타게 그리는듯 정서적으로 한껏 고조되다가 첫 부분의 첫 악단에 기초한 선률전반의 감정정서적통일을 보장하면서 꽃분이형제의 그리움의 감정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나오는 장면: 제2장 1경, 머슴살이 고역속에 병든 어머니가 마을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장면에서 1절은 어머니, 2절은 녀성소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어머니의 인정선을 파고들어 그의 심리세계와 비극적운명을 구체화함으로써 어머니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는데서 기둥을 이룬다. 이러한 노래는 가극에서 꽃분이 일가에 들이닥칠 그 어떤 재난을 예고해줌으로써 작품의 종자해명에로 극을 추동할수 있는 생활적 및 감정적전제를 마련해준다.

노래는 모진 천대와 수모를 다 받으면서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기를 쓰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성애의 감정과 그러한 혈육의 정마저도 무참히 유린하는 착취사회에 대한 저주와 원망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어머니의 노래와 방창

검은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목숨이 아까와서 내 아니 살고
죽기가 무서워서 내 아니 산다
오직 하나 너희들을 생각하여서
기를 쓰고 살아가는 어머니로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착취사회를 저주하는 어머니의 심리세계와 그 험악한 세상에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것을 참고 견디려는 어머니의 강의한 의지를 눈물겹게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사상감정은 그와 조화롭게 밀착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6/8박자에 기초한 선률은 가극에서 도소조로 불리워진다.

동적2부분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진 선률은 갈수록 막막하기만 한 딸들의 앞날을 걱정하여 모대기는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정을 비애적인 정서로 형상하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정서적으로 앙양되면서 어머니의 울분의 감정을 강조하고있다면 둘째 부분에서는 모성애의 감정을 무참히 짓밟는 착취사회에 대한 원망이런듯 격하고 강렬한 울림으로 가슴속 울분을 터뜨린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정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하강진행으로 이어지면서 끝맺는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경

꽃분의 노래와 방창 및 대중창 《해마다 봄이 오면》

제1장

1. 방창 《나라없고 땅이 없으니 어이할소냐》
2. 철룡과 어머니의 2중창 《아버지가 머슴살다 돌아가신 방》
3. 꽃분, 순희, 철룡의 3중창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히 살리》
4. 지주, 백만, 지주처의 노래 《장생불로 산삼은 잘도 생겼다》
5. 순희 눈머는 장면
6. 방창 《사랑하는 오빠마저 잡혀가누나》
7. 어머니, 꽃분의 노래와 방창 《악착한 이 세상을 내 어이 살리》
8. 방창 《변함없는 고역속에 세월 흘렀네》

제2장

1경

1. 방창과 순희의 노래 《나 혼자만 빈집에 홀로 남아서》
2. 순희와 꽃분의 2중창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3. 꽃분의 노래와 꽃분, 순희의 2중창과 방창
   《불쌍한 나의 동생 눈먼 동생아》
4. 어머니의 노래와 방창 《검은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5. 지주와 백만의 노래 《삼년전에 가져온 장리쌀 서말》
6. 지주와 백만이 꽃분네 집에 와서 행패하다
7. 꽃분과 어머니의 노래 《이 딸이 머슴으로 들어가리다》
8. 꽃분 머슴으로 떠나다
9. 꽃분의 노래와 방창 《언제부터 이 땅우에 머슴 생겼나》

2경

1. 방창과 어머니의 노래 《눈물의 매돌소리 처량하구나》
2. 지주처가 꽃분에게 행패하는 장면
3. 방창 및 꽃분과 어머니의 2중창 《세월아 돌아라 매돌 돌듯이》
4. 지주의 노래 《무거운 그 죄를 어이 씻으랴》
5. 지주처의 음모장면
6. 꽃분의 노래와 방창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제3장

1경

1. 방창 **《꽃파는 처녀》**
2. 꽃분 멸시당하는 장면

3. 방창과 꽃분의 노래 《꽃은 사지 않을망정》
4. 꽃분의 노래와 방창 《꽃으로는 못산다는 차디찬 세상》
5. 방창 《도적으로 몰리우는 불쌍한 처녀》
6. 황로인의 노래 《네 아버지 나와 함께 머슴을 살다》
7. 꽃분 억울하게 매를 맞으며 팔리우는 장면
8. 방창과 약방주인의 노래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2경

꽃분의 노래, 방창과 무용 《하늘 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3경

1. 꽃분의 노래와 방창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2. 꽃분과 어머니의 노래 《마른 나무가지에도 꽃필 때 있다》
3. 꽃분이 팔려가는 장면과 어머니의 노래
   《네가 없이 내가 살아 무엇을 하랴》
4. 어머니 죽음장면의 노래와 방창 《사랑하는 딸들을 두고 간 어머니》
5. 녀성소방창과 순희, 꽃분, 대방창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제4장

1경

1. 방창과 순희의 노래 《어머니는 한많은 세상 떠나고》
2. 백만과 거간군 꽃분이를 붙잡으러 찾아헤매다
3. 방창과 꽃분, 순희의 노래 《기약없는 먼길로 떠나가는 밤》
4. 꽃분의 노래와 방창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2경

꽃분의 노래와 방창 《고향 떠나 칠백리》

제5장

1경

1. 《죄수》들의 노래와 합창 《피눈물의 감옥살이 몇몇해이냐》
2. 꽃분의 노래와 방창 《높이 솟은 감옥철창문》
3. 꽃분의 노래와 방창 《찾아와도 찾아가도 눈물뿐이네》

2경

환상장면 《사랑과 정성이 꽃피여나서》

3경

꽃분의 노래와 방창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없고》

제6장

1경

1. 점치는 장면

2. 지주처의 환각장면
3. 지주와 백만의 노래 《세상에 귀중한건 황금뿐이라》
4. 방창과 순희의 노래 《언니를 기다리며 울고서있네》
5. 방창 《눈내리고 찬바람 불어오는데》

2경

1. 꽃분이 집으로 돌아오다
2. 영란 어머니와 마을녀인들, 꽃분의 노래와 방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7장

1경

1. 철룡과 혁명군대원, 산전막로인의 3중창 및 방창
《내 나라 찾으리라 혁명군 되였네》
2. 방창과 철룡, 순희의 노래 《웬일이냐 웬일이냐》
3. 순희의 노래와 방창 《오빤가요 나의 오빠 참말인가요》
4. 철룡, 혁명군대원, 산전막로인의 3중창과 방창
《내 어이 잊으랴 그날의 원한》

2경

1. 지주의 노래 《부귀영화 술잔처럼 차넘치리라》
2. 꽃분의 항거장면
3. 방창 《이 세상에 그 누가 구원해주랴》
4. 대중창 《인민의 원한은 터졌다》
5. 꽃분네 삼형제 상봉장면
6. 합창, 꽃분과 철용, 순희의 3중창 《험난한 풍파넘어 다시 만나네》
7. 철룡의 노래와 대중창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리》

종장

꽃분, 철룡, 순희의 노래와 방창 및 대중창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교양적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이 가극에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간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선을 잘 끌고나갔습니다. 이 가극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문제를 기본으로 제기하고 해결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입니다.》

김 정 일

인민상계관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조되여 주체60(1971)년 12월 11일에 처음으로 공연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주체60(1971)년 7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가극을 만들어 공연하면 군인들을 교양하는데도 좋고 배우들을 발전시키는데도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가극을 창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주체60(1971)년 10월 28일 창조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가극에서는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해 한목숨 다 바치는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종자로 잡고 그것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의 테두리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가극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선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자주 창조현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선이 작품의 핵으로서 가극전반에 관통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그 나날에 가극의 주제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가사를 창작하시였다.

△ 가극해설

ㅡ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종자

작품의 종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주제를 제기하고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사는 여기에 당원의 고귀한 영예가 있고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대극장
창조단체: 조선인민군협주단
등장인물: 강연옥: 간호원(상등병, 후에 상사) (녀성고음)
차덕준: 세포위원장(중사, 후에 특무상사) (남성저음)
최성림: 전사(부상병) (남성중음)
명호: 하사(부상병) (남성고음)
춘삼: 상등병(부상병) (남성저음)
기창: 상등병(부상병) (남성고음)
사단정치부장(남성중음)
군의소장, 간호원 1, 2, 3
이밖에 군의, 간호원들과 병사들
할머니(녀성저음)
어머니: 그의 며느리 (녀성고음)
봉철: 그의 손자 (아동성음)
마을할아버지(남성중음)
이밖에 마을사람들
기타 미제침략군, 괴뢰군들

— **이야기줄거리**

작품은 가렬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나어린 인민군녀병사에 대한 숭고한 이야기를 통하여 수령님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가극은 6개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작품은 조선로동당원의 고상한 풍모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그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될것을 굳게 다짐한 주인공 강연옥이 환자후송임무를 받고 군의소를 떠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후송과정에 강연옥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된다.

온갖 위험과 곤난이 앞을 막는 적구 천리길에서 주인공 강연옥은 당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힘을 얻고 그들처럼 살며 싸우기 위해 투쟁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가는 간고한 로정속에 주인공 강연옥은 혁명적으로 성장한다.

마침내 후송임무를 수행하고 그리운 부대를 찾아온 그는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솜옷을 받아안게 되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원의 영예도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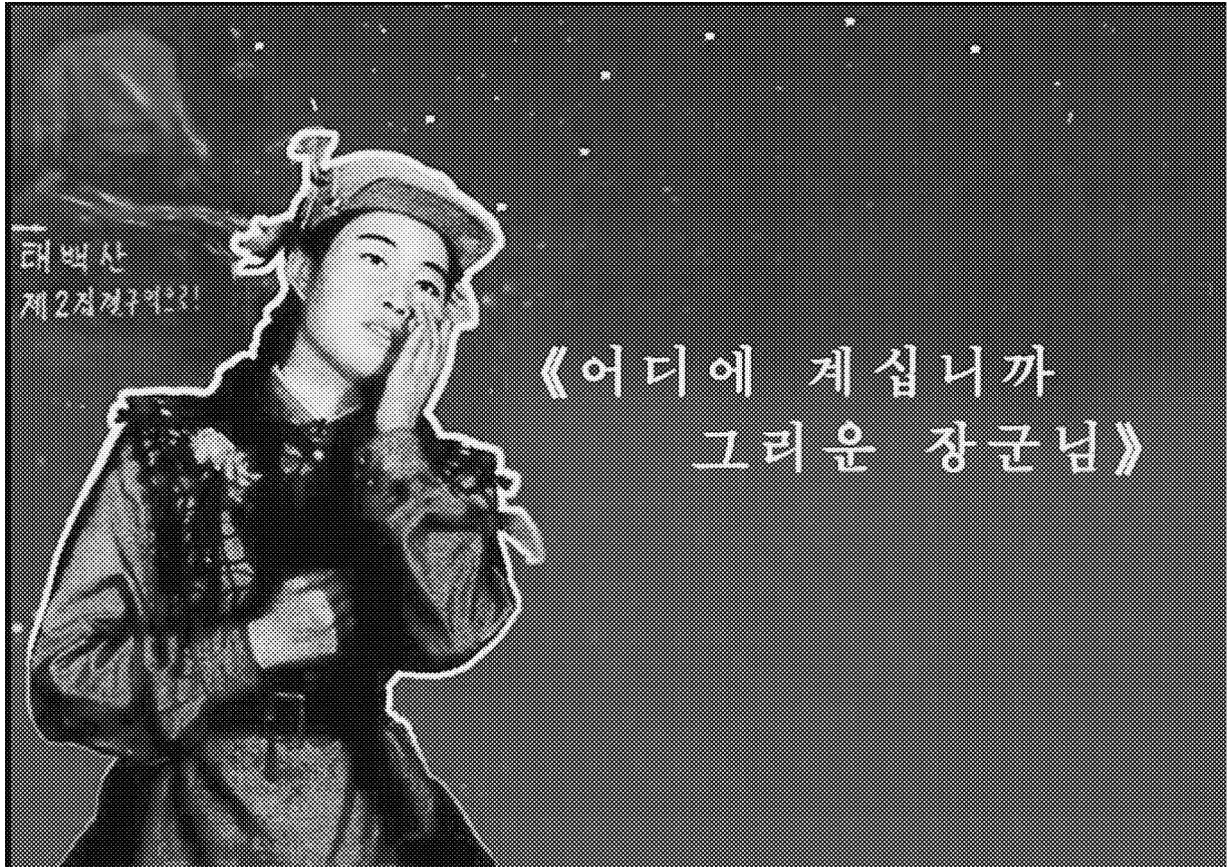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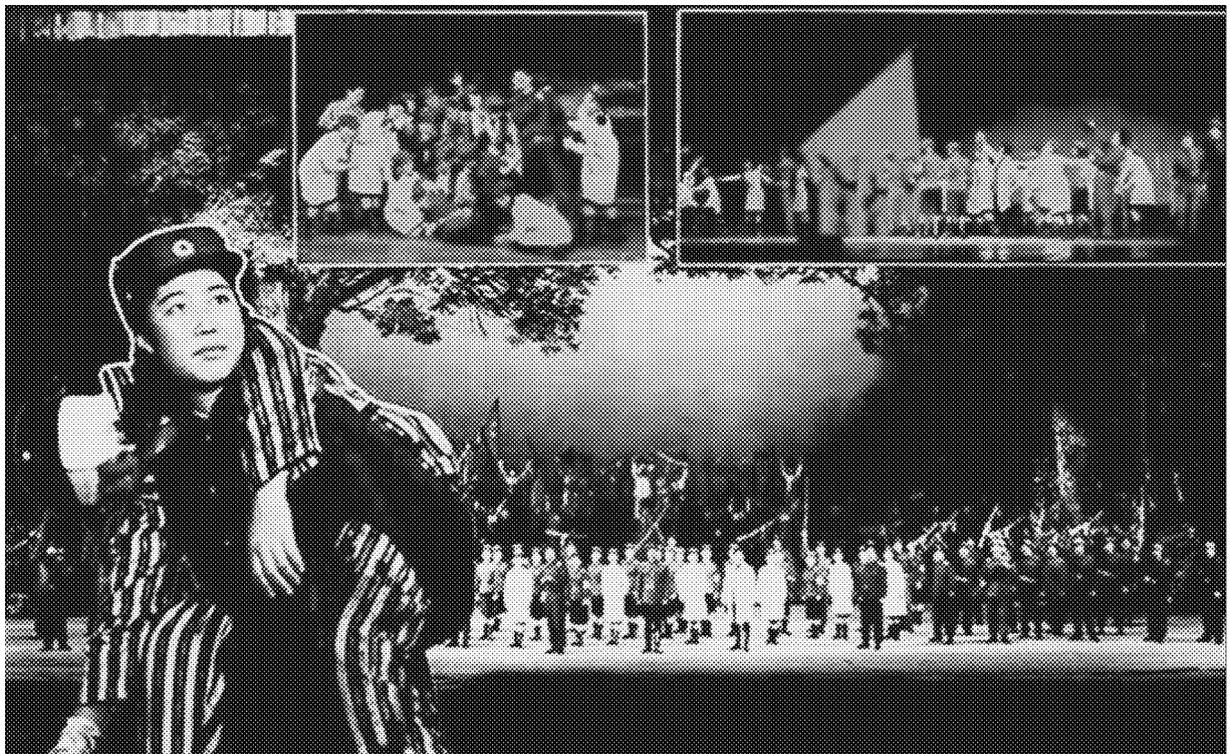
그는 당원의 높은 자각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한 길에서 뼈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

어느날 적비행기의 맹폭격속에서 강연옥은 날아드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 환자를 구원하고는 자기의 당원증을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장군님을 뵙고싶습니다.》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희생된다.

작품은 주인공 강연옥의 이러한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원이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참된 혁명전사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에 대한 완벽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나오는 장면: 2장 3경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놓인 주인공이 어버이장군님을 못견디게 그리워하는 태백산병동장면에서 1절은 주인공, 2절은 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이외에 노래는 3장 4경, 6장 1경, 6장 2경에서 여러 연주형식으로 연주된다.

노래는 가극의 중요한 대목들에서 반복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선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종자를 뚜렷이 강조하고있으며 수령님을 믿고 따르려는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고있다. 노래는 가극의 주제사상을 밝히고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어버이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진실하면서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2.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3.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
자나깨나 뵙고싶은 우리의 장군님
머나먼 적후에서 북녘하늘 우러러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리옵니다

4.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을 전하며
아침해빛 전사들의 길을 밝히네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노래의 가사에서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적후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자애로운 그 품에 안길 그날을 그리는 인민군전사들의 뜨거운 내면세계를 절절히 토로하고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따르려는 인민군전사들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깊은 서정적시어로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사색적이면서도 절절하게, 뜨거우면서도 열렬하게 형상하고있다.

도소조식에 기초한 6/8박자의 선률은 대악절로 씌여진 1부분형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선률의 첫 악단은 끝없이 깊어가는 적후의 한밤에 주인공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그리움의 감정이런듯 조용히 시작하여 점차 류창하게 전개되면서 사람들을 깊은 흠모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며 둘째 악단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를 승화시키면서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품이 못견디게 그리워 격정으로 설레이는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이어 세번째 악단에서는 첫 악단 첫 악구를 다시금 반복하며 급격한 상승진행으로 노래의 감정정서적앙양을 이루고있다. 이와 같은 음악정서적힘을 안고 네번째 악단에서는 첫 소절에서부터 절정을 이루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께 한목숨 다 바쳐싸우려는 주인공의 불타는 맹세를 절절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계속하여 선률은 박절리듬적으로 무게있게 강조되는 마지막악구에서

첫 박을 통해 서정적주인공의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세게 표현하면서 깊은 여운을 안고 끝맺는다.

○ 기둥노래

•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는 장면: 1장 1경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병원으로 가기를 거절하며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명호의 절절한 호소에 큰 충격을 받은 주인공 강연옥에 의해 불리워지며 마지막부분은 남성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는 가극의 제4장 1경에서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품이여》로 반복된다.

노래는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그의 성격을 기초지어주면서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여주며 중요계기에서 반복되면서 당원들처럼 살며 싸우려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노래는 당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에서 받은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 당원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과 우리 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연옥의 노래와 방창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노래의 가사에는 당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영웅적인 투쟁모습에서 받아안은 주인공의 정신적체험과 북받치는 격정, 깊은 동경심이 시문학적으로 훌륭히 형상되여있다.

노래의 선률은 당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주인공의 깊은 감동을 담아 경건하면서도 한없는 격정으로 충만되여있다.

선률은 화대조에서 시작하여 대조식의 밝은 색채속에 전개되다가 마감에 가서 평행소조인 레소조로 끝맺는다. 4/4박자의 선률은 복합2부분형식(첫 부분이 2부분형식, 둘째 부분이 악절)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감정세계를 엄숙하면서도 숭고한 정서로 형상하고있으며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보다 앙양되면서 당원들처럼 살며 싸우려는 주인공의 의지, 불타는 맹세를 격동적인 정서로 펼쳐보이고있다.

-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리라》

나오는 장면: 6장 2경 혁명동지에게 날아드는 총탄을 몸으로 막고 쓰러진 주인공이 당원증을 바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덕준, 후렴은 대중창, 2절 전렴은 덕준과 명호의 2중창,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주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적면모와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정치적생명은 영생한다는 작품의 사상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혁명의 길에서 발휘된 주인공의 헌신성과 희생성에 대한 찬양을 통해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인 조선로동당원이 지닌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또한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 당의 참된 딸은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리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미소조에 기초한 정적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4/4박자에 기초한 노래의 선률에는 혁명전우에 대한 추도의 감정이 잘 반영되여있으며 주인공의 고결한 생에 대한 찬양과 그의 넋을 따르려는 전우들의 굳은 의지가 절절하게 흐르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귀중한 동지를 잃은 전우들의 슬픔을 비분의 감정으로 형상하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더욱 격렬하게 발전하면서 전우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의 고결한 넋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선률은 마지막 악단에서 첫 부분의 첫 악구와 마감악구를 반복하면서도 밝은 화성으로 처리함으로써 수령에게 충직한 전사의 삶은 영생한다는 진리를 무게있고 장중하면서도 밝고 의지적인 음악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2중창과 대중창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리라

• 《간호원의 붉은 정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창 〈수혈의 노래〉와 〈간호원의 붉은 정성〉은 작곡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간호원의 붉은 정성〉의 선률은 대단히 황홀합니다. 바로 이런 노래들이 우리 인민들이 요구하는 노래입니다. 가극의 노래는 이 노래들처럼 민족적바탕에 철저히 의거하여 지어야 합니다.》

나오는 장면: 6장 1경 주인공 연옥이가 수술을 받은 명호의 발걸음을 떼여주는 장면에서 녀성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당원으로 성장한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조선로동당원의 전형인 강연옥을 성격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래는 전우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반영하고있다.

방창

간호원의 붉은 정성

저 멀리 고지우에 먼동이 밝아오고
붉은 정성 노을처럼 곱게 피여나네
한걸음 두걸음 새아침을 향하여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아
전우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네

가사에서는 주인공 강연옥이 이른새벽 실안개 감도는 산기슭에서 구슬땀 흘리며 명호의 발걸음을 떼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에 대한 시문학적형상을 통해 조선로동당원이 지닌 고결한 전우애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가사는 가극의 극정황과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풍만한 시어와 깊은 서정으로 하여 더욱 형상화되였다.

라대조의 3/4박자로 된 선률은 매 부분이 각각 대악절로 구성된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선률은 녀전사의 정성과 뜨거운 지성의 세계이런듯 아름답고 따뜻하다.

선률은 첫 부분에서 동지를 위해 바치는 녀전사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밝고 우아한 선률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률동감을 주는 가벼운 선률진행으로 마치 다정히 한품에 안아 쓰다듬어주는듯 한 형상적표상을 생동하게 안겨주면서 그 살뜰한 맛을 잘 돋구어주고있으며 첫 부분의 셋째와 넷째 악단을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밝고 지향적성격을 뚜렷이 강조하며 끝맺는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곡 《아름다운 그 이야기 길이 전하리》

제1장

1경

1. 연옥 고지로 오르다
2. 관현악과 무용 《고지전투》
3. 명호의 노래 《고지에서 한걸음도 떠날수 없네》
4. 연옥의 노래와 방창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2경

1. 방창과 연옥의 노래 《간호원의 생각은 깊어만 가네》
2. 연옥의 노래 《나는야 임무받고 먼길 떠나네》
3. 간호원들의 노래 《후송임무 마치고 빨리 오세요》
4. 군의소일군들의 노래 《고기는 물을 떠나 살수 없다네》
5. 방창 《노을비낀 언덕으로 마차를 몰아》

제2장

1경

1. 가무 《해방된 마을에서》
2. 마을사람들과 연옥의 노래 《장군님은 평생소원 풀어주셨네》

2경

1. 방창과 3중창 《아 우리 가슴에 불이 이누나》

2. 산속휴식장면과 춘삼의 노래 《천길 땅속 깊은 물은 차고차지만》
3. 전선의 변화, 명호의 노래 《복수의 피가 끓어 참을수 없네》
4. 연옥의 노래 《싸워도 함께 싸우고 가도 함께 가자요》
5. 3중창 《당원들은 충성을 맹세다지네》
6. 방창 《전사들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7. 고난을 뚫고, 방창 《수령님 해빛따라 싸워갑니다》
8. 방창 《가을비는 내리고 바람 세차네》
9. 3중창 《그리운 고향집문앞에 온듯》

3경

1. 방창과 연옥의 노래 《어디에 갔는가 태백산병동》
2. 연옥의 노래와 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3. 연옥의 노래 《산넘어 령을 넘어》

제3장

1경

1. 방창과 기창의 노래 《남천강 푸른 물결아》
2. 연옥의 노래 《혁명의 신념은 굽힐수 없네》
3. 마을사람들의 노래와 방창 《봉철이는 불타죽었소》
4. 2중창 《혁명의 길은 간고합니다》
5. 방창과 무용 《수령님품을 찾아갑니다》

2경

1. 숙영장면과 방창, 연옥의 노래 《전우의 생명 구원할 길 없단 말인가》
2. 방창 《수혈의 노래》
3. 성림의 노래와 방창 《한홉의 미시가루》
4. 방창 《별들도 사랑의 빛을 뿌리네》

3경

1. 적들의 만행장면과 방창 《혁명의 절개를 굳게 지키자》
2. 방창과 연옥, 할아버지의 노래 《어이하여 녀전사는 말을 못하나》

4경

1. 2중창과 방창 《동무가 우리곁에 있기만 하면》
2. 5중창 《장군님의 밝은 해빛 펼쳐가리라》
3. 4중창과 성림의 노래 《기쁨 절로 노래 절로 웃음도 절로》
4. 방창 《녀전사의 단잠을 깨우지 말아라》
5. 꿈장면
6. 5중창과 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제4장

1경

1. 간호원들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전우 한없이 그리워라》
2. 상봉장면
3. 방창과 5중창, 대중창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품이여》

2경

입당장면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

제5장

1경

1. 수술장면
2. 방창과 연옥의 노래 《당원의 영예를 가슴에 안고》
3. 4중창 《충성의 한길로 우리는 왔네》
4. 방창 《화선병동 창문가에 불빛 흐르네》

2경

1. 간호원들의 노래 《승리의 새봄을 수놓아가네》
2. 4중창과 방창, 합창 《어데 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제6장

1경

1. 방창 《간호원의 붉은 정성》
2. 방창 《승리의 그날이 다가온다네》
3. 환상장면 《승리의 광장에서 보고드립니다》
4. 연옥의 노래 《승리의 그날이 다가온다네》

2경

1. 방창과 간호원들의 노래 《간호원의 노래》
2. 명호의 노래 《혁명동지 그 사랑 잊지 않으리》
3. 폭격장면
4. 연옥 마지막당비를 바치다
5. 2중창과 대중창 《수령님품속에서 영생하리라》
6. 대중창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하자》

—상식—

《피바다》식혁명가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가극혁명을 수행하면서 종래 가극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형의 가극, 〈피바다〉식가극을 창작하였습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서 인민적이고 민족적인 사회주의음악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작품에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기 위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기본형상과제로 내세우고 혁명적이며 폭넓고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독창적인 창작원칙과 방도, 형상수단들에 의하여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우리 식의 절가화와 방창, 무용과 무대미술로 이루어진 《피바다》식혁명가극은 가극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로운 가극이다.

《피바다》식가극에서는 모든 노래들이 절가로 되여있다. 가극의 노래를 절가로 일관시킨것은 지난 시기 가극에서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우리 식 가극을 만들수 있게 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피바다》식가극에서는 방창을 받아들여 그것을 가극형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있다.

《피바다》식가극에서는 방창을 새롭게 받아들여 해당 시대의 모습과 정황, 인물의 내면세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인물의 내면세계를 대변하기도 하며 무대와 관중들사이의 교감을 실현하기도 하면서 배우들에게 연기를 잘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고있다.

방창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극은 위력한 형상수단을 가지게 되였으며 가극의 형상세계는 비할바없이 넓어졌다.

《피바다》식가극에서는 무용을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극작술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특히 무대미술의 역할이 달라졌다. 조명, 무대장치가 결합된 새로운 무대미술은 오랜 시일에 걸쳐 굳어진 지난 시기의 무대구성법을 깨뜨려버렸다.

지난 시기에는 생활을 고정된 몇개의 막과 장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무대구성법을 떠나서는 가극을 만들수 없는것처럼 생각하였다.

때문에 막과 막사이에 극을 중단하고 휴식을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피바다》식가극에서는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새로운 무대미술로 지난날의 굳어진 무대구성법을 마스고 생활환경을 립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중이 가극감상을 실생활을 보는것처럼 할수 있게 극을 구성하였다.

주체60(1971)년 혁명가극 《피바다》가 창조된데 이어 그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가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이 혁명가극들은 5대혁명가극으로 주체가극예술의 가장 빛나는 재보로 되고있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피바다〉식가극창조원칙에 기초하여 다시 만든 또하나의 명작입니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교양육성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혁명적대작입니다. 가극은 주인공 최병훈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불굴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지하공작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 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습니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창조되여 주체61(1972)년 4월 22일에 처음으로 공연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1971)년 12월 28일 1950년대말에 창작되였던 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피바다》식창조원칙을 구현하여 새롭게 창조하도록 하시고 그 주제도 몸소 선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전에 만든 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내용은 좋지만 가극형식이 낡은 대화창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나니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가극으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주체61(1972)년 4월 22일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첫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이 잘되였다고, 특히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좋은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극을 만들면 어떤 주제의 가극도 다 만들수 있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가극에서 방창을 살린것은 잘한것이라고, 이 가극에서도 방창이 좋다고 치하하시면서 이 작품은 사건자체가 크고 영광스러운것이며 가사도 노래도 좋은 대작이라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주체61(1972)년 5월 1일 또다시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확실히 대작이라고, 시, 노래, 모든것이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특히《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라는 노래는 참으로 잘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딸을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는것도, 최병훈이를 다시 살리게 한것도, 사돈과의 관계해결도, 주인공이 술주정을 하면서 비밀을 루설하는것도, 복순이와 영호형상도, 환상장면도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훌륭히 창조할수 있도록 대본창작을 비롯한 가극창조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중앙예술단체들에서 우수한 창작력량과 배우들을 망라시켜 가극창조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창조의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창조의 나날 주인공의 성격창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창조 초기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인 동시에 적통치구역에서 《구장》을 하는 주인공의 2중적성격에 대한 옳은 형상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있었다. 그들은 최병훈이가 어떻게 마을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할수 있겠는가,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인 그가 마을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는다면 혁명가를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일면적인 생각으로 《구장》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였다. 결과 작품에서는 갖은 시련속에서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가는 혁명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없었다.

주체61(1972)년 4월 3일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인공의 2중적성격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는 성격적바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인공 최병훈은 혁명가로서 조직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딸과 마을사람들한테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구장》노릇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성격의 분석에 기초하시여 적《구장》으로서의 선과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으로서의 선을 부각하여 감정선과 행동선을 잘 엮을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후 주체61(1972)년 4월 18일 또다시 창조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주인공이 가극의 중요대목들마다 빠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가 《구장》인것만큼 그를 좀 포악하게 형상하여 마을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 장면의 세부적인 행동대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인공 최병훈은 혁명임무를 수행하고 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그리며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마음속의 괴로움도 참고 이겨나가는 혁명가의 전형으로 훌륭히 형상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종자**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값높은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길에 혁명가의 값높은 삶,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대극장

창조단체: 평양예술극단(당시)

등장인물: 최병훈: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 《구장》(남성중음)

복순: 최병훈의 딸(녀성고음)

송명식: 최병훈의 사돈, 마을농민(남성저음)

영호: 송명식의 아들, 복순의 약혼자
후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남성고음)

리씨: 송명식의 처(녀성중음)

박동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남성고음)

이밖에 조선인민혁명군 남녀대원들

마을청년1, 처녀 1, 2, 3, 마을사람들

표가: 적의 특무(남성고음)

용탁: 표가가 인민들속에 박아넣은 밀정(남성저음)

수비대장(남성고음)

《토벌》대장(남성중음)

기타 왜놈참모장, 왜병들

— 이야기줄거리

가극은 주체47(1958)년에 만들었던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피바다》식가극창작원칙에 의거하여 새롭게 창조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적후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한 항일혁명투사의 투쟁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지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서장과 종장, 5개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은 왜놈들이 주인공 최병훈을 저들의 신임을 받는 《구장》으로 선포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최병훈은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적통치구역에 파견된 공작원으로서 겉으로는 적들의 주구인 《구장》행세를 한다. 이로 하여 그는 마을사람들로부터 《개구장》이라는 조소와 모욕을 당하며 사랑하는 딸에게서까지 원망과 배척을 받게 된다.

가극에서는 수비대병영과 포대공사로 내모는 《구장》에게 터뜨리는 마을사람들의 원망, 《개구장》과는 사돈을 맺을수 없다는 송명식의 파혼선포, 최병훈이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비대병영폭파에 쓸 화약과 석유를 빼앗아버림으로써 첨예화되는 영호와 복순의 사랑,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자살까지 결심한 복순이의 행동은 극적관계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극적관계는 더욱 심화되면서 마을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주인공의 활동이 오히려 그들과의 풀릴수 없는 극적대결에로까지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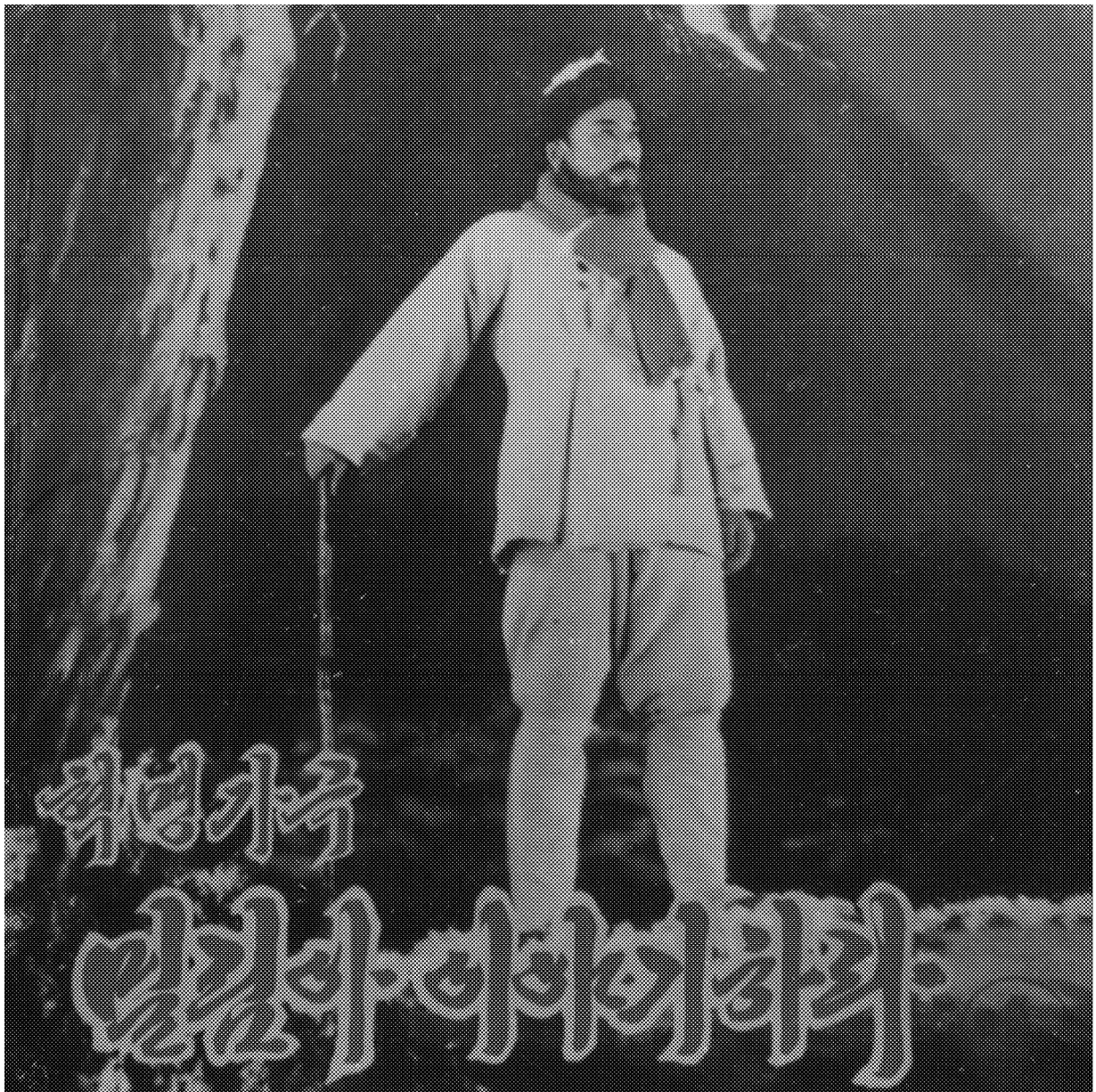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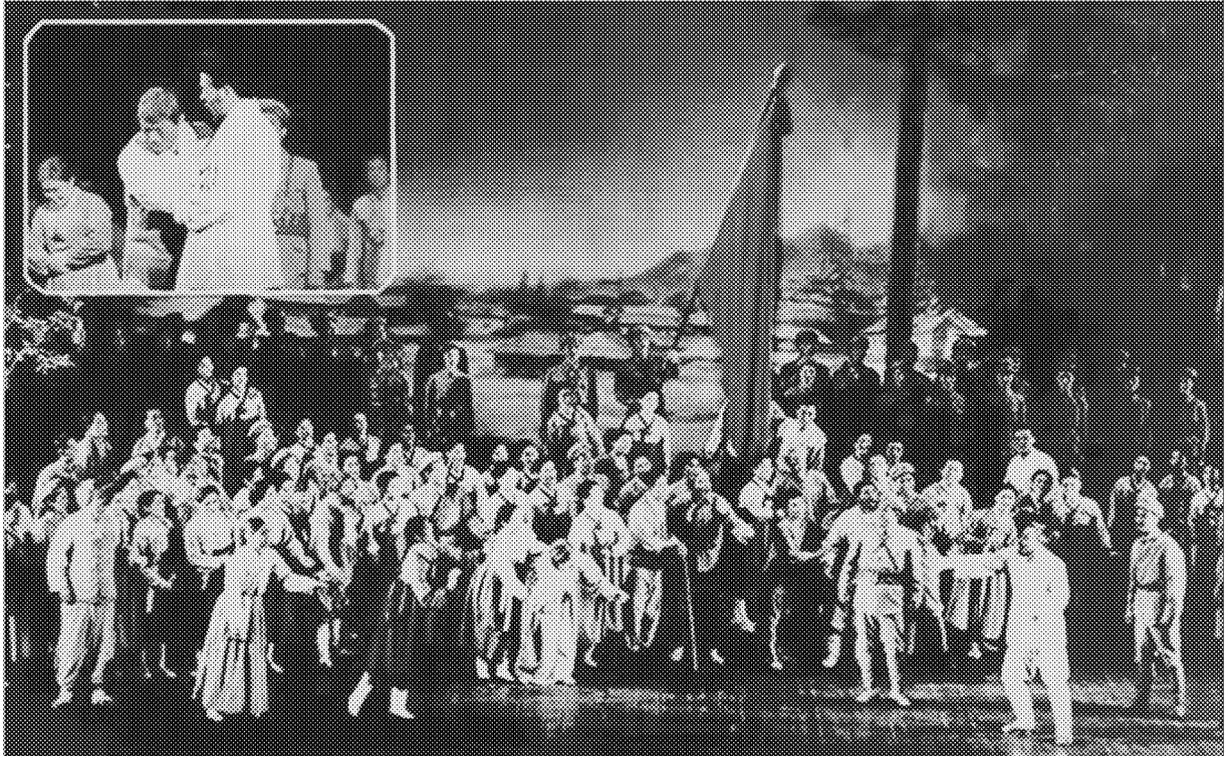
그러나 최병훈은 참기 어려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로 참고 이겨내며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 그는 적후공작의 힘겨운 나날속에서 더욱 간절해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

사령부통신원과 유격대원이 된 영호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의 말씀과 귀중한 선물시계를 전달받은 주인공 최병훈은 어버이장군님의 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그이께서 주신 임무를 무조건 수행하려는 일념으로 불탄다.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맞다드는 정황을 능란하게 처리하면서 적들을 유격대가 매복한 홍산골로 유인하여 전멸시킨다.

작품은 해방된 마을에서 최병훈이 딸과 마을사람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대를 이어 충직해갈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막을 내린다.

가극은 왜놈의 신임을 받는 《구장》과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지하공작원으로서의 2중적성격을 절가로 된 노래로 성격화함으로써 혁명의 한길에서 살아도 죽어도 영광

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꿋꿋이 헤쳐나가는 혁명가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또한 이전에 창조되였던 작품과는 달리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딸을 혁명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최병훈을 혁명임무에 끝없이 충실할뿐아니라 풍부한 인간성을 체현한 참된 혁명가로 그리고있다.

—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나오는 장면: 서장에서 주인공 최병훈에 의해 불리워지며 덧붙여진 후렴구적선률은 남성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이 노래의 선률은 제3장에서 노래 《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그립네》, 종장 《이 영광 이 기쁨 길이 전하라》로 반복되며 제4장 2경과 제5장 2경에서 관현악의 주제로 나온다.

노래는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가는 주인공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고 양상을 통일짓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온갖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혁명임무를 한몸바쳐 수행해가는 혁명투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노래의 가사에서는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모욕과 저주를 받고 사랑하는 딸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으면서도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인공의 강한 혁명적의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기어이 완수하고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는 주인공의 불굴의 신념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화대조식에 기초하여 3/4, 4/4, 3/4의 특색있는 교체박자속에 전개되고있다. 또한 선률은 구조적으로도 첫 부분이 두개 부분으로 되고 둘째 부분이 악절형식으로 구성된 복합2부분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래의 선률은 주인공의 굳센 의지의 반영이런듯 엄숙하면서도 절절한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첫 부분에서 두개 악단의 선률에서는 딸에게도 말 못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심정이 웅심깊으면서도 절절한 정서로 형상되고있다. 특히 선률에서 마치 모대김과도 같은 3련음부 음조에 의한 절절함, 3/4박자가 4/4박자로 변화되여 폭넓은 흐름으로 강하게 부각되는 의지적인 성격 등은 말할수 없는 사연으로 안타까와하는 주인공의 심정과 함께 그가 지닌 억센 의지,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후렴선률이 가공되여 더 격조높이 울림으로써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사의 강철같은 의지, 드높은 기개, 확고한 신심과 열정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혁명임무에 충실한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보다 격동적인 정서속에서 형상되고있다.

o 기둥노래

•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 나오는 노래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가 아주 좋습니다.》

나오는 장면: 최병훈이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딸에게 말해주는 5장 1경의 장면에서 1절은 복순, 2절 전렴은 최병훈, 후렴은 최병훈과 복순이의 2중창 그리고 3절은 녀성방창과 혼성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는 같은 장에서 《리별의 이 한밤은 지새여가네》의 선률로 나온다.

노래는 작품의 종자를 집중적으로 밝히면서 주인공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는데서 기둥을 이룬다.

노래는 장군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정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주인공의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세계와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2중창과 방창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빼앗긴 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혁명의 준엄한 길 함께 나서자
대를 이어 일편단심 충성 다하며
장군님의 전사로 싸워나가리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그 길에선 죽음도 영광이라네
앉아서 편안하게 혁명을 하랴
아버지도 딸자식도 집을 떠나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빼앗긴 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온 가정이 혁명의 준엄한 길에 나설것을 결심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해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우는 참된 인간들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또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여기에 혁명가의 가장 값높은 삶과 영광이 있다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노래는 화소조의 4/4박자로 씌여져있으며 동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은 혁명에 대한 주인공의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감을 엄숙하면서도 절절한 정서로 부각시키고있다.

선률은 처음부터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매우 웅심깊고 무게있게 흐르다가 둘째 악단에서 상승진행으로 지향적인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혁명에 대한 주인공의 드팀없는 의지를 정서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강렬한 힘을 안고 높은 음구에서 세차게 설레이며 주인공의 드팀없는 신념과 그의 군센 마음을 담아 의지적으로, 확신성있게 전개된다.

가극에서는 3절 후렴을 더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주인공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확고한 신념, 드높은 기개, 불타는 열정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나오는 장면: 1장 1경에서 마을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딸에게서까지 구장노릇을 제발 그만두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주인공이 혼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노래로, 후렴반복때에는 남성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의 선률은 2장에서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로, 4장 2경에서 《혁명위해 싸우는 길 순탄만 하랴》로, 5장 2경에서 《노래불러 진격을 신호하리라》로 반복되며 종장 해방된 마을장면에서 관현악주제로 나온다..

노래는 혁명가로서 최병훈의 성격적특질을 보여주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로 극발전을 추동한다.

노래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기어이 수행하려는 주인공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고있다.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노래의 가사에는 적후에서 슬픔과 외로움도 이겨내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통해 혁명가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라내림소조식에 기초하여 동적2부분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노래의 선률에는 주인공 최병훈의 내면세계가 절절하면서도 의지적인 정서로 부각되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다정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주인공의 괴로운 심정을 안타까움이 비낀 절절한 정서로 형상하고있다면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혁명가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는 주인공의 억센 의지, 드팀없는 신념을 정서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 《홀로 핀 진달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 나오는 노래 〈꽃늪가〉와 〈홀로 핀 진달래〉는 다 명곡입니다.》

나오는 장면: 마을사람들과 송명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복순이 홀로 남아있는 1장 1경장면에서 1절은 녀성방창, 2절은 복순이에 의하여 불리워지며 2경에서 《밤중에 우는 새야 너마저 홀로 우느냐》로 반복된다.

노래는 소박하고 깨끗한 복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가극의 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감정적전제와 극발전을 추동하는 생활적바탕을 마련해준다.

노래는 다정하던 마을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홀로 남은 복순이의 크나큰 슬픔과 서러운 심정,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방창과 복순의 노래

홀로 핀 진달래

다정하던 동무들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살뜰하던 이웃들은 만나서도 말 안하네
(후렴)

노래의 가사에서는 아버지가 왜놈의 《구장》으로 된것으로 하여 어제날 다정하던 동무들과 살뜰하던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복순이의 외롭고도 쓸쓸한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모진 바람에 애처롭게 꺾이는 진달래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라소조식에 기초한 4/4박자의 선률은 동적2부분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노래의 선률은 서정적주인공의 고독과 원망의 감정을 담아 쓸쓸하면서도 하소연하듯 흐른다.

첫 부분에서는 깊은 서정을 안고 부드럽게 흐르는 선률적굴곡과 반음계음정 인입 등으로 애달픔을 강조하면서 버림받은 처녀의 피로움과 설음의 감정을 잘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무겁고도 불안한감을 주는 화성적색채속에 전개되면서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는 처녀의 심리 즉 아버지에 대한 처녀의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장

1. 관현악과 방창 《아 밀림이 설레인다》
2. 복순의 노래와 방창 《아 이 어인 일인가요》
3.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제1장

1경

1. 방창 《빼앗긴 내 조국땅 봄은 왔건만》
2. 수비대장의 노래 《멀지 않아 〈토벌〉대가 마을에 든다》
3. 최병훈과 마을사람들의 노래 《무엇을 이렇게 꾸물거리나》
4. 송명식의 노래 《어찌하다 저런 놈과 사돈을 맺었던가》
5. 리씨와 마을녀인들의 노래 《복순이는 마음씨가 참말 곱다오》
6. 방창과 복순의 노래 《홀로 핀 진달래》
7. 영호와 복순의 노래 《내 어이 잊으랴》
8. 마을청년들의 합창 《기쁜 소식 날아왔네》
9. 복순의 노래와 방창 《아버지 구장노릇 그만두세요》
10.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일편단심 혁명임무 다하는 길에》
11. 방창 《간악한 원쑤들 흉계 꾸민다》
12. 2중창 《공을 세워 출세하세나》
13. 최병훈의 노래 《어이하면 젊은이들 구원해내랴》

2경

1. 복순의 노래와 방창 《밤중에 우는 새야 너마저 홀로 우느냐》
2. 2중창 《우리 서로 한마음으로 살아나가리》
3. 방창 《야속한 마음》
4. 영호의 노래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어긴단 말인가》
5. 방창 《원호물자 어이하면 유격대에 보내랴》

제2장

1. 방창 《꽃늪가》
2. 가무 《인민혁명군동무들에게 어서 보내세》
3. 복순의 노래와 방창 《꽃물결아 말해다오》
4. 방창과 복순의 노래 《인제는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5.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

제3장

1. 방창 《원쑤의 소굴에 불을 지르자》
2. 최병훈의 노래 《모두다 〈토벌〉대 환영을 가서》
3. 왜놈의 병영에 불을 지르다
4. 방창 《나라없는 설음》
5. 합창 《천백번 죽는대도 싸워가리라》
6. 마을사람들을 구원하다
7.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그립네》

제4장

1경

1. 관현악과 방창 《반갑게 만나는 혁명동지들》
2.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3중창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곁에》
3. 방창 《그 언제나 그리는 마음의 별빛》
4. 환상장면 《장군별》
5. 2중창과 방창 《오직 한길 장군님께 충성다하리》
6. 3중창, 방창 《그리운 장군님께 전하여주오》
7. 최병훈 표가를 쏘다

2경

1. 방창 《왜놈의 대부대 밀리여왔네》
2. 《토벌》대장의 노래 《오늘도 한개 련대 도착하였다》
3. 용탁의 노래 《대장님 나를 살려주》
4. 송명식의 노래 《장하다 나의 아들아》
5. 방창 《아 이 일을 어이하랴》
6. 왜병들의 노래 《홍산골이 어딘가》

7.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홍산골에 가는 길은 하늘밖에 없소이다》
8. 방창 《혁명위해 싸우는 길 순탄만 하랴》

제5장

1경

1. 방창과 복순의 노래 《이밤이 깊을수록 내 설음 끝없네》
2. 방창과 최병훈의 노래 《리별의 이 한밤은 지새여가네》
3. 복순, 최병훈의 노래와 방창 《조직의 비밀은 혁명의 생명》
4. 2중창과 방창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네》

2경

1. 관현악과 《토벌》대장, 왜놈들의 노래 《우리를 데리고 어데로 가느냐》
2. 최병훈의 노래 《홍산골이 틀림없소》
3. 방창 《노래불러 진격을 신호하리라》
4. 최병훈의 노래 《아리랑》
5. 방창 《밀림속에 쓰러진 혁명전사여》

종장

1. 해방된 마을
2. 합창과 무용 《결사전가》
3. 2중창과 대중창 《이 영광 이 기쁨 길이 전하라》

－상식－

방 창

방창이란 극진행을 방조하여 무대밖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방창은 무대노래로 할수 없는 서사적묘사나 극적묘사 또한 서정적인 묘사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가극의 새로운 성악연주형식이다.

방창은 정황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쓰일뿐아니라 역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펼쳐보여주며 시대와 생활을 폭넓게 그려주는 수단으로, 극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무대와 관중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등 만능의 형식으로서 가극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피바다》식가극의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방창을 발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우리 식의 독창적인 가극을 창조한데 있다.

방창은 규모와 성별에 따라 대방창, 소방창, 남녀혼성방창 등으로 부른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새로 만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구성도 좋고 줄거리도 좋습니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창조되여 주체62(1973)년 4월 15일에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주체62(1973)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피바다》식혁명가극이 창조되여 세인을 놀래우고있던 1970년대에 또 하나의 걸작으로 창조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보아주시고 가극이 훌륭히 완성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이 무겁지 않고 밝아서 좋다고, 가사도 잘 지었고 《목란꽃의 노래》를 비롯해서 노래들이 다 좋으며 작품구성에서도 별로 손댈것이 없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작품에서는 생활을 분식하거나 과장하는것이 없이 우리의 생활현실을 잘 형상하였고 날라리식표현은 조금도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춤이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춤추는 장면이 많으니 보는 사람들도 더 황홀하다고, 무용《사과풍년》은 세상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가극에 넣어 보니 더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대배경을 황홀해질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장면과 장면련결이 자연스럽게 잘되였고 주인공과 그 딸역을 맡은 배우가 잘한다고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작품은 외국사람들이나 남조선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이라고, 형상을 잘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가사와 음악, 무용 그리고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형상이 다 잘되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보아주시면서 작품이 아주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창조집단에 감사를 주시였으며 이 작품에서는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노래와 춤을 다 듣고 볼수 있다고, 말하자면 이 작품은 우리 나라 예술을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고있다고, 배우들이 노래도 연기도 다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4월 6일 평양예술극단(당시)에서 새로 만든 가극 《금강산처녀》의 첫 시연회를 보아주시고 가극의 제목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로 고쳐주시면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극작품이라면 의례히 갈등이 설정되고 그것이 심각할수록 극성이 강화되며 흥미도 있게 된다는 기성관념을 깨뜨리시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창조과정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을 갈등없이 만들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내용으로 했거나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갈등이 없어도 창작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좀 밝게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좀 밝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이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갈등설정에서 찾고있는 창작가들에게 가극의 결함이 갈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극의 기본선에 맞게 초점을 주고 형상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해결방도까지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주체62(1973)년 4월 13일 창조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갈등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모범적인것과 아름다운것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당의 사상은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정당하며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도 철저히 구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속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히 창조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ㅡ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종자

인민의 태양이 있어 눈물많던 금강산이 락원의 금강산으로 되였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참다운 삶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우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를 주제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락원이며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예술극장
창조단체: 평양예술극단(당시)
등장인물: 황석민: 작곡가. 본이름 김철민(남성중음)
명희: 석민의 안해. 2중천리마파수작업반장(녀성저음)
순이: 석민의 딸. 금강산처녀(녀성고음)
어린시절의 순이(아동성음)
창수: 어로공. 순이의 약혼자(남성고음)
연출가(남성고음)
애련: 안무가(녀성고음)
박아바이: 금강산 약초캐는 늙은이(남성저음)
유격대지휘관(남성저음)
박동무(남성저음)
이쁜이, 옥희, 녀인1, 금강마을사람들, 예술소조원들, 어로공들, 벌목부들
자본가, 서사, 감독, 형사, 경찰들

— 이야기줄거리

서장과 종장, 7개의 장으로 구성되였다.

가극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생리별을 당했던 황석민일가가 수십여년의 세월이 흐른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인 작곡가 황석민이 현실창작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행복넘치는 금강마을을 찾아오는것으로 시작된다.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고향땅에서 금강산처녀들의 락천적인 생활을 보며 감격을 금치 못하던 주인공은 뜻밖에도 그들속에서 지난날 일제식민지하에서 헤여졌던 딸의 이름과 같은 순이라는 처녀를 알게 된다. 사람 못살 그 세월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안해와 딸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에게 있어서 딸의 이름은 가

슴아픈 추억과 처자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순이와 어머니도 달빛아래 아버지를 그리며 원한의 그날을 추억한다.

나라를 잃고 슬픔에 쫓겨 금강산 깊은 골에 숨어살면서 밝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념원을 구성진 피리가락에 담아 애타게 소원하였지만 자본가놈의 별장 지을 자리에 밭을 일구었다는 《죄》로 남편은 왜놈에게 잡혀가고 순이의 모녀는 생리별의 슬픔을 안고 살길을 찾아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이였다. 하기에 순이와 어머니는 행복이 커갈수록 지난날을 잊지 못하면서 아버지와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한다.

가극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및 생활적전제속에 순이의 집을 찾아온 주인공과 딸이 한 지붕아래에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펼쳐줌으로써 그리움의 감정을 극적으로 더욱 심화시킨다.

주인공 황석민은 금강마을사람들의 락천적인 로동생활과 예술소조원들의 랑만에 넘친 노래와 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속에서 강렬한 창작적충동을 받아안는다. 지난날 눈물의 금강이 전화의 불길속에 영웅의 금강으로, 오늘은 락원의 금강으로 전변된 현실앞에서 주인공은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안고 마침내 그이께 드리는 송가 《금강산의 노래》를 창작하게 된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으로 마침내 예술축전작품의 주제가를 창작한 그는 금강마을을 떠난다. 뒤이어 순이와 그의 애인 창수도 지난날의 사연이 깃든 소중한 피리를 가슴에 안고 금강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에 올라간다.

도에서 예술축전에 출연할 《목란꽃춤》을 련습하는 과정에 《목란꽃의 노래》에 담긴 깊은 사연을 둘러싸고 순이와 황석민의 극적심리세계는 더욱더 심화되며 이로하여 순이는 련습장을 뛰쳐나가기까지 한다.

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금강마을예술소조원들과 함께 혁명의 수도 평양에 올라온 황석민은 련광정에서 순이와 창수가 지난날 자기가 지어불렀던 잊을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어 창수에게서 자기가 불던 피리를 보게 된 황석민은 이를 계기로 그처럼 그리던 딸의 소식을 알게 된다.

금강마을예술소조원들이 예술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 공연성과로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속에서 마침내 황석민은 20여년동안 헤여졌던 딸과 뜻깊은 상봉을 한다. 이 상봉의 기쁨은 금강산에서 황석민과 그의 안해 명희의 상봉으로 하여 더욱 커지며 이들의 상봉을 축복하는 환희가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작품은 막을 내린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금강산의 노래》

나오는 장면: 서장에서 관현악으로 연주된다.

제3장 2경 황석민의 창작세계가 펼쳐지는 장면에서 방창으로 불리워진다.

제7장 금강마을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장면에서 후렴은 대방창, 1절은 순이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은 다시 대방창과 순이에 의하여 불리워진다.

종장《5천만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선률로 불리워진다.

노래 《금강산의 노래》는 가극의 중요대목에서 여러번 반복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가극의 주제사상을 밝히고 극을 발전시키며 양상의 통일을 보장하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아주시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의 마음을 아름답고도 뜨거운 시적형상으로 격조높이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은 민족적정서가 짙고 우아하고도 밝은 선률의 풍만한 형상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미내림대조의 6/8박자로 된 노래는 동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빛나는 자욱자욱을 더듬어보듯 아름답고도 우아한 정서로 감회깊이 형상하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은 절정 및 해결부분으로서 금강산을 인민의 산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찬양과 그이의 품속에서 부럼없이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감정을 환희와 격정에 넘친 정서로 형상하고있다.

선률은 밝고 화려한 색채, 랑만적이면서도 환희적인 감정을 잘 살려주었다.

노래는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민족적정서가 풍만한 송가로서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감사의 정을 가슴뜨겁게 노래함으로써 작품의 기본주제사상을 밝혀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ㅇ 기둥노래

• 《금강산아 말을 하여라》

나오는 장면: 금강산에 대한 작품을 쓰기 위해 금강마을에 온 주인공 황석민이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서장장면에서 1절은 녀성대방창으로, 2절은 황석민의 노래로 불리워지며 후렴구적인 선률은 혼성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 《금강산아 말을 하여라》는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그의 성격을 기초

지어주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극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암시해주고있다.

노래는 지난날 금강산에서 사랑하는 딸과 안해와의 리별을 당한 눈물겨운 사연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를 통하여 나라를 빼앗기면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인민의 피눈물로 얼룩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창과 황석민의 노래

금강산아 말을 하여라

원한의 그 세월에 울던 내 딸아
애처로운 네 모습 잊을수 없구나
아버지를 부르던 너의 목소리
오늘도 봉이마다 울리여오는구나

아 금강산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에 찾아왔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금강산 봉이봉이마다에서 아직도 아버지를 찾던 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듯싶고 이로 하여 애처로운 그 모습이 더욱 그립게 안겨오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슴아프게 갈마드는 쓰라린 지난날에 대한 주인공의 회고의 감정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쏠대조식에 기초하고있다.

선률은 2절에서 후렴구적선률이 덧붙음으로써 첫 부분이 동적2부분, 둘째 부분이 악절로 이루어진 복합2부분형식으로 특색있게 구성되여있다.

선률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웅심깊고 절절한 정서로 그려내고있다.

6도조약진행과 동도진행으로 시작된 첫 부분의 선률은 그리운 처자를 생각할수록 더더욱 가슴뜨거워지고 생각깊어지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방불하게 그려주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안해와 딸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을 폭발시켜 절정을 이루다가 마지막악단에서 뚜렷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상승진행으로 희망의 감정을 명백히 드러낸 후 첫 부분 둘째 악단 두번째 악구를 밝고 랑만적인 정서속에 반복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2절에서 후렴구적인 선률이 덧붙여짐으로써 어제날 눈물의 금강산이 오늘 어떻게 인민의 산으로 전변되였는가를 노래하려는 주인공의 깊은 감동과 격정의 세계를 앞의 선률보다 더 밝고 숭엄하게 펼쳐보이고있다.

-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나오는 장면: 제2장 해방전 주인공이 어린 순이에게 피리를 불어주는 장면에서 1절은 명희, 2절은 황석민에 의해 불리우며 다른 가사에 의해 반복되는 후렴은 혼성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제6장 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순이가 련광정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전렴은 순이의 노래로, 후렴은 순이와 창수의 2중창으로 불리워진다.

제7장 주인공 황석민의 가정이 다시 만나는 상봉장면에서 《수령님의 품속에서 꿈과 같이 만났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황석민일가의 인정선과 상봉선에서 기둥을 이루면서 어제날의 금강산과 오늘의 금강산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노래는 나라를 빼앗겨 빛을 잃은 금강산에 대한 가슴아픔과 자식의 밝은 앞날에 대한 동경을 통하여 밝은 세상이 오기를 절절히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간절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명희, 철민의 노래와 2중창 및 방창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나라없는 슬픔에 쫓기는 이 몸
금강산도 빛을 잃고 설레이누나
우리 아기 크게 자랄 그 앞날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이 땅에 새세상 밝아오며는
우리는 옛말하며 살아가리라

노래의 가사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눈물만이 차넘치던 금강산의 처량한 모습을 무지개 타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렸다는 옛 전설과 결부하여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래일에 대한 희망, 그속에서 어린 딸이 선녀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는 기대가 한껏 어려있다.

노래가사의 이러한 내용은 처량하면서도 사색적인 선률정서에 의해 훌륭히 안받침되고있다.

6/8박자의 선률은 화대조식에 기초하고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눈물과 한숨속에 살아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불행한 생활감정을 매우 처량하고 애처로운 정서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밝은 정서적색채를 띠고 지향적으로 폭넓게 발전하여 절정을 이루고있으며 이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희망과 기대를 음악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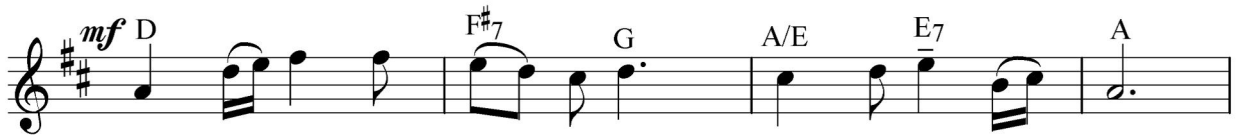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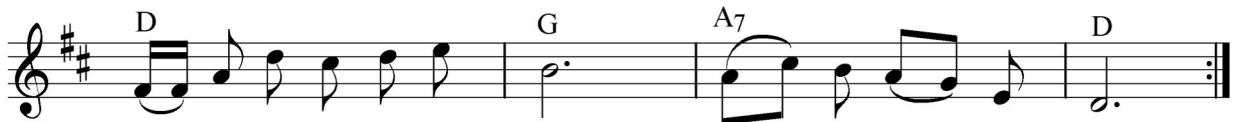
가극에서는 후렴선률을 다시한번 반복하여줌으로써 래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희망을 강조해주고있다.

- 《목란꽃의 노래》

나오는 장면: 도에 올라온 순이가 황석민과 안무가 애련의 지도를 받으며 예술축전작품을 련습하는 5장 1경장면에서 나온다.

작품의 주제사상이 명확히 반영된 노래는 가극에서 순이를 성격화하고있으며 순이와 아버지의 인정선에서 또 하나의 극적계기를 마련해주면서 종자해명에로 극발전을 추동하고있다.

노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아름답게 피여난 목란꽃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의 정과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우리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방창과 순이의 노래

목란꽃의 노래

목란꽃향기를 함뿍 안고서
아름다운 금강산을 노래하리라
수령님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락원속에 우리 살리라

지난날 비바람 눈보라속에
필래야 필수 없던 금강의 목란
이 강산에 넘치는 해빛아래서
송이송이 천만송이 피여난다네

아 목란꽃 조선의 꽃이여
사회주의 이 강산에 만발하여라

노래의 가사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고역과 천대속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오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였음을 아름다운 목란꽃에 비유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락원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려갈 밝은 래일에 대한 락관의 감정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에서는 가사의 이러한 사상감정이 밝고 경건한 정서로 형상되고있다.

6/8박자의 선률은 레대조에 기초하여 씌여졌으며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첫 부분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한떨기 목란꽃처럼 아름답게 피여나는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생활을 밝고 우아한 선률형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첫 악단에서부터 폭넓은 감정을 안고 설레이면서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락원을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 감사의 정을 한껏 분출시키고있으며 뜨겁고도 지향적인 성격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락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의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장

1. 관현악 《금강산의 노래》
2. 방창과 황석민의 노래 《금강산아 말을 하여라》

제1장

1. 가무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2. 순이와 처녀들의 노래 《오늘의 우리 생활 그려주세요》
3. 황석민과 처녀들의 노래 《수령님해빛아래 새세상 꽃펴》
4. 황석민의 노래와 3중창 및 방창 《헤여져 몇해런가》

제2장

1. 방창과 순이의 노래 《달빛밝은 이밤에》
2. 명희의 회상

   방창 《정든 고향 어데 두고》

   순이의 노래와 방창 《금강산의 목란꽃》

   명희, 철민의 노래와 2중창 및 방창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철민 체포되여가는 장면

   명희의 노래 《금강산 깊은 골에》

   방창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
3. 명희, 순이의 2중창과 방창 《떠나가신 아버지는 어데 계신가》
4. 방창 《그립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5. 순이와 박아바이의 2중창 《잊지 못할 지난날 싸움의 날에》

제3장

1경

1. 방창, 명희와 처녀들의 노래 《과일향기 넘치는 우리 과수원》
2. 방창과 무용 《사과풍년》
3. 예술소조원들의 노래 《금강산노래를 지으시려고》
4. 가무 《사회주의 이 강산 노래부르자》
5. 대중창과 무용 《사회주의 우리 농촌 좋을시구》
6. 애련이와 연출가의 2중창 및 황석민의 노래와 방창

   《자라나는 새싹을 키우라 하신》

2경

1. 황석민의 창작세계가 펼쳐지다
2. 방창 《금강산의 노래》
3. 황석민과 연출가의 2중창 《찬란한 우리 태양》
4. 3중창, 방창 《고개너머 정다운 집 찾아가며는》

제4장

1. 방창, 명희와 순이의 2중창 《자애로운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
2. 순이와 창수의 2중창 《아름다운 금강산의 노래를 안고》

3. 3중창 《오랜 세월 간직해온 귀중한 피리》
4. 박아바이의 노래와 합창 《60청춘 좋은 세월에》
5. 합창과 방창 《금강산 젊은이들 떠나간다네》

제5장

1경

1. 방창과 순이의 노래 《목란꽃의 노래》
2. 황석민의 회상
   방창 《눈보라 울부짖는 북방의 산판》
   방창과 대중창 《세상에 귀중한건 사람이언만》
   방창과 황석민의 노래 《나라없는 백성이란 이런것이냐》
   유격대지휘관의 노래와 3중창 및 방창
   《조국광복 이룩할 그날이 오면》
3. 방창과 순이의 노래 《목란꽃의 노래》

2경

1. 방창, 순이와 애련의 노래 《달빛어린 바다가 백사장에서》
2. 황석민의 노래와 방창 《한송이 목란꽃에 잠기는 추억》

제6장

1. 방창, 처녀들의 노래와 대중창 《우리의 평양》
2. 방창 《못 잊어라 지난날 어린시절에》
3. 순이와 창수의 2중창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4. 창수, 황석민의 노래와 방창 《소중한 피리》
5. 방창 《금강산의 옛 노래 피리의 사연》

제7장

1. 방창과 순이의 노래 및 무용 《금강산의 노래》
2. 딸을 찾은 황석민
3. 방창과 대중창 《수령님의 품속에서 꿈과 같이 만났네》

종장

1. 방창 《금강산 젊은이들 돌아온다네》
2. 3중창과 합창 《갈라졌던 혈육들이 서로 만나네》
3. 대중창 《5천만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2) 《피바다》식가극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는 내용도 좋고 좋은 노래도 있으며 가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괜찮습니다. 특히 창성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만큼 이 가극을 〈피바다〉식으로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 정 일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는 《피바다》식가극으로 창조되여 주체61(1972)년 10월 23일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창조를 몸소 지도하시여 《피바다》식가극으로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가극창조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 갈등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잘 그릴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주체61(1972)년 9월 16일 창조현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반부에서 주인공의 생활을 더 그려주어 그의 리력도 밝혀주고 아기자기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정황에 맞게 수령님의 덕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인공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그가 사업하는 과정에 동요도 할수 있고 고민도 할수 있는것만큼 그의 생활의 근저에 놓여있는 문제를 작품에 설정해놓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는 행동이 없이도 수령님의 덕성과 당정책을 가지고 방창으로 풀어줄수 있다고 그 해결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가극의 노래들을 명곡으로 만들데 대하여서와 무용

을 가극의 극적정황에 맞게 넣을데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에서는 노래가 기본인것만큼 노래가 많아야 한다고, 가극에서 하는 노래는 들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극에서 대화창을 없애고 노래들을 절가화한것은 잘하였다고, 가극에서 음악과 감정조직을 밀착시킬데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4장 2경 《뜨락또르운전수의 노래》가 나오는데서부터 감정조직이 너무 빠르고 전제가 없이 지내 급변하다나니 노래와 관현악이 토막나고 여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음악적인 형상수단을 다 동원하여 관현악에서 여운을 줄것은 주고 감정조직이 음악에 복종되게도 하고 음악이 감정조직에 복종되게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용을 가극의 극적정황에 맞게 넣으며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킬수 있도록 무용의 형상수준을 높이고 소도구도 내용에 맞게 적당히 쓸데 대하여서와 무대미술도 혁신하여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보여준것처럼 흐름식립체미술로 특색있게 할데 대하여 등 여러차례에 걸쳐 가극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는 《피바다》식가극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의 종자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 있어 사람 못살 창성땅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가극은 사람 못살 고장이였던 두메산골 창성땅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여가는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우리모두를 따뜻이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친어버이품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예술극장

창조단체: 평안북도예술단

등장인물: 김창순: 작업반장. 후에 관리위원장(녀성고음)
명호: 그의 아들(아동성음). 후에 인민군대 군관(남성고음)
명숙:그의 딸(아동성음). 후에 대학생(녀성고음)
조씨: 그의 시어머니(녀성저음)
군당일군(남성고음)
영식: 세포위원장. 후에 리당위원장(남성고음)
윤로인: 축산분조장(남성중음)

덕삼: 농산분조장(남성저음)
정실: 축산분조원(녀성고음)
옥별: 축산분조원(녀성고음)
이웃농장원(남성고음)
청년 1, 2
처녀 1, 2, 3
기타 반원들 다수

— 이야기줄거리

서경과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궁벽한 두메산골인 창성군 간암마을을 찾아주시며 이 지방 인민들의 농사형편과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창성이 벌방지대 못지 않게 잘살수 있는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다.

작업반장 창순과 마을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종자양과 뜨락또르를 비롯한 영농기자재들을 보내주시며 이 고장 사람들이 비탈밭을 논으로 풀었으나 벼가 아지를 치지 않아 안타까와할 때에는 몸소 이곳을 또다시 찾으시고 험한 밤길에 홰불을 추켜드시고 논머리에서 벼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주신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제날 화전민의 딸이였던 창순을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키워주시며 그의 아들딸들을 조국의 방선을 지키는 믿음직한 초병으로, 사회주의농촌의 기술일군으로 키워주신다.

주인공 창순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산에 묻힌 재부들을 찾아내고 산열매나무들을 정성껏 가꾸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간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창순과 마을사람들의 투쟁으로 마침내 창성땅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다.

이러한 투쟁의 나날에 창순은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당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처럼 가극은 창성땅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와 창성사람들의 높은 애국의 열의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가극은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그것을 뜨겁게 체험한 창성사람들의 높은 애국의 열의를 하나의 흐름선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회주의현실주제의 극작품에서 갈등이 설정되지 않아도 극성을 보장하며 관중을 극의 세계에로 이끌어갈수 있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의 주요노래

○ 주제가

《**김일성**원수님 아버지품이여》

나오는 장면: 제1장 2경 마을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인공의 가족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장면에서 1절은 창순, 2절 전렴은 가족들, 후렴은 합창으로 불리워진다.

제3장 1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인공의 아들 명호를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고 친히 학원복까지 보내주시는 장면에서 반복된다.

또한 노래는 서경에서 방창 《황금산아 온 세상에 길이 전하라》와 제6장에서 방창, 창순의 노래와 대중창 《고마워라 은혜로운 어버이 그 사랑》의 선률로 불리워진다.

가극에서 노래는 서경과 제6장의 마지막에 불리워지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제시하고 해명하며 주인공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고 작품의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창순, 가족들의 노래와 방창

김일성원수님 아버지품이여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사는
우리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후렴)

노래의 가사에서는 평범한 농촌관리일군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전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도록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고마움의 눈물 적시며 그 은덕을 높이 칭송하는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절절하게 반영하고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심리세계는 흠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흐르는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4/4박자로 된 노래의 선률은 미내림대조식에 기초한 정적2부분형식으로 되여 있다.

첫 부분에서 선률은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흐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을 숭엄하고 절절하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열정적인 정서로 폭발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우리모두를 따사로이 안아주시는 친아버지품이라고 격조높이 칭송하는 주인공의 분출된 심정을 절절하게 부각시키고있다.

○ 기둥노래

• 《수령님의 현지교시 가슴에 새기네》

나오는 장면: 제3장 1경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학습하는 장면에서 1절은 녀성2중창과 방창, 2절은 창순, 3절 전렴은 창순, 후렴은 창순과 명호의 2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밝히면서 작품의 사상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자기가 사는 산간마을을 행복의 락원으로 꾸려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려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은 서정속에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방창과 창순의 노래, 창순, 명호의 2중창

수령님의 현지교시 가슴에 새기네

수령님의 현지교시 새겨갈 때면
마음에 짚이여라 못다한 일들이
노루목 자갈밭도 옥답 만들어
충성의 황금나락 설레게 하리

목란꽃 피였네 아름다운 꽃
정가로운 뜰안에 활짝 피였네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 못 잊어
정성담아 심은 꽃 고운 목란꽃

노래의 가사에서는 산간마을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학습하면서 그이의 뜻 받들어 고향땅을 행복의 락원으로 꾸려가려는 주인공의 불타는 결의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날을 못 잊는 주인공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도 잘 보여주고있다.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레소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노래의 선률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새겨가는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깊은 서정속에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첫 부분에서 사색적인 정서속에 회고의 감정을 자아내며 시작된 선률은 점차 고조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새기면 새길수록 벅찬 환희와 감격으로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는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잘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날의 말씀을 되새기며 힘을 얻는 주인공의 감정세계를 의지적이고도 굳센 정서적색채로써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첫 부분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전개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주인공의 확고한 의지를 절절하게 표현하고있다.

- 《자력갱생 기치높이》

나오는 장면: 제5장 1경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된 창순이가 사람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창순, 후렴은 대중창, 2절 전렴은 방창, 후렴은 창순의 선창과 그를 따라부르는 대중창, 3절은 남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가극에서 노래는 창순을 성격화하면서 극발전을 추동하고 작품의 사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한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려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주인공의 불타는 결의를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창순의 노래와 대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불타는 가슴에 새힘 넘친다
자력갱생 기치높이 나가자 앞으로
우리 힘 우리 마음 모두다 합치여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 세우리

천리마기상을 세상에 떨치며
찬란한 미래 향해 나가자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 손길을 따라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 세우리

노래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사랑의 홰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 땅우에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결의가 반영되여있다.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미내림소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노래의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선률은 행진적이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첫 부분에서 선률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주인공의 투쟁정신을 기백있고 약동적으로 형상하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강한 호소성을 띠면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경

방창 《황금산아 온 세상에 길이 전하라》

제1장

1경

1. 방창 《돌밭을 매네》
2. 명숙, 명호, 창순의 노래 《나는나는 드릴래 빨간 산딸기》
3. 방창 《어머니의 사랑이 모자라선가》
4. 덕삼과 마을녀인들의 노래 《벌방으로 가리라》
5. 윤로인의 노래 《산골물 마시며 자란 사람들》
6. 명숙의 노래 《어머니 이사가자요》
7. 창순의 노래와 방창 《그 언제면 잘살 날이 찾아오려나》

8. 정실의 노래와 방창 《창성땅에 수령님 오셨네》

2경

1.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창순네 집
2. 방창과 영식의 노래 《그 옛날 한숨만 괴였던 가마》
3. 창순, 가족들의 노래와 방창 《**김일성**원수님 아버지품이여》
4. 윤로인과 창순의 노래 《수령님 산골농사 짓는 법 가르치셨네》
5. 창순, 조씨의 노래와 윤로인, 덕삼의 2중창과 합창
   《황금산 꾸려서 잘살아보세》

제2장

1경

1. 마을처녀들의 노래 《수령님해빛아래 꽃피는 마을》
2. 조씨와 마을처녀들의 노래 《반장동문 어델 갔을가》
3. 창순의 노래와 방창 《황금산이 되는줄은 정말 몰랐네》
4. 창순과 이웃농장원의 노래 《애지중지 키운 양 세간을 내네》
5. 옥별, 정실의 노래와 방창 《이동방목 잘해야 해요》
6. 윤로인, 옥별, 정실의 노래와 옥별, 정실의 2중창과 3중창 및 방창
   《이동방목 떠나네》

2경

1. 창순의 노래와 방창 《삼봉산의 소쩍새야 우지를 말아》
2. 처녀들의 가무와 방창 《산열매 따세》
3. 방창과 창순의 노래 《황금산의 풀 한포기 나무 한대에도》
4. 방창 《보고싶은 동무들의 일터를 찾아》

3경

1. 방창과 정실의 노래 《삼봉산 이 아침 아름다워라》
2. 정실의 노래와 정실, 옥별의 2중창 《나는야 방목공》
3. 창순의 노래와 방창 《방목은 걱정말고 어서 가거라》
4. 방창 《휴식도 즐거움도 뒤에 미루고》

제3장

1경

1. 방창과 창순의 노래, 창순, 명호의 2중창
   《수령님의 현지교시 가슴에 새기네》
2. 군당일군의 노래 《수령님 창성살림 심려하셨네》
3. 방창과 가족들의 노래와 대중창 《**김일성**원수님 아버지품이여》

2경

1. 방창과 창순, 명호의 노래 《혁명의 대를 이어 싸워가거라》

제4장

1경

1. 가무, 창순의 노래와 방창 《수령님은덕으로 고추풍년 들었네》
2. 덕삼의 노래와 방창 《벼락부자되겠구나》
3. 덕삼과 창순의 노래 《흙보다도 돌이 많은 이 고장에서》
4. 방창 《고생하던 지난날을 잊어버렸나》

2경

1. 방창과 합창 《정성으로 돌밭에 꽃을 피우리》
2. 덕삼의 노래 《타산 안 맞네》
3. 창순의 노래와 방창 《내 생각 잘못했나》

3경

1. 방창과 조씨, 창순의 노래 《노루목 비탈밭은 무심도 하네》
2. 방창과 윤로인의 노래 《주저말고 일어나라 전사의 안해여》
3. 방창 《아버지가 지켜섰던 351고지에》
4. 영식, 창순의 노래와 3중창 《수령님 보내주신 뜨락또 몰아》

제5장

1경

1. 방창 《이 고장의 첫 벼농사 심려하시여》
2. 덕삼의 노래와 마을사람들의 중창 《어찌하여 벼포기가 퍼지지 않나》
3. 방창 《수령님 추켜드신 사랑의 홰불》
4. 창순, 영식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마을사람들의 합창 《몸소 찬물에 손을 잠가보시며》
5. 창순의 노래와 대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2경

1. 방창 《창성땅의 첫 벼가을》
2. 창순, 명숙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네가 벌써 어엿한 대학생되여》
3. 덕삼과 창순의 노래 《일편단심 충성으로 보답하리라》
4. 방창과 덕삼, 창순의 노래와 대중창 《어버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제6장

1. 분배장에서의 노래와 춤, 대중창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리라》
2. 영식의 노래 《수령님 몸소 전화를 걸어주셨네》
3. 방창, 창순의 노래와 대중창 《고마워라 은혜로운 어버이 그 사랑》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

《가극 〈남강마을녀성들〉도 〈피바다〉식가극의 창조원칙을 구현하여 만든 가극인것만큼 혁명가극이라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김 정 일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은 《피바다》식가극으로 창조되여 주체62(1973)년 8월 23일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의 종자를 바로잡아주심으로써 작품을 명작으로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원래 창작가들은 가극의 종자를 군민관계의 견지에서 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그러다나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고향땅을 지켜싸운 남강마을녀성들의 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없었으며 관중의 심금을 울리는 명장면들을 창조할수 없었다. 결국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창작적번민에 모대기게 되였다.

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이러한 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가극의 종자는 군민일치가 아니라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도 있다는것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잡아주신 심오하고도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창조적사색을 불러일으켰으며 생명력을 잃었던 가극은 새로운 종자에 기초하여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다.

가극이 완성된 후 몸소 작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잘한다고, 도예술단의 수준이 괜찮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의 종자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도 있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고지를 지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도와나선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는 미제와 싸

워 승리할수 있은 원동력이며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우는 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첫 공연장소: 원산극장
창조단체: 강원도예술단
등장인물: 봉녀: 마을녀맹위원장(녀성중음)
금옥: 그의 며느리(녀성고음)
영순: 그의 딸(녀성고음)
철이: 그의 손자(아동성음)
덕만: 마을세포위원장(남성중음)
최로인: 마을로인(남성저음)
재영: 인민군중대장(남성중음)
철호: 인민군특무장(남성중음)
문규: 인민군전사(남성고음)
군당위원장(남성저음)
옥실(녀성고음)
처녀 1
전사 1, 2, 3
그밖에 마을사람들, 인민군전사들

— 이야기줄거리

가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도와나선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가극은 서막과 종장, 7개 장으로 구성되였다.

가극의 주인공인 녀성당원이며 녀맹위원장인 봉녀는 인민군원호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한다. 그는 전선으로 나간 아들 영진이가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고도 슬픔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고 조국을 위하여 딸 영순이마저 자기 오빠가 섰던 초소로 떠나보낸다.

이와 함께 주인공 봉녀는 고지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힘껏 돕는것이 전사한 아들의 몫까지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지에 탄약을 나르기도 하고 적기의 폭격으로 불타는 취사장에 뛰여들어가 끓는 밥가마도 안아내오며 부상당한 전사들도 정성껏 간호해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쳐싸운 영진소대장과 그의 어머니 주인공 봉녀를 높이 평가하여주시고 영웅전사의 아들 철이를 혁명학원으로 보내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봉녀는 전선원호사업에 더욱 발벗고 나선다. 어느날 남강에 큰물이 져 고지에 탄약을 운반할 길이 막히였을 때 봉녀는 마을녀성들과 배를 뭇고 딸의 례장감으로 마련해두었던 명주필을 바줄로 삼아 강을 건너 인민군전사들을 원호한다.

봉녀를 비롯한 마을인민들의 투쟁에 더욱 고무된 고지의 전사들은 인민들과 함께 멸

적의 기세드높이 원쑤들을 쓸어눕힌다. 남강마을인민들의 투쟁소행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신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주인공과 인민들은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소탕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진다.

— **혁명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남강아 길이 전하라》

나오는 장면: 주인공 봉녀와 마을사람들이 사품치는 남강의 푸른 물결과 적기의 맹폭격을 뚫고 탄약을 운반하는 서경장면에서 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4장 2경에서 방창 《원쑤들 총포탄 쏟아부어도》, 제6장 3경에서 방창 《물결은 세차게 배전을 쳐도》, 종장에서 봉녀와 재영의 2중창, 전사들과 녀성들의 합창 및 대중창 《준엄한 시련은 이겨냈어도》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서경과 종장에서 불리워지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제시하고 해명해주며 여러 중요대목에서 반복되면서 양상을 통일시키고 주인공을 비롯한 남강마을인민들의 영웅적인 성격을 음악적으로 보여주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선 남강마을녀성들의 형상을 통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수호한 영웅적조선인민의 투쟁정신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방창

남강아 길이 전하라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포연을 헤쳐나간 남강의 녀성들
수령님부르심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싸워이겼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조국의 준엄한 시련의 나날 가정도 행복도 다 바쳐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도와나선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에 대한 찬양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높이 받들고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싸웠기에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도소조식에 기초한 노래의 선률은 동적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은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힘있고 장엄하면서도 전투적인 정서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거연히 일떠서는 남강마을녀성들의 기상인듯 기백이 넘치면서도 무게있게 전개되면서 불비 쏟아지는 남강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음악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강한 호소성과 강렬한 열정으로 충만된 선률형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남강마을인민들의 투쟁정신과 기상, 그 길에서 변함없을 굳센 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 기둥노래

•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네》

나오는 장면: 제6장 2경 주인공 봉녀가 탄약을 실은 배의 바줄감으로 자기 딸의 혜장감까지 서슴없이 내놓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봉녀, 후렴은 마을녀성들, 2절 전렴

은 마을사람들, 후렴은 봉녀, 금옥과 마을사람들사이에 주고받는 형식으로 불리워지며 반복되는 후렴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는 이보다 앞서 제5장 2경에서 봉녀의 노래와 방창 《남강가로 달리는 어머니마음》의 선률로도 반복된다.

노래는 작품의 종자를 뚜렷이 부각시키면서 주제사상해명에로 극발전을 추동하며 봉녀를 성격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래는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도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죽음도 두려움없이 조국위한 성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봉녀의 노래, 봉녀, 금옥의 2중창과 마을사람들의 합창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네

인 — 민 주 권 있 어 야 행 — 복 도 — 있 네
행진조로 (♩= 136)
장 군 님 밝 혀주 신 한 길 을 따 — 라
조 국위 한 성 전 — 에 떨 쳐 — 나 서 — 자
혁 명 — 의 — 주 인 — 은 우 리 — 들 이 다
모 든 — 것 을 혁 명위해 바 쳐 — 싸 우 — 자
조 국이 있 어 — 야 가 정 — 도 있 — 고
인 민 — 주 권 있 어 — 야 행 복 — 도 있 — 네
침 략자 미 제 — 를 쓸 어 — 버 리 — 고
인 민 — 의 — 자 유행복 지 켜 — 싸 우 — 자

노래의 가사에서는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고 인민주권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는 사상을 뚜렷이 부각시키면서 성스러운 조국을 지키는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쏠소조식에 기초한 선률은 복합2부분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노래의 선률은 가극에서 극정황에 따라 1절은 6/8박자로, 2절은 4/4박자로 불리워진다.

단순2부분구조로 이루어진 첫 부분 선률에서는 절절하고도 강의한 음악형상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조국위한 판가리싸움에 한몸바쳐 싸우려는 주인공의 흥분된 심정과 드팀없는 의지를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강렬한 열정과 호소성으로 지금껏 축적되고 발전시켜온 정서를 폭발시킴으로써 침략자 미제를 쓸어버리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싸우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굳은 결의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선률은 가극에서 주인공 봉녀의 호소에 격동된 군중이 기세충천히 호응하는 장면에서 4/4박자로 변화됨으로써 힘있는 행진곡적인 양상을 띠고있다.

- 《이 은덕 대를 이어 전하렵니다》

나오는 장면: 제5장 1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이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학원복을 받아안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봉녀, 후렴은 방창, 2절 전렴은 처음에 금옥, 뒤이어 녀성들,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종장에서 봉녀의 노래와 대중창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가극에서 봉녀를 비롯한 남강마을인민들이 무비의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은 사상정신적원천을 밝혀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래는 시련에 찬 전화의 나날에도 온 나라 인민들을 사랑의 한품에 따뜻이 품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수령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방창과 봉녀의 노래, 금옥의 노래와 대중창

이 은덕 대를 이어 전하렵니다

하나의 새싹에도 해빛을 주시여
붉은 꽃 피워주시는 **김일성**장군님
만경대 영원한 봄빛을 안고
이 은덕 대를 이어 전하렵니다
아 장군님 **김일성**장군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가사에서는 이름없는 평범한 한 가정에까지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은정에 목메여 감격의 눈시울 적시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3/4박자의 리듬속에 경건하고도 뜨거운 서정을 안고흐르는 선률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률은 레소조식으로서 동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대악절의 구조를 가진 첫 부분의 선률은 무게있으면서도 숭엄한 감정을 자아내면서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짓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의 정서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정을 바쳐가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의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경

방창 《남강아 길이 전하라》

제1장

1. 방창 《불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2. 방창과 봉녀의 노래, 3중창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보는듯》
3. 마을녀성들과 인민군전사들의 중창 《군대와 인민은 하나로 뭉치여》
4. 재영의 노래와 방창, 3중창 《사랑하는 전우의 고향땅에 찾아오니》

제2장

1경

1. 철이의 노래와 금옥, 영순의 2중창과 방창 《배꽃이 피였네》
2. 마을녀성들과 봉녀의 노래 《인민군대 도와가는 우리네 마음》
3. 방창 《이 사연 어이 전하랴》
4. 재영의 노래와 3중창과 방창 《원쑤들의 영구화점 몸으로 막고》
5. 봉녀의 노래와 방창 《어머니는 눈물을 삼켜가네》
6. 덕만, 봉녀의 노래와 방창 《슬픔을 이겨가며 싸워갑시다》

2경

1. 방창과 금옥의 노래 《방아야 남강의 방아야》
2. 방창과 가족들의 노래 《굳세게 살아가자》

3경

1. 방창 《이른새벽 별들도 잠을 깨였나》
2. 봉녀, 영순의 노래와 방창 《총을 잡고 떠나가는 내 딸 영순아》

제3장

1경

1. 방창 《어머니는 밤을 새우며 밭갈이하네》
2. 금옥과 봉녀의 노래 《불비산을 바라보면 쉴수 없구나》

3. 마을처녀들의 중창과 옥실의 노래 《분홍치마 옥실이 처녀보잡이》
4. 덕만과 봉녀, 마을처녀들의 노래 《복수탄 안고서 고지로 가리라》

2경

1. 방창과 문규, 전사의 2중창 및 전사들의 합창
   《포연속에 울려가는 전사의 노래여》
2. 봉녀의 노래, 전사들의 합창과 방창 《달빛아래 녀성들이 보탑을 잡고》
3. 전사들의 합창 《오늘은 그 무슨 특식이려나》
4. 방창과 봉녀의 노래 《전사들은 어머니라 믿어주건만》

제4장

1경

1. 처녀들의 가무 《고지에 보낼 식사 어서 지으세》
2. 봉녀의 노래와 처녀들의 중창 《새벽까지 밝히신 영순 어머니》
3. 철호, 문규의 2중창과 처녀들의 중창 《싸우는 고지는 념려마시라》

2경

방창 《원쑤들 총포탄 쏟아부어도》

제5장

1경

1. 방창과 봉녀, 철호의 노래 《피줄을 이어서만 아들인가요》
2. 최로인의 노래와 녀성들의 중창 《남강이라 우리 고장 물이 좋아서》
3. 처녀들의 중창과 철호의 노래, 처녀들과 전사들의 중창
   《빛나는 위훈 안고 다시 만나리》
4. 군당위원장의 노래 《화선천리 전사들을 찾으신 장군님》
5. 방창과 봉녀의 노래, 금옥의 노래와 대중창
   《이 은덕 대를 이어 전하렵니다》

2경

1. 방창과 봉녀의 노래 《고지의 딸에게 편지를 쓰네》
2. 환상장면 《승리한 강산에 해빛넘치네》
3. 봉녀의 노래와 방창 《남강가로 달리는 어머니마음》

제6장

1경

1. 녀성들의 합창 《전사들은 탄약을 기다리는데》
2. 방창과 봉녀의 노래 《어이하면 건느랴》

2경

1. 방창과 금옥, 봉녀의 노래 《고지에로 잇닿은 어머니정성》
2. 봉녀의 노래, 봉녀, 금옥의 2중창과 마을사람들의 합창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네》

3경

방창 《물결은 세차게 배전을 쳐도》

제7장

1경

1. 방창과 3중창, 전사들의 노래 《장군님전사들이 고지에 있는 한》
2. 재영, 영순의 노래와 방창 《내 어이 이 고지를 떠나겠나요》
3. 방창 《청춘도 생명도 바쳐싸우리라》

2경

관현악 335고지전투장면

종장

1. 대중창 《수령님 만세를 높이 부르자》
2. 봉녀의 노래와 대중창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3. 봉녀와 재영의 2중창, 전사들과 녀성들의 합창 및 대중창
   《준엄한 시련은 이겨냈어도》

—상식—

절 가

절가란 정형시로 된 가사를 몇개의 절로 나누어 동일한 선률에 담아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절가는 구조가 매우 간결하면서도 인간의 사상감정을 다양하고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가요형식의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인간생활을 서정적으로, 서사적으로 묘사하며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엮어놓는 등 서술기능이 다양하고 표현능력이 풍부하여 《피바다》식가극의 중요형상수단으로 되고있다.

가극 《연풍호》

《…작품의 내용이 좋습니다.

가극 〈연풍호〉가 영웅적인 우리 로동계급을 취급한 현실물가극으로서는 첫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가극에 로동계급과 그 동맹자인 농민들도 나오니 좋습니다. 작품에 무리없이 잘 끌려들어갑니다.

가극 〈연풍호〉는 누구나 다 생활을 통하여 이미 체험하였고 또 력사에 있었던 격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기때문에 관중과의 교감이 잘될수 있습니다.》

김 정 일

가극 《연풍호》는 《피바다》식가극으로 창조되여 주체62(1973)년 9월 19일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9월 19일에 평안남도예술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극 《연풍호》의 첫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풍호반의 대전경이 펼쳐지고 주인공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연풍호를 찾아오는 광경을 보여주는 서장을 보시면서 서장이 좋다고, 곡이 좋다고 하시였다.

전반부가 끝났지만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계속 가극의 후반부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지만 언제건설장으로 소환되여가는 기사와 임무를 받고 적후로 나가는 주인공, 기사의 녀동생이 그려보는 래일의 청춘언제에 대한 환상장면에서 주인공들이 아주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연극이나 영화와 달리 오누이로 설정한것은 아주 잘했다고, 주인공이 노래를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가극에서 간첩의 모해를 받은 현석기사가 고민하고있을 때 주인공이 그를 뜨겁게 포섭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 《언제나 서로 믿는 혁명동지들》을 들으시며 노래가 잘되였고 부르기도 잘하며 이 장면이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언제공사장에서 차넘치는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노래와 춤으로 잘 처리했다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도 있고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도 있으며 반간첩투쟁도 있고 반관료주의투쟁도 있는 가극은 내용이 아주 좋다고, 가극이 연극이나 영화보다 낫다고 거듭 평가해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주체62(1973)년 9월 6일 몸소 평안남도예술단에서 창조한 가극 《연풍호》를 보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이 괜찮다고, 가극을 재미있게 보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 《연풍호》에서는 인물설정도 잘하였고 복잡하게 널어놓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영근과 그의 누이동생 영순 그리고 기사와 그의 누이동생 같은 인물들에 형상을 집중시키니 설정자체가 영화적으로 되였지만 새롭게 안겨온다고 만족해하시며 가극의 노래들도 다 좋고 무용도 좋으며 가극의 서사적화폭도 괜찮다고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에서 일련의 부족점들과 해결방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가극이 《피바다》식가극으로 훌륭히 완성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순이 완치되여 돌아오는 장면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형상의 초점을 음악적으로 명확히 찍어줄데 대하여서와 해방전장면에 나오는 노래들가운데서 일부 곡들을 고칠데 대하여, 노래와 관현악의 형상수준을 더 높이고 세련시킬데 대하여서와 무용의상을 새롭고 특색있게 쓸데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 가극해설

— 가극 《연풍호》의 종자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피눈물만 흐르던 이 땅에 사랑의 바다가 펼쳐지게 되였다는 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전후 어려운 시기 평남관개의 거창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와 사랑의 력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첫 공연장소: 남포시립극장(당시)
창조단체: 평안남도예술단
등장인물: 강영근: 농민출신의 로동자. 후에 언제건설사업소 소장(남성고음)
강준호: 영근의 아버지. 농민(남성중음)

박씨: 영근의 어머니. 농민(녀성저음)
강영순: 영근의 누이동생. 농민(녀성고음)
창주: 옆집아저씨. 농민(남성중음)
리씨: 그의 안해. 농민(녀성저음)
현석: 언제건설사업소 기사(남성고음)
현옥: 그의 누이동생. 간호원(녀성고음)
권일수: 언제건설사업소 당위원장(남성중음)
원대성: 언제건설사업소 소장(남성중음)
이밖에 금단과 처녀들, 로동자, 농민, 인민군전사들
민지주(남성저음)
민광렬: 민지주의 아들(남성고음)
고봉환: 자재원. 간첩(남성중음)
마름(남성고음)
기타 일제경찰놈들

— 이야기줄거리

가극은 서경과 종장, 7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은 통수식기념일에 저수지를 찾은 주인공과 건설자들이 바다처럼 설레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어제날 한방울의 물이 없어 피눈물을 뿌리던 열두삼천리벌에 어떻게 되여 연풍호가 생겨났는가를 감회깊게 회상하는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무대에는 나라없던 지난날 열두삼천리벌의 남동마을에서 주인공일가와 농민들이 겪던 피눈물나는 생활이 펼쳐진다. 온 마을이 지주놈의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가물까지 들어 고통을 겪던 어느날 앓고있던 주인공 강영근의 어머니가 물 한모금때문에 열두삼천리벌의 대지주 민가놈에게 매맞아죽는 참상이 벌어진다. 여기에 지주놈에게 항거한탓에 주인공 강영근은 일제경찰에 쫓겨 마을을 떠나게 되고 그를 살리기 위해 놈들을 막아나섰던 아버지는 총에 맞아죽는 불행이 겹쳐든다.

그후 나라가 해방되고 토지개혁의 환희와 기쁨에 설레이는 고향땅으로 주인공 영근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될 새생활의 꿈을 안고 돌아온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원한의 그날 아버지도 왜놈의 총에 맞아 잘못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영근은 눈물로 한밤을 지새우며 슬픔과 괴로움에 모대긴다. 이때 누이동생 영순과 서창주로인이 뜻밖에도 열두삼천리벌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왔다는 놀라운 사연이 전해진다. 이날 서창주로인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영순의 머리우의 물동이도 손수 내리워주시며 물때문에 한날한시에 부모를 잃고 눈물속에 살아온 영근일가의 슬픈 사연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열두삼천리벌에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인공은

고마움의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신다.

이렇게 되여 고향땅에는 대규모의 저수지언제공사가 벌어지게 된다. 이곳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영근은 당위원장의 방조밑에 기사 현석과 힘을 합쳐 창의고안도 하면서 공사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친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영근은 전선으로 나간다. 가렬한 격전장에서 그는 푸른 물결 설레일 고향땅의 래일을 그려보며 용맹을 떨친다. 그후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땅에 돌아온 그는 놈들에게 매를 맞아 불구가 된 동생 영순과 함께 폭격에 페허로 된 언제공사장을 보며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가슴불태운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열두삼천리벌을 찾아오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영근은 한달음에 달려가 수령님을 만나뵙는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때문에 고생하는 농민들을 걱정하시며 몸소 물길자리까지 친히 잡아주시였을뿐아니라 상처입은 영순이를 큰 병원에 입원시켜 고쳐주라고 차까지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푸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한몸 바쳐 보답할 일념을 안은 영근은 언제건설장에 달려나간다. 한시바삐 농민들에게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그는 겨울에도 언제타입을 계속할것을 발기하고 그를 방해해나서는 간첩파괴암해분자 고봉환과 종파사대주의분자인 언제건설사업소 소장의 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한다. 이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의해 언제건설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되며 병원에 입원했던 영순이도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약들을 받아안고 완쾌되여 건설장으로 달려온다.

한편 간첩파괴암해분자 고봉환과 지주아들 민광렬놈은 언제공사를 파탄시키려고 악착하게 날뛴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은 영근이를 비롯한 건설자들에 의해 폭로분쇄되나 놈들이 지른 불로 하여 언제를 덮은 나래들이 불탄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이에 락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솜옷을 벗어 얼어드는 언제를 덮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장의 건설형편을 료해하시고 건설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시여 사랑의 솜옷과 나래를 보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과 은정에 고무되여 건설장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언제는 완성되고 열두삼천리벌에는 생명수가 흘러든다.

몸소 관개공사통수식장에 나오시여 완공의 테프를 끊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의 물결이 출렁이는 인공호수에 세세년년 만풍년을 맞이하라고 《연풍호》라고 이름지어주신다.

가극은 생명수의 흐름을 타고 사회주의락원으로 변모되여가는 조국땅의 현실을 펼쳐보이는 속에서 주인공과 마을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인사를 드리는것으로 막을 내린다.

토지개혁만세

— 가극 《연풍호》의 주요노래

○ 주제가

《장군님은 우리 소원 풀어주시네》

나오는 장면: 제2장 3경 주인공 영근의 누이동생 영순이와 마을농민 창주가 해방된 봄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에서 1절은 영순, 2절 전렴은 창주, 후렴은 영순과 창주의 2중창, 반복되는 후렴은 합창, 3절 전렴은 남성방창, 후렴은 영근, 다시 반복되는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5장에서 방창과 영근, 영순의 노래와 대중창 《자애로운 해빛을 안겨주시네》와 제7장에서 방창, 영근의 노래와 대중창 《전사는 목이 메여 눈물을 짓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 《장군님은 우리 소원 풀어주시네》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송가로서 가극의 주제사상을 밝히고 극을 발전시키며 양상의 통일을 보장하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는 물에 대한 농민들의 가슴속 소원까지도 헤아려보시고 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그 사랑, 그 은덕에 충정을 바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맹세를 담고있다.

영순, 창주의 노래와 2중창과 합창, 영근의 노래와 대중창

장군님은 우리 소원 풀어주시네

땅을 받은 농민들 기쁨은 커도
물이 없어 아직도 고생한다고
장군님은 평남관개구상을 펼쳐
생명수 주시겠다 말씀하셨네
천만년 바라던 농민들 소원
김일성장군님 풀어주시네

피눈물로 가문 땅을 적시여가던
고역에 찬 우리 원한 풀어주시네
장군님 펼쳐주신 관개건설에
이 한몸 바치리라 맹세합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 가슴에 안고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우리 인민모두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품어오던 물에 대한 소망도 헤아려 평남관개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몸바쳐 보답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장의 맹세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가 담고있는 이러한 내용은 숭엄하면서도 짙은 서정으로 충만된 선률형상에 의해 잘 안받침되고있다.

레소조식에 기초한 3/4박자의 노래는 매개 부분이 대악절의 규모를 가진 정적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친어버이 그 사랑을 받아안을수록 나라없던 지난날의 슬픈 사연이 되새겨지고 그로 하여 더욱 강렬해지는 고마움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내적심리세계를 사색적이면서도 감회깊은 서정으로 가슴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폭넓은 선률형상으로 정서적절정을 이루면서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에서 분출되는 경모의 감정을 확신적이고 무게있게 부각시켜주고있다.

○ 기둥노래

• 《아 연풍호 사랑의 바다여》

나오는 장면: 가극의 서경에서 대방창에 의한 후렴으로 시작되여 1절은 녀성방창, 2절 전렴은 영근, 후렴은 등장인물들의 4중창, 3절 전렴은 녀성방창, 두번에 걸쳐 반복하는 후렴은 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종장에서 대중창과 방창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선률로 반

복된다.

노래는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그를 성격화하고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밝히며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극에서는 노래 《아 연풍호 사랑의 바다여》를 통해 연풍호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암시하면서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어떻게 실현되였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있다. 노래는 종장에서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반복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생명수까지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수령님 계시여 이 땅에 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질수 있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방창, 영근의 노래와 4중창

아 연풍호 사랑의 바다여

넘치는 푸른 물결 바라볼수록
어버이 그 사랑에 목이 메여라
물이 없어 가문 땅 눈물로 적신
원한의 그 세월 잊을수 없네

연풍호 그 이름 사랑의 이름
그 언제 이 세상에 생겨났던가
세세년년 만풍년 맞이하라고
수령님은 연풍호라 불러주셨네

세세년년 만풍년 맞이하라고
수령님은 연풍호라 불러주셨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 전하며 열두삼천리벌에 흘러드는 생명수를 격정과 흥분속에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시문학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칭송의 감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은 흠모의 정 넘치는 송가적양상의 선률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라내림대조식에 기초한 4/4박자의 선률은 복합2부분형식의 구조를 이루고있다.

끓어오르는 격정과 환희로 충만된 선률은 가극에서 후렴선률부터 불리워지면서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감정을 한껏 터뜨린다.

단순2부분의 구조를 가진 선률의 첫 부분은 밝고 숭엄하면서도 뜨거운 서정으로 일관되여있으면서 열두삼천리벌에 흘러드는 사랑의 물결을 감회깊게 바라보며 격정으로 들먹이는 서정적주인공의 내적흥분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환희적이고 열정적인 정서로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 흥분과 격정을 폭발시켜 폭넓게 설레이다가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가며 한몸 바쳐 싸우려는 신념의 맹세를 힘있게 확언하는듯 감동적이면서도 의지적으로 끝맺는다.

- 《무정하다 이 세상 야속한 세상》

나오는 장면: 노래는 제1장 2경에서 병든 어머니에게 마실 물마저 대접할길 없어 안타까와하는 영근이오누이의 심정을 담아 1절은 영순, 2절 전렴은 영근, 후렴은 영순과 영근의 2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종장에서 영순의 노래와 영순, 영근의 2중창과 대중창 《열두나 삼천벌에 물이 왔어요》의 선률로 반복된다.

가극에서 노래는 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인공일가의 인정선에서 기둥을 이루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한다.

노래는 지난날 부모들에 대한 정성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착취사회에 대한 주인공들의 저주와 원망의 감정을 담고있다.

영순, 영근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무정하다 이 세상 야속한 세상

고생속에 우리 남매 키우셨건만
병드신 어머니를 구할 길 없네
무정하다 이 세상 야속한 세상
정성도 효성도 드릴 길 없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앓는 어머니에게 맑은 물 한모금마저 드릴수 없어 안타까와하는 눈물겨운 형상을 통해 주인공일가의 뜨거운 인정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고생속에 병든 어머니에게 자식된 도리마저도 지킬수 없게 하는 무정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규가 절절하게 토로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이러한 가사의 내용에 맞게 느리면서도 애절한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쏠소조식에 기초한 6/8박자의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선률의 첫 부분은 처량하고도 비애적인 정서로 물이 없어 가슴태우는 그들의 애절한 정상을 눈물겹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마치도 원한의 세상을 절규하는 주인공의 웨침인양 비분의 정서를 폭발시키면서 극적으로 전개되다가 쉽게는 묵새길수 없는 서정적주인공의 울분의 감정을 다시금 절절하게 강조하면서 끝맺는다.

ㅡ 장면별 음악구성

서경

방창, 영근의 노래와 4중창 《아 연풍호 사랑의 바다여》

제1장

1경

1. 방창, 영근, 준호의 노래 《열두나 삼천리벌은 넓어도》
2. 마름의 노래 《가물들어 논판이 갈라졌는데》
3. 영근, 준호, 영순의 노래와 방창 《올해에도 벼농사 흉년든다면》

2경

1. 방창과 박씨의 노래 《어머니의 병환은 깊어만 가네》

2. 영순, 영근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무정하다 이 세상 야속한 세상》
3. 민지주와 광렬의 노래 《열두나 삼천벌은 내것이로다》
4. 현석의 노래 《고생하는 농민들 바라볼수록》
5. 방창 《이 땅우에 맑은 샘물 솟아날적에》
6. 어머니의 죽음장면
7. 방창, 영순, 영근의 노래 《아 맑은 물 떠왔건만》
8. 방창 《어머니 여기 두고 어이 떠나랴》

제2장

1경

1. 가무와 방창, 영순의 노래 《해방의 새봄이 왔네》
2. 방창과 영순의 노래 《새 세상에 새 기쁨 꽃펴날수록》

2경

1. 방창과 영근의 노래 《꿈결에도 그립던 정든 고향집》
2. 영순, 영근의 노래와 방창 《어이하여 소식 한장 없으셨나요》
3. 영근의 노래와 방창 《아버지를 모시리라 꿈꾸었건만》

3경

1. 방창과 영근, 리씨의 노래 《고향의 하루밤을 눈물로 새고》
2. 영순, 창주의 노래와 2중창과 합창, 영근의 노래와 대중창
《장군님은 우리 소원 풀어주시네》

제3장

1경

1. 방창 《수리화의 새시대를 펼쳐나가자》
2. 방창, 영근과 로동자들의 노래 《청춘의 새 희망 가슴에 안고》
3. 방창 《흘러간 지난날을 더듬어보네》

2경

1. 현옥의 노래 《간호원의 내 정성 바쳐가리라》
2. 창주의 노래와 2중창, 영순의 노래 《천지개벽 새세상 여기서 보네》
3. 영근의 노래와 방창 《하늘도 못 주는 물을 주시려》
4. 방창과 현옥, 현석의 노래 《세찬 물결 몰려와도 비바람쳐도》

3경

1. 방창 《안타까운 이 마음은 풀리지 않네》
2. 일수의 노래와 방창 《새 조선의 언제를 일떠세우려》
3. 방창과 현석의 노래 《수난의 그 력사를 내 어이 잊으랴》
4. 방창과 현석의 노래, 2중창과 3중창 《시련의 험한 산도 함께 넘으리》
5. 일수의 노래와 합창, 2중창과 대중창 《결전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제4장

1. 전사들, 현옥, 영근의 노래 《준엄한 포화속을 뚫고나가며》
2. 현석, 영근의 노래와 방창 《수령님은 래일을 구상하시네》

3. 환상장면 《은물결 금물결 진주의 물결》
4. 영근의 노래와 3중창과 방창 《승리의 기쁨속에 다시 만나리》

제5장

1. 처녀들, 영순의 노래 《싸워이긴 고향벌에 풍년나락 가꾸자》
2. 리씨, 창주의 노래와 3중창과 방창 《검은구름 밀려오던 준엄한 그밤》
3. 영순, 영근의 노래와 방창 《전사의 가슴속엔 불길이 이네》
4. 방창과 영순의 노래 《이 마음은 간절히 달려가건만》
5. 방창과 영근, 영순의 노래와 대중창 《자애로운 해빛을 안겨주시네》

제6장

1경

1. 영근의 노래와 합창 및 방창 《건설에서 다시한번 위훈 떨치자》
2. 현옥, 영근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우리는 승리하고 다시 만났네》
3. 대성의 노래 《공명에 들떠서 덤비지 마오》
4. 봉환의 노래 《만년대계 언제공사 망쳐먹는 일》
5. 현석의 노래와 방창 《내 가슴에 충성이 모자랐는가》

2경

1. 방창과 현옥, 현석의 노래 《피로운 이 심정을 내 어이하랴》
2. 영근의 노래와 방창 《언제나 서로 믿는 혁명동지들》
3. 방창 《사나이 가슴이 터져오누나》
4. 시련을 박차고
5. 일수의 노래와 합창, 영근의 노래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한마음》
6. 대중창 《수령님의 근위대는 싸워나간다》

제7장

1. 방창과 영순의 노래 《수령님품속에 행복하여라》
2. 영순의 노래와 방창, 영근의 노래와 2중창 및 방창
   《아 고마워라 친어버이 그 사랑》
3. 방창 《옛 제도를 꿈꾸며 기여든 원쑤》
4. 계급적원쑤들을 처단하는 장면
5. 방창 《사나운 불길을 헤치는 전사》
6. 방창 《피끓는 마음들이 언제를 덮네》
7. 방창, 영근의 노래와 대중창 《전사는 목이 메여 눈물을 짓네》
8. 영근의 노래와 합창 및 방창 《나가자 달려가자 충성의 대오여》

종장

1. 방창과 대중창 《얼씨구나 생명수로세》
2. 방창과 영근의 노래 《그 이름도 연풍호라 지어주셨네》
3. 영순의 노래와 영순, 영근의 2중창과 대중창
   《열두나 삼천벌에 물이 왔어요》
4. 대중창과 방창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혁명가극 《청춘과원》

《가극 〈청춘과원〉은 평양과수농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자가 좋습니다. 가극제목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청춘과원〉이라고 지어주시였습니다.
작품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김 정 일

혁명가극 《청춘과원》은 주체63(1974)년 2월 3일에 《피바다》식가극으로 창조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8월 8일 혁명가극 《청춘과원》을 지도하여주시면서 가극에서 포화속을 헤치고 인민군전사들을 찾아 전선으로 나가시던 수령님께서 과일나무모를 달구지에 싣고가는 녀성들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시였다는것과 과일나무모를 자동차에 실어 보내주시였다는것, 전시에 물차와 뜨락또르를 보내주시였다는것과 같은 내용들이 다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도 좋고 특히 녀성방창을 잘한다고 평가하시면서 5대혁명가극을 창조할 때부터 죽관악기와 현악기를 잘 배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가극 《청춘과원》에서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으며 환등미술도 아주 독특하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 해결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인공의 남편선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인공 성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선에 나간 남편의 몫까지 하기 위하여 애쓴다는것을 강조하여줄데 대하여서와 주인공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줄데 대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동산을 안겨주신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감사의 정을 가슴뜨겁게 노래하는 마지막대목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노래하는 전인민적인 송가인것만큼 주인공 남편의 등장선을 바로 설정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야기의 선을 바로세우고 편결음악을 잘 쓸데 대한 문제, 대사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부정인물들의 성격을 노래로써 진실

하고 두드러지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청춘과원》의 종자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이 땅우에 영원한 청춘의 백리과원이 펼쳐지게 되였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조국의 산들을 황금열매 주렁진 보물산으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청춘과원을 일떠세운 평양과수농장 농장원들의 불굴의 투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첫 공연장소: 모란봉극장

창조단체: 평양청년가극단(당시)

등장인물: 박성녀: 과수농장 지배인(녀성고음)
김창진: 성녀의 남편. 조선인민군 군관(남성고음)
김영남: 성녀의 아들(아동성음)
리씨: 성녀의 시어머니(녀성저음)
한정호: 제대군인. 원예기사(남성중음)
당위원장: 과수농장 당위원장(남성고음)
명판: 과수농장 로동자(남성고음)
금실: 명판의 처. 과수농장 로동자(녀성저음)
봉숙: 과수농장 로동자(녀성고음)
경식: 과수농장 로동자(남성고음)
그밖에 과수농장 로동자들, 인민군군인들
치도: 과수농장 생산지도원. 암해분자(남성중음)

― 이야기줄거리

작품은 서장과 6개의 기본장, 종장으로 구성되였다.

작품은 주인공 성녀가 만년대계의 백리과원을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감회깊게 회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인민군후방가족인 성녀와 그의 아들 영남을 만나시여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마당가의 돌배나무에 깃든 사연도 들어주신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타는 야산들의 과원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여기에 대과일생산기지를 꾸리자고 교시하신다. 성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과수원을 꾸리는 일에 떨쳐나선다. 성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고도 괴로움과 슬픔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고 어린 모를 실으

러 멀고 험한 길을 떠난다. 어린 모를 안고 돌아오는 그들의 앞길엔 사품치는 서령강의 물결이 또다시 막아선다. 이때 전선으로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성녀를 알아보시고 자동차로 나무모를 실어다주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폭격에 파수원의 물탕크가 파괴되고 가물로 사과나무들이 말라들어간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물차와 뜨락또르를 보내주시여 난관을 겪고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성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의 투쟁으로 과원은 나날이 변모되여갔다. 이 나날에 희생된줄로만 알았던 성녀의 남편 창진은 적후에서 중상당하여 야전병원에 후송되였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의하여 꿈같이 소생한다. 전쟁이 승리하고 사과꽃이 만발한 과원에서 남편과 뜻깊은 상봉을 한 성녀와 마을사람들은 청춘과원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노래하면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 혁명가극 《청춘과원》의 주요노래

○ 주제가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아래서》

나오는 장면: 서장에서 만풍년든 백리과원을 배경으로 1절 전렴은 녀성방창, 두번에 걸쳐 나오는 후렴은 남녀방창, 2절 전렴은 성녀, 후렴은 합창, 3절 전렴은 당위원장,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3장 2경에서 《어버이장군님께 삼가 드리리》, 제5장 4경에서 《이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종장에서 《오늘을 그 얼마나 기다렸던가》로 반복된다.

노래는 가극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첫 노래로서 그의 성격을 기초지어주며 서장과 종장에서 불리워지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제시해명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통일시키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

노래에서는 전화의 그날에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우리 인민에게 붉은 사과를 안겨주시려 험난한 길을 헤쳐가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붉은 사과 주렁진 아득한 백리과원을 감회깊이 바라보며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위대한 사랑의 화폭들을 되새기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화의 불길속에서 몸소 과일터전도 잡아주시고 어려운 시련과 곤난이 앞을 막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굽을 적시는 주인공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있다.

가사에서는 또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대를 이어 전해가며 그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불타고있는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라내림대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다.

동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 선률에는 짙은 서정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

의 정이 가슴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어버이사랑의 력사를 되새겨보는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감회깊고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움이 넘치는 정서로 형상하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뜨거운 감사의 정, 강렬하게 분출하는 격정의 세계를 폭넓게 펼쳐보이다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듯 지향적인 정서로 끝을 맺고있다.

ㅇ 기둥노래

• 《장군님 묘목을 만져보시며》

나오는 장면: 제3장 3경에서 간난신고하며 파일나무묘목을 싣고오던 성녀의 일행이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장면에서 전렴만 불리워지는 1절과 2절은 녀성방창, 후렴은 남녀방창, 3절 전렴은 성녀, 후렴은 남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5장 2경에서 방창 《수령님 야전병원 찾아오시여》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음악적으로 펼쳐보이는데서 기둥을 이룸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해명에 이바지한다.

노래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품어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대한 칭송의 감정과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방창과 성녀의 노래

장군님 묘목을 만져보시며

따사로운한ㅡ품에 안아주시네 아 ㅡ 어 버이
찬바람에손이텄다 심려하시네
그 사 랑 으 로 따 사 로 운 한 ㅡ 품 에 안 아 주 시 네
아 ——— 어 버 이 장 군 님 전 선 길 에
안 녕 을 바 라 ㅡ 옵 니 다 장 군 님 묘 목 을
만 져 보 시 며 과 ㅡ 원 에 사 ㅡ 과 꽃 피 우 라 시 고
첫 사 과 알 ㅡ 알 이 붉 게 익 는 날 잊 지 않 고 오 시 겠 다
말 씀 하 셨 네 아 ㅡ 첫 사 과 붉 게 익 는
날 과 원 으 로 오 시 겠 다 말 씀 하 셨 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에서 만나시였던 평범한 한 녀인을 잊지 않으시고 친자식을 만나신듯 기뻐하시며 사랑의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노래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그이의 안녕을 축원하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반영되여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은 숭엄하고도 절절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선률은 미소조식에 기초하여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이룬다.

첫 부분에서는 사랑의 그 이야기를 전하듯 비교적 평이하게 흐르면서 뜨거운 서정속에 회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점차 정서적폭을 넓히면서 승화되여 받아안은 그 사랑에 북받치는 흥분을 금치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축적되여온 격정의 감정을 한껏 터뜨려 깊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을 못 잊어하는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가극에서는 극정황의 감정정서적흐름에 따라 보충적인 후렴구가 덧붙여지고있다. 여기서 선률은 폭넓게 전개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주인공의 절절한 념원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있다.

- 《어이하여 슬픈 소식 안기시나요》

나오는 장면: 제3장 1경에서 남편이 전선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의 눈물을 삼키며 1절은 녀성방창, 2절은 성녀의 노래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같은 장에서 방창 《기어이 묘목을 안고오리라》의 선률로 반복된다.

가극에서 노래는 시련과 곤난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인공 성녀의 강의한 의지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고있다.

노래는 가슴저미는 슬픔을 이겨내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방창과 성녀의 노래

어이하여 슬픈 소식 안기시나요

어머니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그대여
장군님뜻으로 과일꽃 피워
원쑤 미제 천백배 복수하리라

노래의 가사에서는 뜻하지 않은 비보를 듣고 승리하고 돌아와 고향땅에서 행복을 누리자고 다짐하던 남편을 추억하며 가슴속 슬픔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비통한 심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어머니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남편의 복수를 다짐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이 땅에 기어이 청춘과원을 일떠세우려는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미내림대조식에 기초한 노래의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선률은 슬픔을 디디고 일어서려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비장하면서도 의지적인 정서로 형상하고있다.

첫 부분에서는 강의하고 의지적인 선률형상으로 슬픔을 묵새기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의 선률을 더욱 고조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가려는 주인공의 불타는 일념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장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아래서》

제1장

1경

1. 방창과 영남, 성녀, 리씨의 노래 《전선의 아버지께 누런 돌배 보낼래요》
2. 불타는 고향마을
3. 방창과 성녀의 노래 《세월은 흘렀어도 잊을수 없네》
4. 방창과 명관의 노래 《불동촌마을로 찾아왔다네》

2경

1. 방창 《장군님 우리 고향 찾아오셨네》
2. 성녀, 당위원장의 노래와 대중창 《장군님 과원터전 잡아주셨네》

제2장

1. 방창 《과수원개간에 떨쳐나서자》
2. 처녀들의 중창과 성녀, 금실의 노래 《기다리고기다리던 묘목이 오면》
3. 명관, 치도의 노래와 방창 《살아서 돌아온게 다행이여라》
4. 방창과 성녀의 노래 《내 어이 장군님의 딸이라 하랴》

제3장

1경

1. 방창과 성녀, 처녀들의 중창 《과수원처녀들은 먼길 떠나네》
2. 방창과 정호, 당위원장의 노래 《전우의 고향집을 찾아왔건만》
3. 방창과 성녀의 노래 《어이하여 슬픈 소식 안기시나요》
4. 방창과 영남의 노래 《아버지가 훈장 달고 돌아옵니다》
5. 방창 《기어이 묘목을 안고 오리라》

2경

1. 불비를 헤치고
2. 방창과 성녀의 노래 《누렁소는 폭격에 상처를 입고》
3. 폭풍우 몰아치는 벼랑우에서
4. 방창 《찬바람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
5. 환상장면, 무용과 방창 《아득한 백리벌에 꽃향기 넘쳐나리》 《어버이장군님께 삼가 드리리》
6. 방창과 성녀, 봉숙, 처녀1의 노래 《그리운 농장으로 어서 가리라》

3경

1. 방창과 성녀, 봉숙, 처녀1의 노래 《거치른 물결이 막아서누나》
2. 방창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3. 방창과 성녀의 노래 《장군님 묘목을 만져보시며》
4. 방창과 성녀, 처녀들, 전사들의 노래 《뜨거운 그 사랑에 눈물집니다》

제4장

1경

1. 가무 《사과나무 푸르싱싱 잘도 자라네》
2. 금실, 명관, 성녀의 노래 《시약작업 벌리여 일손 바쁜데》
3. 방창과 명관, 처녀1의 노래 《심어놓은 나무야 자라기마련》

2경

1. 녀인들의 중창 《큰일이 났어요 분장장동무》
2. 치도의 노래와 방창 《잘 자라던 나무를 시들게 하고》
3. 방창과 성녀의 노래 《설레이던 나무잎은 시들어가고》
4. 당위원장의 노래와 방창 《투쟁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네》

제5장

1경

1. 명관과 성녀의 노래 《사과나무 잘 자라길 나도 바랐네》
2. 정호와 성녀의 노래 《귀중한 사과나무 살리기 위해》
3. 치도의 노래 《객토를 파려고 떨쳐난다면》
4. 성녀의 노래와 방창 《폭풍도 비바람도 뚫고나가라》

2경

1. 방창과 성녀, 정호, 경식의 노래 《양지강 오가던 일 생각하누나》
2. 방창 《수령님 야전병원 찾아오시여》
3. 방창과 성녀, 리씨의 노래, 대중창 《일편단심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4. 성녀의 노래와 대중창 《사나운 강물도 불길도 헤쳐나가자》

3경

1. 방창과 명관, 경식의 노래 《과원일에 네일내일 따로 있으랴》
2. 모진 시련
3. 당위원장의 노래와 방창 《시련 없는 혁명이 어데 있으랴》

4경

1. 방창 《충성의 생명수 부어나간다》
2. 관현악과 방창 《과원의 꽃으로 붉게 피리라》
3. 방창과 성녀의 노래, 대중창 《이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제6장

1. 무용과 방창, 성녀의 노래 《수령님은덕에 과일꽃 피네》
2. 방창과 창진의 노래 《승리한 우리 영웅 고향에 왔네》
3. 방창과 창진, 성녀, 리씨의 노래 《불타는 충성을 천만년 바쳐가리》

종장

1. 무용과 방창 《백리벌과원에 파일풍년이 왔네》
2. 당위원장, 성녀의 노래와 대중창, 방창 《오늘을 그 얼마나 기다렸던가》
3. 무용과 방창, 대중창 《공산주의 밝아오는 능금동산에》

—상식—

가 극

노래극이라는 뜻.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은 노래로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그려내며 극을 엮어나가는 예술입니다.》

가극은 노래와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극적으로 반영한다.

가극은 다른 극예술형식들인 영화나 연극에서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호상관계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사건내용의 줄거리 등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노래와 음악을 기본표현수단으로 하여 표현한다.

노래와 음악은 가극에서 극을 엮어나가는 기본수단이며 극발전을 심화시키는 주되는 추동력이다.

가극에서는 노래속에 극이 있고 극속에 노래가 있다.

음악과 극의 밀접한 통일은 가극의 기본특징의 하나이다.

가극에서는 성악형식과 기악형식이 종합적으로 리용된다.

성악형식에는 극인물들이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와 무대밖에서 부르는 방창이 있고 연주형식에 따르는 독창, 중창, 합창 등이 있다.

가극에서 관현악도 중요한 형상수단이다.

가극에서 관현악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현악과 반주기능을 수행하는 관현악으로 구분할수 있다.

가극은 노래와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면서 거기에 무용, 무대미술, 연기와 같은 다양한 예술형상수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활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종합예술형식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낸다.

가극에서는 작품의 극구성과 발전단계에 따르는 장, 경 등이 설정된다.

장은 일정한 생활소재를 제시하고 그것을 일단 완결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극발전을 새롭게 심화시키고 감정선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주는 가극의 비교적 큰 구성부분이다.

경은 장을 세분화한 극진행의 일정한 단락이다.

경은 보통 한 장소에서 제시된 생활을 형상적으로 심화시키면서 감정축적을 조성하는 장의 한 구성부분이다.

그러나 극진행과 감정조직의 특성에 따라 경으로 나누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괜찮습니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나오는 노래들이 좋습니다. 〈꽃피는 이 봄날에〉는 한번만 들어도 선률을 다 외울수 있습니다.》

김 정 일

가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피바다》식혁명가극으로 각색하여 주체63(1974)년 4월 24일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린 작품이다.

작품의 원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주체25(1936)년에 창작되여 만강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 5월 29일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조사업을 지도하여주시면서 작품창조과정에 나타난 결함들과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원작의 기본사상을 명백하게 반영하도록 하시고 이야기줄거리를 바로세우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서 가극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가사를 절가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극음악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 노래와 무용을 비롯한 가극의 모든 형상수단들을 극적정황에 일치시켜 생활적인 론리와 극발전의 요구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등 가극각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로부터 가극장면의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주체62(1973)년 6월 5일 또다시 가극창조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갑룡, 만식, 철삼 이 세사람의 성격상특성을 잘 살리며 생활적인 전제

를 깔아주어 그들의 호상관계를 뚜렷이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이 영화적인 틀에서 벗어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심도있게 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극의 전반부에서 주인공 갑룡을 여러번 등장시켰지만 인상에 뚜렷하게 남는것이 없는것은 갑룡의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지 않고 도식적으로 그렸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의 노래들도 전반적으로 유순하지 못할뿐아니라 일부 노래들은 다른 나라의 곡을 그대로 본딴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가극에 나오는 부정인물들의 노래들도 절가화하며 노래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을 살릴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창조현장을 찾으시여 가극의 노래를 아름답고 부드러운 민족적선률로 만들고 관현악이 무대를 설레이게 하며 가극무용이 극에 복종되면서도 하나의 독자적인 작품으로 되도록 하시는 등 가극창조의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또 하나의 《피바다》식 혁명가극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피압박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제기하고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의 반동적, 반인민적본성과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어디 가나 천대와 민족적멸시, 죽음만을 강요당하게 되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투쟁의 길밖에 없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첫 공연장소: 평양대극장
창조단체: 함경남도예술단
등장인물: 갑룡(남성중음)
금순: 갑룡의 약혼녀(녀성고음)
최로인: 갑룡의 아버지(남성저음)
만식: 갑룡의 친구(남성고음)
경옥: 만식의 누이동생(아동성음)
철삼: 갑룡의 친구(남성저음)
금순 어머니(녀성저음)
박로인: 산판로동자(남성저음)
이밖에 마을사람들과 인민들

수비대장(남성저음)
자위단장(남성중음)
허구장(남성고음)
산판주인, 서기, 왜병들, 자위단원들, 기타

ㅡ 이야기줄거리

7장과 종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193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가극의 주인공 갑룡은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박하고 부지런한 농촌청년이다. 그의 가슴속에는 사랑하는 처녀 금순이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단란하게 살아가려는 꿈이 간직되여있다.

그의 아버지 최로인은 허구장놈의 머슴살이로 고욕에 시달리면서도 아들 갑룡과 금순의 사랑을 꽃피워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허구장놈은 이에 아랑곳없이 그들의 피땀을 짜내다못해 최로인이 구해온 례장감마저 빚값으로 빼앗아간다.

아버지가 당하는 수모와 천대를 더이상 참고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 갑룡은 산판에 돈벌이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떠나간 철삼, 만식 등 친구들의 뒤를 따라 그곳으로 간다. 거기서 갑룡은 친구들과 함께 뼈를 에이는 추위와 모진 고생을 참아가며 아글타글 일하나 엄청난 빚값을 마련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하여 그는 집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친구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우는 사태골에까지 들어가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 피땀 흘려 돈을 번 그는 앞날의 행복을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헤여졌던 가족과의 상봉의 기쁨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그는 강제로 자위단에 끌려가게 된다. 이때 그의 친구 철삼은 아버지와 누이동생때문에 망설이는 갑룡과 만식을 찾아와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판이니 같이 뛰자고 한다. 결국 철삼은 도망치고 갑룡을 비롯한 마을청년들은 자위단에 끌려간다. 자위단에서 갑룡을 비롯한 청년들은 온갖 민족적멸시와 모진 구박을 받으며 강제훈련에 시달린다. 갑룡의 친구 만식은 그에게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겠는가고 하면서 철삼이처럼 도망가자고 하지만 갑룡은 아버지와 금순에 대한 생각으로 결심을 내리지 못한다. 그후 탈주하였던 만식이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자위단원들과 마을사람들앞에서 무참히 학살되는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만식의 죽음을 놓고 갑룡의 가슴에는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른다.

그의 적개심은 포대공사장에서 철삼이와 아버지가 일제장교놈의 총에 맞아 죽음으로 하여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다. 마침내 그는 들고일어나 피맺힌 원쑤 일제장교놈을 때려눕히고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놈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한다.

갑룡의 행동에 고무된 자위단원들도 총부리를 돌려 단장놈과 소대장놈을 처단하고 반변을 일으킨다. 가극은 갑룡이가 동료들에게 치욕스러운 자위단생활을 그만두고 왜놈들과 싸우기 위해 유격대를 찾아 산으로 들어가자고 호소하자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해나서는것으로 막이 내린다.

—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가련한 신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요 〈가련한 신세〉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처지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당대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이 잘 반영되였습니다. 그런것만큼 혁명가요 〈가련한 신세〉는 쓸쓸하고 구슬픈 감정을 담아 느리게 불러야 합니다.》

나오는 장면: 제1장에서 막이 열리고 눈내리는 성벽을 배경으로 가극의 제목이 자막으로 나타나는 속에서 서곡으로 연주된다.

제4장 1경 주인공이 일제놈들의 탄압의 도구로 내몰리워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남성소방창, 후렴은 무가사 남성소방창의 대위선률을 배경으로 갑룡의 노래, 2절 전렴은 남성소방창, 후렴은 무가사 녀성소방창의 대위선률을 배경으로 남성소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7장에서 방창과 갑룡의 노래 《어둠은 갈수록 깊어가는데》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묵묵히 새기며 자위단에까지 들어가 원쑤에게 굴종하는 사람은 궁극에 어떠한 신세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가련한 신세로 죽기보다는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래는 수난에 찬 생활을 강요당하는 자위단원들의 감정세계를 통하여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모든것을 빼앗기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소박한 소원마저 무참히 짓밟힌 우리 인민들의 기막힌 처지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가련한 신세

2.기러기 날으는 저 하늘가에
정다운 사람들 그 모습 어리네
이 몸은 그 언제 내 집에 돌아가
봄씨앗 뿌리며 부모님 모시랴

노래의 가사에서는 하루해가 저물어 새들마저 보금자리를 찾아가건만 집으로 돌아갈수 없는 주인공의 애타는 심정과 함께 정다운 사람들을 그리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살 래일을 꿈꾸는 주인공의 애달픈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3/4박자의 리듬을 타고 화대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1부분형식으로 구성된 선률에는 비장하면서도 장중한 폭과 힘, 의지적인 성격이 내재되여있다.

기백과 결단성이 느껴지는 부점소리표와 여유있는 흐름을 조성하는 2분소리표가 결합된 리듬형태를 일관하게 유지하고있는 선률은 처음부터 강한 극성을 띠면서 인간의 비장한 감정세계를 펼쳐보여주듯 보다 비분의 정서를 승화시키고있다. 이어 선률은 둘

째 악단에서 극적이며 힘있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슬픔을 박차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주인공의 열렬한 호소와 격동적인 웨침인듯 호소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선률은 이러한 두개 악단을 정서적으로 보다 승화된 상태에서 다시한번 반복한다.

○ 기둥노래

• 《가슴속에 지닌 꿈 언제면 피여나랴》

나오는 장면: 금순이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1장장면에서 1절과 3절은 녀성소방창, 2절은 금순이에 의하여 불리워지며 제3장 3경에서 방창과 금순의 노래 《인제 가면 언제 다시 오려나》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사랑하는 갑룡이와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는 금순이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면서 그를 통해 극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간관계를 암시해주고있다.

노래는 소박한 꿈마저 짓밟히고 고역에 시드는 금순이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인민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을 일반화하고있다.

눈은 내리고내려 이 하루도 저물어가네
송이송이 오는 눈에 내 설음도 쌓이누나
아 내 설음도 쌓이누나

언제 가면 끝나랴 눈물의 방아야
가슴속에 지닌 꿈은 그 언제면 피여나랴
아 그 언제면 피여나려나

노래의 가사에서는 눈물과 한숨속에 연자방아를 돌리는 금순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눈물겹게 보여주면서 그의 가슴속에 쌓인 설음을 서정깊이 노래하고있다.

4/4박자의 선률은 미내림소조식에 기초하여 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의 둘째부분은 4소절로 축소된 형태이다.

노래의 선률은 애절하고 처량한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첫 부분에서 선률은 시름에 잠긴 금순이의 불행한 정상을 보여주듯 어둡고 애처로운 정서로 강조되다가 둘째 부분에서 폭있는 음악적호흡을 타고 폭발적으로 터쳐오름으로써 실현할수도 없는 소원을 안고 몸부림치는 처녀의 심리세계를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면서 첫 악단 첫 악구의 선률음조에 기초하여 금순이의 불행한 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있다.

- 《꽃피는 이 봄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꽃피는 이 봄날에〉는 명곡입니다.》

나오는 장면: 제3장 2경 지주의 빚을 갚기 위하여 산판에 갔던 갑룡이가 집으로 돌아와 금순이와 만나는 시내가장면에서 1절은 녀성소방창, 2절 전렴은 갑룡, 후렴은 금순 그리고 다른 가사로 반복되는 후렴은 혼성소방창에 의해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4장 1경의 환상장면에서 방창 《아 오곡이 설레이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갑룡이와 금순이의 애정선에서 기둥을 이루면서 그들의 희망과 념원, 사랑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고있다.

노래는 새생활에 대한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방창과 갑룡, 금순의 노래

꽃피는 이 봄날에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
아 우리 서로 일해가면
눈물어린 땅우에도 기쁨은 오리

아 모진 바람 불어와도
우리는 헤여질 일 다시 없으리

가사에는 모진 수난과 고통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과 효성의 마음을 간직한 주인공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세계가 잘 반영되여있다. 또한 가사에서는 약동하는 봄날 부모님 모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려는 주인공들의 소박한 념원을 진실하고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라내림대조식에 기초하여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고있다.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 선률은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념원을 한없이 친근하고 따뜻하면서도 희망과 랑만에 찬 정서로 형상하고있다.

내심적이면서 밝고 따스한 감정이 느껴지는 첫 부분의 선률은 점차 환희적인 감정으로 승화되면서 행복의 무아경에 빠진 주인공들의 감정세계를 부드러우면서도 희망에 넘친 정서로 펼쳐보이고있다.

이어 둘째 부분에서는 굽이쳐설레이는듯 한 선률흐름으로 주인공들의 가슴속에 파도치는 격동된 심정, 랑만과 희열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다가 첫 부분의 둘째 악단을 다시 반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꾸려갈 그들의 념원을 밝고 환희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성격으로 부각시키고있다.

• 《우리는 세 친구 다정한 친구》

나오는 장면: 제2장 1경 아버지가 보내준 짚신을 갑룡이가 친구들인 만식이와 철삼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만식과 갑룡, 철삼이의 3중창, 다른 가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후렴은 남성소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제6장에서 만식의 노래와 만식, 갑룡의 2중창과 방창 《운명의 갈림길에 헤여지는가》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세 친구들의 우정을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동시에 만식이와 철삼이의 죽음을 극적으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감정적 및 생활적전제를 마련하여주고있다.

노래는 가난과 불행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세 친구의 열렬한 우정과 뜨거운 인정미를 보여주고있다.

3중창과 방창

우리는 세 친구 다정한 친구

노래의 가사에서는 한마을에서 풀피리 불며 다정히 뛰놀던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그들의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쏠대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으며 동적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동심적인 색채가 짙은 선률진행으로 다정한 친구들의 정깊은 세계, 천진하다할만큼 순박하고 사심없는 우정의 세계를 친근한 감정속에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 들어서면서 맑고 아름다운 울림으로 세 친구의 깨끗하고 순결한 우정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한껏 터쳐주며 절정을 이루다가 밝고 풍만한 감정속에 지향적인 정서를 뚜렷이 나타내면서 끝맺고있다.

-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나오는 장면: 제7장 갑룡이를 비롯한 군중들이 왜놈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1절 전렴은 갑룡, 후렴은 대중창, 2절 전렴의 두 악단은 갑룡, 나머지 두 악단은 남성소

방창, 후렴은 대중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작품의 종자와 함께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찾고 참다운 삶을 누리자면 원쑤와의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작품의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노래는 혁명군을 따라 왜놈들과 싸울 때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반영하면서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갑룡의 노래와 대중창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들어도 죽는것이 자위단이고
안 들어도 죽는것이 험악한 세상
원쑤의 총칼에 죽기보다는
복수의 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의 갈길은 오직 한길뿐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싸워나가자

노래의 가사에서는 주인공이 겪은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자면 혁명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그러면서 가사는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복수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혁명군따라 항일성전에 떨쳐나설것을 열정적으로 호소하고있다.

선률은 화소조식에 기초하여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전개된다. 선률은 첫 부분이 단순2부분, 두번째 부분이 악절형태로 된 복합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선률의 정서는 힘있고 호소적이면서도 비장한것이 특징적이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리듬적으로, 음조적으로 강조되는 강박음들, 정서적단락을 이루는 지속음앞에 놓인 부점소리표에 의한 기백있는 리듬형, 경과적으로 인입된 예리한 반음계진행 등의 선률형상들로 가지가지의 피맺힌 사연을 분노에 차서 이야기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정서적으로 그려주면서 비감에 찬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있다.

선률의 둘째 부분에서는 보다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을 힘있고 박력있는 진취적인 음악적흐름으로 정서적내용을 더욱 심화시킨 후 장중한 폭을 가지고 무게있게 끌맺는다.

— 장면별 음악구성

제1장

1. 서곡 **《가련한 신세》**
2. 방창과 금순의 노래 《가슴속에 지닌 꿈 언제면 피여나랴》
3. 방창과 갑룡의 노래, 갑룡과 금순의 2중창
   《처녀와 총각은 약혼한 사이》
4. 최로인의 노래와 방창, 최로인과 금순 어머니의 2중창
   《고생많던 네 어머니 눈을 감을 때》

5. 만식의 노래와 만식, 철삼의 2중창과 방창 《간절한 그 정성에 가슴 뜨겁네》
6. 허구장의 노래 《어서 당장 술이나 받아오너라》
7. 방창과 갑룡의 노래 《세상이 무정해 이 천대인가》
8. 허구장의 노래 《오늘중에 두가마니 당장 찧어라》
9. 갑룡, 금순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돌아올 새봄을 기다려주오》
10. 금순의 노래와 방창 《사나운 눈바람아 불지를 말아》

제2장

1경

1. 방창 《고역에 시달리는 신음이런가》
2. 방창과 갑룡의 노래, 갑룡과 만식의 2중창
   《언제 가면 눈물의 빚을 갚으랴》
3. 3중창과 방창 《우리는 세 친구 다정한 친구》
4. 수비대장, 자위단장의 노래와 제창
   《아름드리 큰 나무를 찍어보내라》
5. 갑룡의 노래와 방창 《집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데》
6. 방창 《무서운 사태골 죽음의 골짜기》
7. 방창 《산판의 눈보라는 무심도 하네》

2경

1. 방창과 최로인의 노래 《세월이 모질어 이 고생인가》
2. 경옥, 금순의 노래와 방창 《들메나무가지에 우는 까치야》
3. 금순 어머니의 노래 《산판에서 사나운 눈사태 일어》
4. 방창 《머슴의 아들은 아들 아닌가》

제3장

1경

1. 방창과 최로인의 노래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던가》
2. 방창과 갑룡, 마을사람들의 노래 《눈물에 녹쓸었나 가대기 하나》
3. 경옥의 노래와 방창 《꼭 맞네》
4. 방창 《기다리면 봄날이 온다 하더니》

2경

1. 시내가 상봉장면
2. 방창과 갑룡, 금순의 노래 《꽃피는 이 봄날에》
3. 가무 《봄이 왔네》
4. 허구장과 자위단장의 노래 《지금 때가 어느땐가 비상시국 아닌가》
5. 방창과 갑룡, 만식, 철삼의 노래 《다시는 집을 떠나 살지 말자고》

3경

1. 방창과 갑룡의 노래 《그 소원 이렇게도 풀기 힘드나》
2. 방창과 금순, 갑룡의 노래 《아 또다시 리별인가》
3. 방창 《가난한 사람에겐 봄도 없는가》
4. 방창과 금순의 노래 《인제 가면 언제 다시 오려나》

제4장

1경

1. 방창과 갑룡의 노래 《고향을 떠나서 얼마이던가》
2. 방창 《피묻은 채찍은 비발쳐내리고》
3. 방창과 만식, 갑룡의 노래와 그들의 2중창 《짓밟힌 괴로움에 울고있는가》
4. 방창 《자위단은 용서 못할 인민의 원쑤》
5. 방창과 갑룡의 노래 **《가련한 신세》**
6. 환상장면 《이 봄을 노래하세》, 《아 오곡이 설레이네》
7. 만식의 노래와 방창 《언제나 우리 함께 지내왔건만》

2경

1. 방창과 금순의 노래 《산넘고 물건너 그이를 찾아왔건만》
2. 갑룡, 금순의 노래와 방창 《눈물로 슬픔을 그 어이 씻으며》

제5장

1. 자위단장의 노래 《도망친 만식이를 어서 찾아라》
2. 방창과 철삼, 갑룡의 노래 《우리가 가는 길 달라졌구나》
3. 합창 《앉아서 한탄말고 모두 일어나》
4. 박로인, 로동자들의 노래와 방창 《자네마저 총을 들고 올줄 몰랐네》
5. 방창과 갑룡의 노래 《고마운 그 손목을 내가 묶다니》

제6장

1. 방창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사형장으로》
2. 만식의 노래와 만식, 갑룡의 2중창과 방창 《운명의 갈림길에 헤여지는가》
3. 만식의 노래와 방창 《자위단을 뛰쳐난것 그 무슨 죄인가》
4. 만식의 죽음
5. 방창과 경옥, 갑룡의 노래 《가슴에 원한 품고 쓰러진 오빠》

제7장

1. 방창과 갑룡의 노래 《어둠은 갈수록 깊어가는데》
2. 방창 《고역에 끌려나온 아버지 보며》

3. 철삼의 노래와 방창 《노예의 이 설음 참을길 없네》
4. 수비대장의 노래 《총칼로 모조리 끌어내여라》
5. 방창 《포악한 왜놈들의 채찍아래서》
6. 아버지의 죽음과 방창 《이렇게 무참히도 죽어야 하느냐》
7. 방창 《총창을 들어라》
8. 갑룡의 노래와 대중창 《혁명군 따라서 싸워나가자》

종장

대중창 《혁명가》

—상식—

경 가 극

가극종류의 하나, 보통 1～2막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

경가극은 생활을 폭넓게 전면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일정한 어느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적은 수의 인원과 작은 관현악단 그리고 간편한 무대조건에서도 능히 상연할수 있다.

경가극은 흔히 경쾌한 음악과 노래, 주인공들의 흥미진진한 극적행동과 짧으면서도 재치있는 대사 등 다양한 표현수단들을 통하여 생활을 기동성있게 반영한다.

해방후 경가극은 우리의 민족음악을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

오늘 경가극은 현실생활을 제때에 반영하여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기동성있는 무대예술의 하나로서 중앙과 지방의 극장에서는 물론 공장, 농촌 등의 예술소조들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는 로동계급의 투쟁내용을 혁명전통내용과 련관시켜 보여주고있습니다.》

김 정 일

혁명가극《밝은 태양아래에서》는 주체65(1976)년에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피바다》식가극으로 창조완성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주체63(1974)년 5월 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가 잘 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화를 받는 장면이 잘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장면은 다른 예술단체들에서도 처리하기 힘들것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가극에 좋은 노래들이 많다고, 특히 《사랑하는 기계야 나의 기계야》와 속도전에 대한 노래가 좋다고 하시면서 가극의 노래가사에 최근에 내놓은 우리 당의 정책을 반영한것이 좋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무대미술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뒤무대를 새롭게 리용한것은 다른 중앙예술단체들에서 시도하지 못한것이라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은 태양아래에서》는 작품의 종자가 아주 좋다고, 그렇기때문에 이 작품을 가지고 처음에는 음악무용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는 영화를 만들었으며 오늘은 가극을 만들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을 영화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가극의 특성에 맞게 만들

데 대한 문제, 주인공들의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그려낼데 대한 문제, 가사를 통속적이고도 형상적으로 쓸데 대한 문제 등 가극창작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64(1975)년 10월 22일 또다시 가극창조현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볼 때보다 가극이 많이 나아졌다고, 극구성이 잘 다듬어지고 당의 요구가 옳게 반영되였다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의 제2부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항일혁명투사인 사단장이 군인들과 함께 홍수를 막는 수력발전소언제건설자들을 돕는 장면부터 째였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장면의 감정조직도 잘되고 관현악도 괜찮게 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노래 《이름도 같아라 내 딸 은순이》와 《어머니란 그 이름 누가 지었나》의 작곡을 잘하였으며 마지막장면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밝은 태양 빛나는 우리의 세상》도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가극에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장면을 더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령도선을 작품전반에 관통시키고 수령님의 현지지도장면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또한 가극에서 주인공들의 인간관계를 옳게 맺어주고 잘 풀어나가며 감정조직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노래와 음악의 선률을 더 다듬고 그 형상도 더 잘하며 관현악을 품위있게 쓸데 대해서도 매 장면들을 실례들어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주체65(1976)년 3월 6일 완성된 가극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품이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장면이 잘되였으며 주인공들의 인간관계도 옳게 맺어주고 극적으로 잘 풀어나갔다고 하시면서 작품이 정서가 있고 예술적으로도 좋아졌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부적인 작업을 더 하여 작품을 훌륭히 완성하자고 하시면서 종장을 잘 다듬고 대사를 극력 줄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지도밑에 가극은 《피바다》식창조원칙이 훌륭히 구현된 혁명가극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 가극해설

—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의 종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기에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영광과 행복,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이다.

—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발전소건설을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투쟁해나가는 주인공 박영진의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ㅡ 이야기줄거리

서경, 7개의 장, 종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에서 주인공 박영진은 나라 없던 그 시절에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대오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발전소건설의 중요한 임무도 받아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를 풀어주시고도 전쟁에서 입은 그의 상처가 도질세라, 헤여진 혈육을 그리워할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뜨겁게 받아안은 영진은 그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항일유격대식으로 건설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속에서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언제건설과 주택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큰물이 나서 발전소언제가 무너질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큰물과의 전투를 벌릴것인가, 아니면 언제가 피해를 받아도 그대로 둘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모대기게 된다. 이러한 때 옛 전우인 중권이 부대를 인솔하고 찾아와서 설비보다 로동자들의 생명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에 고무된 박영진은 인민군전사들과 힘을 합쳐 언제를 구원하고 발전소건설을 승리적으로 끝낸다.

이 과정에 영진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기사로 자라난 딸 은순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영진과 그의 딸 은순이 일제놈들에 의하여 헤여진지 20년만에 만경대에서 우연히 만나고 건설장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을 인정심리적으로 끌고나감으로써 영진과 은순의 상봉을 단순히 부녀의 상봉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속에 행복을 찾는 상봉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또한 가극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아도 극성을 담보할수 있고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수 있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빛나게 실증하였다.

가극에서는 절가화된 노래들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으며 방창을 음악극작술의 요구에 맞게 잘 살려씀으로써 《피바다》식가극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가극에서는 무용과 무대미술, 관현악도 극의 흐름과 정황에 밀착되여 자연스럽고 진실한 무대형상을 창조하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작품의 양상을 규정하고 통일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고있다.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는 사회주의현실주제분야에서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전형창조문제를 훌륭히 해결한것으로 하여 혁명가극창작에서 새로운 성과작으로 된다.

—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의 주요노래

○ 주제가

《어이하면 이 은덕에 보답하리까》

노래는 가극의 주제가로서 남성저음방창과 주인공 영진, 남성방창에 의하여 불리워진다.

노래의 가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전사들의 불같은 마음을 반영하고있다.

가사의 주제사상적내용은 절절하면서도 열정적인 정서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선률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복합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는 선률의 첫 부분은 단순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첫 부분(단순2부분)에서 첫 두악단은 수난의 세월 잃어버린 전사의 딸의 운명을 념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크나큰 감격과 고마움을 담아 웅심깊으면서도 절절하게 흐른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위대한 사랑의 세계,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는 인간애의 세계런듯 선률은 무게있으면서도 깊은 음악정서를 안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두번째 부분은 첫 음조에서 8도조약진행에 의한 선률적진행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미처 받들지 못하는 전사의 안타까움을 격한 정서속에 펼쳐보이면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그의 모습을 음악정서적으로 그려주고있다.

나라잃고 헤매이던 이 몸을 안아
혁명의 한길로 이끄신 수령님
귀밑머리 희도록 돌봐주시니
어이하면 이 은덕에 보답하리까

아직도 그이 뜻을 못 다 받드니
언제면 그 심려를 덜어드릴가

ㅇ 기둥노래

《어머니란 그 이름 누가 지었나》

노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동지들을 돌봐주는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가사는 동지를 위해주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끝없고 뜨거워야 하며 그것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머니 우리 당의 인간사랑의 위대한 세계를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동지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애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하는 노래의 가사는 사색적이면서 숭엄한 선률정서에 의해 그 사상정서적내용이 더 절절하게 안겨오고있다.

2부분형식으로 되여있는 선률의 첫 부분은 사색적인 정서로 뜨겁게 흐르면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사색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둘째 부분에서 첫 악단은 절정을 이루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지를 대하고 위해

주려는 주인공의 마음을 보다 격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마감악단은 절정을 이루는 악단과 대조되게 낮은 음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뜨거운 감정세계를 더욱 절절하고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인간사랑의 위대한 세계를 깊은 여운속에 새겨안게 하고있다.

남성소방창과 영진의 노래

어머니란 그 이름 누가 지었나

사람들은 잠들고 밤은 깊어도
어머니사랑은 곁에 있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되라신
수령님 그 말씀 이 가슴 울리네

— **음악구성**

혼성대방창 《만경대에 위대한 태양이 솟아》

녀성소방창과 영진, 중권의 노래 《수령님품속에서 자라온 투사》

녀성방창 《그 무슨 사연이 가슴에 있어》

중권과 영진의 노래와 남성방창 《희망찬 일터로 투사는 떠나네》

혼성방창 《전기화의 새시대 펼쳐간다네》

기사장의 노래 《녀기사의 정성어린 련속타입기》

영진의 노래와 혼성대합창 《찬란한 내 조국의 전기화 위해》

녀성소방창 《고요한 밤하늘에 별들은 반짝이고》

은순, 동철의 노래와 녀성방창 《수령님사랑속에 꽃피는 청춘》

녀성소방창 《이름도 같아라 내 딸 은순이》

어린 은순의 노래 《산에산에 산딸기》

남성독방창과 녀성방창 및 혼성방창 《리별의 언덕우에 바람 세찬데》

녀성방창과 은순의 노래 《어린시절 추억을 이끌어오네》

녀성저음방창과 중권의 노래 《만경대 봄날에 헤여진 투사》

남성저음방창과 영진 및 남성방창 《어이하면 이 은덕에 보답하리까》

녀성소방창 《투사들이 찾는 사람 그 누구일가》

은순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아버지를 그리며 수놓아가네》

영진의 노래 《집들이를 하였는가 심려하셨네》

녀성소방창과 봉림, 은순의 노래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을》

녀성소방창 《오늘은 새 기계 올려가는 날》

은순의 노래 《사랑하는 기계야 나의 기계야》

남성소방창과 영진의 노래 《녀기사의 가슴도 아프련마는》

녀성소방창과 은순의 노래 《수령님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녀성소방창과 은순, 기사장의 노래 《수령님 만나뵈온 그 행복속에》

은순의 노래와 대중창 《이 밤만은 기계소리 모두 멈추고》

녀성소방창과 영진, 은순의 노래 및 혼성방창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남성소방창과 영진 및 돌격대원들의 노래 《수령님 현지교시 심장에 안고》

영진, 동철, 은순의 노래와 대중창 및 혼성방창

《수령님교시는 우리의 신조》

녀성소방창과 은순, 동철의 노래 《수령님사랑속에 꽃피는 청춘》

동철의 노래 《가족들을 찾았는가 심려하셨네》

녀성소방창과 녀성독방창 및 녀성2중창방창

《달아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아느냐》

남성소방창과 영진의 노래 《어머니란 그 이름 누가 지었나》

은순과 영진의 노래 《한 일보다 받아안은 사랑이 높아》
남성방창 《번개를 휘두르며 비바람치네》
은순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수령님께 이 한몸 바쳐싸우리》
남성소방창 《분초를 다투는 준엄한 시각》
남성소방창 《한자두자 적으신 친필마다에》
영진, 중권의 노래 및 남성방창과 대중창
《동무들아 결사전에 달려나가자》
남성대방창 《충성을 다할 때는 왔다》
혼성방창과 녀성방창 및 대중창 《어버이 그 사랑 길이 전하라》
녀성소방창과 은순의 노래 및 5중창 《경사로운 준공식의 명절이 왔네》
녀성저음방창과 중권의 노래 《어이하여 투사는 여기에 왔는가》
봉림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내 오늘 그 사연 이야기하리》
녀성소방창과 은순 어머니의 노래 《눈내리는 언덕길 바라다보며》
녀성저음방창 《저주롭다 저주롭다 캄캄한 세상》
녀성방창 《아 엄마를 찾는 소리》
녀성소방창 《기억도 새로워라 붉은 이 기발》
영진과 은순의 노래 《아버지와 헤여진 일 생각나느냐》
영진의 노래와 남성소방창 《꿈결에도 그립던 내 딸 은순아》
녀성소방창과 대중창 《밝고밝은 태양아래》

민족가극 《춘향전》

> 《민족가극 〈춘향전〉은 사상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된 우리 식의 가극입니다.》
>
>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가극에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옳게 구현한것입니다.》
>
> 김 정 일

《피바다》식가극창조원칙과 방법을 구현하여 새롭게 창조된 민족가극 《춘향전》은 주체78(1989)년 1월 2일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1월 2일 친히 만수대예술극장에 나오시여 민족가극 《춘향전》을 보아주시고 지금까지 《춘향전》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가극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든 민족가극 《춘향전》이 제일 잘된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을 여러차례에 걸쳐 지도하여주심으로써 《피바다》식가극창조원칙이 구현된 새로운 민족가극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7(1988)년 8월 28일 민족고전가극이라고 하여도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창작원칙대로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가극 《춘향전》은 신분적으로 천한 기생의 딸과 량반의 자식이 같이 살수 없다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반동성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은 노래가 좋아야 한다고, 더우기 민족가극 《춘향전》과 같이 이야기줄거리가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은 노래가 더 좋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원래 조선노래는 유순하고 부드러운것이 특징이다고, 조선노래가운데서도 민요의 선률은 더 유순하다고 하시면서 춘향과 리몽룡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노래를 깊이 연구하여 명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체77(1988)년 10월 28일 또다시 가극창조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에서 인물들의 성격도 바로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월매를 단순히 봉건사회의 기생으로만 생각하고 피벽한 인물로 형상하다보니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다 된소리로 되여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다

고 하시면서 월매가 계급적으로는 꽃분이의 어머니나 을남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물이라는 견지에서 보통어머니로 형상하고 유순하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야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람축에 들지 못하는 그들의 원통한 처지를 이야기할수 있으며 자연히 관중의 동정을 받게 되고 관중이 극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갈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에서 방자를 술을 마시고 춤이나 추는 인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어리광대 같아보이고 향단은 2중창을 하나 하는것밖에 없기때문에 성격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방자와 향단은 다 근로하는 계급의 출신인것만큼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하겠는가 하는것을 계급적립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주체77(1988)년 12월 19일 수정된 가극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에서 사람들을 빈부귀천에 따라 갈라놓고 차별하는 봉건적신분제도가 나쁘다는 사상을 춘향과 리몽룡이 사랑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장면에 걸쳐 강하게 보여주니 사상적내용이 명백하게 되였다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사랑할수도 살수도 없게 하는 봉건적신분제도를 비판한것이 이 작품의 기본핵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월매를 괴벽한 녀성이 아니라 지금처럼 평범한 어머니로 형상하고 그에 맞게 노래도 유순하게 부르게 하니 자연히 그에게 동정이 가고 가극의 양상도 통일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에 나오는 노래가 다 좋다고 하시면서 노래가사가 고티가 나지 않고 시적으로 잘 다듬어졌으며 노래의 곡도 좋다고, 가극에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겠다고, 노래가 좋으니 저도 모르게 장면에 끌려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 반복하여 나오는 노래도 새 노래처럼 들린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관현악도 아주 째였고 무용도 좋으며 극조직과 감정조직도 잘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 가극해설

ㅡ 민족가극 《춘향전》의 종자

빈부귀천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봉건적신분제도의 반동적본질이다.

ㅡ 주제사상적내용

작품은 사랑에도 빈부귀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신분적으로 천한 기생의 딸과 량반의 자식이 같이 살수 없다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반동성을 보여주고있다.

장소: 만수대예술극장
창조단체: 국립민족예술단
등장인물: 춘향: 월매의 딸(녀성고음)
몽룡: 남원부사의 아들. 후에 암행어사(남성고음)
월매: 춘향의 어머니(녀성저음)
방자: 몽룡의 책방하인(남성저음)
향단: 춘향의 집 시중드는 처녀(녀성고음)
기타 남원지방의 남녀농군들, 처녀들, 부인들

변학도: 새로 부임된 남원부사(남성저음)
목랑청(남성고음)
호장(남성고음)
기타 관가의 륙방관속들, 각 고을 관장들,
형방, 형리, 사령들, 암행어사의 서리, 역졸들

ㅡ 이야기줄거리

가극은 남원부사의 아들 몽룡이 광한루에 놀러 나갔다가 월매의 딸 춘향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춘향의 아름다운 용모와 마음씨, 뛰여난 재능에 첫눈에 반한 몽룡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나 춘향과 그의 어머니 월매는 자신들의 천한 처지로 하여 몽룡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몽룡은 이에 단념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열렬히 고백한다. 이에 감동된 춘향이 몽룡과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그들의 사랑이 봄날의 꽃마냥 아름답게 피여나고 행복이 무르익던 어느날 뜻밖에도 몽룡의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져 서울로 올라가게 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춘향은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가는 몽룡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기쁨에 넘쳐있으나 천한 기생의 딸인 그의 처지로서 이것은 실현될수 없는 꿈이였다. 결국 그는 불합리한 봉건적신분제도에 의해 몽룡과 눈물겨운 리별을 한다.

그후 세월은 흘러 춘향이 사는 남원땅에 변학도가 부사로 임명되여온다. 그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악질관료로서 부임되여와 처음으로 기생점고부터 한다. 그 자리에서 춘향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은 변학도는 떠나간 몽룡을 기다리며 수절하는 춘향을 강제로 끌어다 자기에게 수청들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춘향은 변학도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유부녀까지 자기의 노리개로 삼으려는 그의 행위를 준절히 규탄한다. 악에 받친 변학도는 춘향에게 모진 매를 안기고 옥에 가두며 제놈의 생일잔치끝에 처형하려고 한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 몽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여 삼남지방으로 내려온다. 여러 고을을 순회하며 변학도를 비롯한 봉건관료배들의 죄행과 백성들의 원성을 직접 목격하고 뜻밖에 방자를 만나 춘향의 편지까지 받아본 그는 격분으로 치를 떤다. 몽룡은 암행어사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숨긴채 춘향의 집에 찾아가 월매와 향단을 만나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옥에 갇힌 춘향이와도 눈물속에 만난다. 다음날 몽룡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놈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시 한편을 남기여 량반관속들을 전률케 한다.

이어 암행어사로 출도한 몽룡은 변학도를 봉고파직시키고 춘향과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작품은 다시 만난 춘향과 몽룡이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것으로 끝맺는다.

민족가극 《춘향전》은 원작과 이전의 작품들에 비하여 기본핵을 똑바로 밝히고 가극전반에 사상적대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가극의 사상적내용을 뚜렷이 하고있다.

— 민족가극 《춘향전》의 주요노래

ㅇ 주제가

《사랑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랑가〉와 〈리별가〉가 아주 잘되였습니다.》

나오는 장면: 제2장 4경에서 1절은 춘향과 몽룡의 2중창, 반복되는 후렴은 남녀방창, 2절 전렴은 녀성방창, 후렴은 남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서장에서 관현악과 남녀방창 《아름다운 내 사랑》, 종장에서 대중창 《세월아 전하라 춘향이야기》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선에서 주인공들을 성격화하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갈라놓는 봉건적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도록 극을 추동하며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규정하여준다.

노래는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춘향, 몽룡의 2중창과 남녀방창

사랑가

사랑속에 봄철은 가고 사랑속에 가을은 왔네
날이 가며 깊었네 달이 가며 깊었네
우리 사랑 깊어졌네
천년가도 내 님이요 만년가도 내 님일세
한시인들 잊으랴 꿈에선들 잊으랴
변치 않을 내 사랑아

노래의 가사에서는 주인공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사랑의 세계를 폭넓게 펼쳐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진실하고도 열렬한 감정과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변치 않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있다.

노래가사에 반영된 주인공들의 이러한 감정세계는 밝고 우아하면서도 생기있는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노래의 선률은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레소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선률은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선률의 첫 부분은 다정다감한 정서적색채속에 주인공의 가슴속에 피여난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면 둘째 부분에서는 주인공들의 가슴속에 내재되여있던 사랑의 감정이 최대한 폭발되면서 환희적이고 절절하게 형상되고있다.

○ 기둥노래

• 《리별가》

나오는 장면: 노래는 춘향이 서울로 올라가게 된 몽룡과 헤여지는 제3장 리별장면

에서 1절은 녀성방창, 2절은 춘향, 3절 전렴은 몽룡, 후렴은 남녀방창으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같은 장에서 남녀대방창과 춘향의 노래 《아 빈부귀천 원쑤로다》, 제7장 2경에서 춘향, 몽룡의 2중창과 대중창 《꿈과 같이 만났네》의 선률로 반복된다.

가극에서 노래는 춘향과 몽룡이 헤여지는 장면과 만나는 장면에서 불리워지는것으로 하여 인정선과 상봉선에서 기둥을 이루면서 작품의 사상을 밝힐수 있는 생활적 및 감정적전제와 바탕을 마련하여주고있다.

노래는 춘향과 몽룡의 가슴속에 갈마드는 리별의 아픔을 눈물겹게 형상함으로써 그를 통해 당시 봉건적신분제도의 불합리성, 착취사회의 반동성을 폭로하는데 이바지한다.

녀성방창과 춘향, 몽룡의 노래 및 남녀방창

리 별 가

님이 가는 천리길에 비오고 바람불제
귀하신 몸 상치 말고 몸성히 가시기를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먼곳에 가시여도
남원땅에 홀로 남은 춘향을 잊지 마오

세월간다 잊을소냐 내 너를 잊을소냐
거울같이 맑고맑은 이 마음 믿어다오
이제 가면 언제 보랴 못 잊을 정을 담아
옥가락지 맑은 거울 눈물로 주고받네

노래의 가사에서는 춘향과 몽룡의 리별의 설음을 그들의 내면세계와 환경묘사를 통해 구체화하고있다. 가사에는 흐르는 눈물속에 리별의 술을 붓는 춘향과 백년가약 사랑 넘치던 잔에 생리별의 피눈물을 담아야 하는 몽룡의 괴로운 모습이 처량하고도 애달픈 시적정서로 눈물겹게 형상되고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사의 밑바탕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갈라놓는 착취사회에 대한 저주의 감정이 깔려있다.

노래의 선률은 6/8박자로서 미내림소조식에 기초하여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다.

선률에서는 주인공들의 서글픈 감정이 처량하고도 애절한 정서로 형상되고있다.

선률의 첫 부분에서는 구슬프고 쓸쓸한 감정을 점차 승화시켜 리별의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주인공의 내적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리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의 감정을 폭발시켜 설음으로 목메여 흐느끼는듯 한 표상을 안겨주는 선률형상으로써 주인공의 애달픈 심리세계를 절절하게 묘사하고있다.

- 《기러기 천리길 오고가건만》

나오는 장면: 암행어사로 내려오던 몽룡이 도중에 방자를 만나 춘향의 편지를 보는 5장에서 춘향의 독방창으로 불리워지며 제6장 2경의 옥중장면에서 춘향의 노래와 남녀방창 《유언가》의 선률로 반복된다.

노래는 춘향의 인정선을 파고들어 그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며 극을 적극적으로 심화시킬수 있는 감정적전제를 마련하여준다.

노래에서는 절개를 지켜 죽음을 각오한 춘향의 심리세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그의 진실하고도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춘향의 독방창

기러기 천리길 오고가건만

노래의 가사에서는 눈물속에 님을 그리며 생의 마지막편지를 쓰는 춘향의 애달픈 모습을 눈물겹게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밑바탕에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춘향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착취사회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깔려있다.

노래의 선률은 4/4박자의 리듬을 타고 씨내림소조식에 기초하고있다.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를 가진 노래는 전반적으로 처량하고 애달픈 정서로 일관되여 있다.

힘이 없고 가냘프게 느껴지는 첫 악구의 선률은 눈물속에 님을 그리는 춘향의 구슬픈 심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선률은 둘째 부분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강조되여 죽음을 각오한 춘향의 비장한 심정을 펼쳐보이며 끝맺는다.

- 《내 딸을 두고 간다 어인 말인가》

나오는 장면: 제3장에서 딸을 두고 떠나가는 몽룡을 원망하는 춘향의 어머니 월매의 노래로 불리워진다.

노래는 춘향의 어머니를 성격화하고 그의 시점에서 착취사회의 모순을 파헤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한다.

노래에서는 청춘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마저 갈라놓는 당대 사회에 대한 저주와 원망의 감정이 절절하게 구가되고있다.

월매의 노래

내 딸을 두고 간다 어인 말인가

가사에서는 딸의 불행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성애의 감정과 함께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불만, 그로 하여 끓어번지는 울분이 절절하게 노래되고있다. 특히 노래는 《사랑에도 귀천있고 빈부가 있다더냐》 의 시구를 통해 작품의 사상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

노래는 춘향의 노래들에서 볼수 있는 가냘프고 애절한 선률형상에 비해 약간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분노의 감정을 진하게 강조함으로써 어머니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고있다.

6/8박자의 선률은 레소조식에 기초하여 정적2부분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첫 부분에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격동된 모습을 방불케 하는 선률형상으로 하여 춘향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을 절절하게 묘사하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소리높이 웨치는 어머니의 피의 절규인듯 강렬한 극성을 안고 전개되면서 그의 울분의 감정,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감정을 세차게 터뜨리고있다.

— **장면별 음악구성**

서장. 사랑의 노래

관현악과 남녀방창 《아름다운 내 사랑》

제1장. 광한루의 봄

녀성방창과 처녀들의 가무 《에헤야 봄이로세》

춘향과 향단의 2중창 《꽃노래》

남성방창과 방자의 노래 《남원의 좋은 경치 자랑을 하자》

남성방창과 몽룡의 노래 《이 봄을 안아보자》

방자의 노래와 남성방창 《춘향으로 말한다면》

남성방창과 방자, 향단의 노래 《그른 래력 들어보아라》

녀성방창과 몽룡, 춘향의 노래 및 남성방창 《그대 모습 꽃인가》

제2장

1경. 부용당의 봄밤

녀성방창과 춘향의 노래 《나도 모를 이 마음》

월매의 노래 《봄나비 날아들 때》

녀성방창과 몽룡의 노래 《봄향기 못 잊어 찾아왔구나》

월매의 노래 《백년가약 안되리다》

2경. 시내가

남성방창과 방자, 향단의 2중창 《이 일을 어이하랴》

녀성방창과 춘향의 노래 《그리워 달려가는 이 마음 끝없건만》

3경. 꽃피는 부용당

몽룡, 춘향의 노래와 남녀방창 《아 내 마음 알아다오》

녀성방창과 남성방창 《그 사랑 꽃피여났네》

4경. 사랑가

춘향, 몽룡의 2중창과 남녀방창 및 무용 《사랑가》

제3장. 부용당의 가을

녀성방창과 춘향의 노래 《가랑잎이 설레여도 님이 오는가》

향단의 노래와 춘향, 향단의 2중창 《나도 가지》

몽룡, 춘향의 노래와 남성방창 《내가 가면 아주 가랴》

월매의 노래 《내 딸을 두고 간다 어인 말인가》

녀성방창과 춘향, 몽룡의 노래 및 남녀방창 《리별가》

남녀대방창과 춘향의 노래 《아 빈부귀천 원쑤로다》

제4장. 남원관가

변학도의 노래 《태평세월 즐기리라》

호장과 사령들의 노래 《기생점고》

농군들의 노래와 남성방창 《우리 백성 살려주오》

변학도와 목랑청의 노래 《춘향아 어려워말아》

춘향의 노래 《부녀자의 정절에도 귀천이 있으리까》
녀성2중창방창과 녀성방창 《꽃잎은 떨어져 짓밟히는가》
남녀방창 《한자두자 피눈물로 편지를 쓰네》

제5장. 농부가

몽룡의 노래 《오리정 가을날에 바래주던 내 님아》
남녀대합창 《농부가》
무용 《탈춤》
방자의 노래와 남성방창 《한양천리를 언제 가랴》
춘향의 독방창 《기러기 천리길 오고가건만》
몽룡의 노래 《포악한 그 정사에 원성이 높구나》
방자의 노래와 남성방창 《춘향아씨 살았구나》

제6장

1경. 눈물의 부용당

녀성방창과 월매, 향단의 2중창 《귀한 딸 살리려고 어머니는 비네》
월매의 노래 《하늘도 무정하다 억울한 세상》
남성방창과 몽룡의 노래 《그리웁던 그 모습은 여기 없구나》

2경. 옥중에서

녀성방창과 춘향, 몽룡의 노래 《이제야 오셨는가》
춘향의 노래와 남녀방창 《유언가》

제7장

1경. 사또생일잔치

녀성방창과 무용 《꽃을 드리리다》
무용 《패랭이춤》
변학도의 노래 《저 님아 술 부어라》
남녀방창과 무용 《지화자》
남성방창 《거지량반 저 나그네 누구인가》
변학도, 목랑청의 노래와 관장들의 노래 《기름 고 높을 고》,
《암행어사 출도》

2경. 고생끝에 락이 왔네

춘향과 부인들의 노래 《푸르른 소나무가 눈비에 변하리까》
춘향, 몽룡의 2중창과 대중창 《꿈과 같이 만났네》
월매와 방자, 부인들의 노래 《남원땅의 경사로세》

종장. 전하리 춘향의 노래

대합창과 춘향, 몽룡의 노래 및 대중창과 무용
《세월아 전하라 춘향이야기》

2. 가극 및 창극(1946－1966)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민족문화건설로선에 따라 민족적형식에 민주주의적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민족가극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다양한 형식의 가극들이 창작되였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방전에 온전한 가극 한편 가지지 못했던 우리 예술인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민족가극을 창조한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였습니다.》

김 정 일

가극 《견우직녀》, 《금강산팔선녀》

주체36(1947)년 10월 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 《견우직녀》를 보아주시고 가극을 잘 만들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장소: 3.1극장
출연: 북조선가극단
창조성원: 희곡 박세영
작곡 리면상
연출 김 우
등장인물: 견우, 직녀, 옥황상제

주체58(1969)년에 우리 나라에서 반미세계기자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11일 전설을 내용으로 한 가극 《금강산팔선녀》를 새로 창작하여 기자대회참가자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8(1969)년 9월 6일 민족가극 《금강산팔선녀》를 친히 보아주시였다.

장소: 당시 국립민족가극극장
출연: 국립민족가극단
창조성원: 작곡 리면상
연출 김영희
지휘 성동춘
안무 집체
등장인물: 견우, 직녀, 황소, 사슴, 옥황

— 간단한 내용

가극은 4막 7장으로 되여있다. 가극은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견우(옥류동마을에서 사는 순박한 목동)가 사냥군들에게 쫓겨온 사슴을 구원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슴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팔담에 내려와 목욕하던 한 선녀(직녀)의 날개옷을 감추어놓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다음 견우와 인연을 맺게 한다. 견우와 직녀는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산다. 10년세월이 지난 7월칠석날 직녀는 옥황상제의 조화로 하늘로 끌려올라가게 된다. 견우도 사슴의 도움으로 그의 뒤를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 옥황상제는 비, 번개를 일으키고 조화를 부려 견우와 직녀사이를 갈라놓으

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무지개를 타고 다시 옥류동에 내려와 아들딸을 만나고 마을사람들의 사랑속에 행복하게 살게 된다.

— **주제사상적내용**

진실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약초캐는 처녀들이 꽃호미를 들고 추는 춤과 직녀의 노래가 좋다고, 무대미술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옥황상제가 왝왝 고아대며 노래를 하는데 조선사람은 순한것을 좋아하고 왝왝 고아대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노래는 아름답고 순해야 하며 조선사람은 선률이 순한것을 좋아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에 무용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설가극에서는 그 예술적특성에 맞게 노래와 무용형상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8(1969)년 10월 1일 또다시 가극공연을 보아주시였다.

— **주요노래**

• 노래《날개옷 어데 갔나》

노래는 팔담에 내려와 목욕한 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였던 직녀가 날개옷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노래는 날개옷을 잃어버린 직녀의 안타까운 심정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하고있다.

날개옷 어데 갔나

팔담이 좋기로니 10년을 어이 참나
금강산 맑은 물도 이내 슬픔 못 씻으리
무지개 피여나도 달 밝은 밤이 와도
저 하늘 그리워 은하수 그리워
내 홀로 어이 살랴

• 노래《우리 사랑 천년세월 피워가리》

노래는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불리워진다.

노래에는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행복을 꽃피워가려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선률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의 감정이런듯 밝고 정겨우며 희망에 넘쳐있다.

우리 사랑 천년세월 피워가리

그대 마음 가지 되고 그대 마음 잎이 되여
한나무의 꽃송이로 우리 사랑 꽃피리
아 우리 마음 천년세월 피워가리

아침에는 해님 반겨 저녁엔 달님 반겨
천년화가 꽃피듯이 우리 행복 꽃피리
아 우리 사랑 천년세월 무궁하리

• 노래《온 세상 어델 봐도 이런 곳 없어라》

노래는 직녀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에서 불리워진다.

노래는 하늘나라 좋다 한들 금강산이 제일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이 땅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노래선률은 아름다운 금강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정겹고 부드러운 정서속에 보여주고있다.

하늘의 꽃이런가 황홀한 그대
외로워마시라 슬퍼마시라
산천도 아름다운 금강에 정들이면
사람 사는 기쁨도 아시게 되리

선녀들 그리워 어이 살으리
선녀들 없는 곳에 벗이 있다오
은하수 그리워 내 어이 살으리
은하수 없는 곳에 금강이 있다오

살뜰한 이웃들을 벗으로 삼으며
금강에 사시라 여기 사시라

－상식－

창 극

창극은 극문학대본, 노래와 음악, 연출, 연기, 조형예술 등이 통일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형식이다.

창극은 우리 나라 민족가극의 최초의 형태로서 20세기초에 발생발전하였다.

당시 김창환을 비롯하여 재능있는 음악가들에 의하여 무대음악극으로서의 새로운 예술형태가 창조되였다.

이들은 판소리로 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을 창극으로 각색하여 무대에 올렸는데 이것이 창극형식이 태여나게 된 시발점으로 되였다.

판소리의 노래인 창이 극을 엮어나가는 기본형상수단으로 되는 극이라는 의미에서 창극이라고 하였다.

해방후 창극은 합창과 중창이 도입되고 민족관현악이 확대되면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쐑소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가사가 한자말로 엮어져있었으므로 현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잘 맞지 않았다.

판소리의 요소를 없애고 서도민요에 기초하여 극을 엮어나가면서 창극은 1960년대에 민족가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여졌다.

창극은 창극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혁신적으로 변모되여나갔다.

그러나 1970년대 우리 나라에서는 인류가극발전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피바다》식혁명가극이 탄생하여 창극형식은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력사적보존물로 되였다.

가극 및 창극 《춘향전》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는 고전작품 《춘향전》은 해방후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가극과 창극으로 력사적시기에 맞게 개작되여 창작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이 창작될 때마다 친히 보아주시고 민족고전작품들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가극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개선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민족고전들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연극과 가극으로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복고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면서 창작완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6월 가극 《춘향전》을 보아주시였다.

장소: 3.1극장
출연단체: 국립가극단
창조성원: 각색 김승구
작곡 황학근
연출 선우효
등장인물: 성춘향, 리몽룡

이날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청전》이나 《춘향전》은 조선민족의 품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고전작품이라고, 특히 《춘향전》은 조선녀성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린 작품으로서 우리 민족이 자랑할만 한 민족유산이라고, 돈도 권세도 마다하고 봉건사회의 질곡에 항거하여 일편단심 굳은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높은 정신세계는 조선녀성의 고유한 품성을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리몽룡을 순수한 선정의 검열자로 나오게 한것은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그가 긍정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통치계급이라고, 이러한 점에 류의하여 잘 고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10월 27일 가극 《춘향전》을 또다시 보아주시였다.

장소: 3.1극장
출연단체: 국립가극단
창조성원들: 각색 김승구
작곡 황학근
연출 강 호
등장인물: 성춘향 류은경
리몽룡 선우효

이날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작에 충실한것은 좋은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반인민성과 부패성만을 일면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봉건사회의 모순을 여러모로 보여주는것이 좋겠다고, 민족고전작품을 각색하는데서 어디까지나 당대 사회제도의 계급적성격과 모순을 잘 반영하는 방향에서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춘향전》을 세계에 널리 소개선전하자면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고상한 미풍량속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고전작품들이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우리 인민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민족적긍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민족고전작품을 각색하는데서 사상성과 예술성, 계급성과 민족성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오늘 공연이 잘되였다고, 배우들에게 공연이 잘된데 대하여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10월 10일 창극 《춘향전》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국립민족예술극장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월매역을 하는 배우를 비롯한 일부 배우들이 옛날 창극이 탁성을 기본으로 하였다고 하여 오늘에 와서도 탁성을 내야 한다는 법이 없다고, 무엇때문에 남자라면 몰라도 우리 조선녀성들이 자기의 고유한 소리를 버리고 부르기도 힘들고 듣기도 싫은 쐑소리를 내야 하는가고 하시면서 이것은 아직도 우리 예술인

들이 민족문화유산계승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대해도 그것이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심중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대담하게 개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해도 안되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 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하시면서 예술일군들은 지난날의 낡은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경향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문학예술의 모든 종류와 형식들을 새생활이 약동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극이 우리 인민에게 참답게 복무하자면 마땅히 모든 노래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완성하여 공연할데 대하여, 앞으로 민족고전작품만 하지 말고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현실주제의 작품들도 많이 취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월 7일 창극《춘향전》을 또다시 보아주시였다.

장소: 모란봉극장
출연: 국립민족예술극단
창조성원: 각색 조운
작곡 박동실
연출 안영일
등장인물: 성춘향, 리몽룡, 월매

부용당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춘향전》은 조선녀성들의 고상한 도덕품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하니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조집단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앞으로 창조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원작에서는 시대의 력사적제약성때문에 리도령이 어사로 나올 때 왕의 《선정》의 대변자로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그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왕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착취계급의 정치적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춘향이의 형상이 좀더 녀자답고 아름다와야 하겠다고, 그의 노래소리가 음악반주에 비하여 약하기때문에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별적인물들의 용모와 분장, 발성과 가사구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조집단성원들의 수고를 다시금 치하하시고 그들에게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였다.

주체53(1964)년 6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극 《춘향전》을 또다시 보아주시였다.

장소: 평양대극장

출연단체: 국립민족예술단

창조성원: 각색 조령출

작곡 리면상

연출 김영희

등장인물: 성춘향, 리몽룡, 월매, 방자, 향단, 변학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이 잘되였다고 치하하시고 수정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의 가사와 대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5장과 6장을 새로 보충할데 대한 문제, 편지장면,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 춘향의 형벌장면, 변학도의 부임장면, 기생점고장면 등 여러 장면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일깨워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가극 및 창극 《춘향전》을 보아주시고 가극창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여 우리 나라 민족가극이 나아갈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가극 《꽃신》, 《콩쥐팥쥐》

가극은 고유한 민족문화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락후한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문화예술건설로선을 받들고 창작된 작품이다. 가극은 처음에 《꽃신》이라는 제목으로 되였다가 후에 개작하면서 《콩쥐팥쥐》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2월 9일 가극 《꽃신》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국립예술극장

출연: 국립예술단

— **간단한 내용**

가극은 부지런하고 착한 근로인민에게는 행복이 차례지고 악한자는 멸망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있다. 1막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나무호미로 돌밭김을 힘겹게 매는 콩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콩쥐가 부르는 《돌밭매기》노래는 그의 애달픈 심정을 잘 표현하고있다. 2막에서는 계모와 팥쥐가 콩쥐에게 일감을 잔뜩 맡기고 잔치구경을 간 다음 홀로 남은 콩쥐가 쓸쓸히 실물레를 돌리고있을 때 선녀들이 나타나서 그 많은 일감을 순식간에 끝내주고는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꽃신을 신기여 꽃수레에 태워서 반월궁으로 구경가도록 해주는 내용을 보여준다. 3막에서는 반월궁에 도착한 콩쥐가 왕자와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가 꽃신 한짝을 떨군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4막에서는 서로 그리워하던 콩쥐와 왕자가 숲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며 5막에서는 콩쥐와 왕자의 사랑이 맺어지고 악독하고 심술궂은 계모가 벌을 받게 된다.

— **주제사상적내용**

인간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바라는 념원과 꿈을 실현할수 있으며 나쁜 마음을 가지면 파멸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보아주시면서 아이들이 작품의 참된 내용을 리해하지 못하고 계모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계모라고 다 그럴수 없고 더우기 우리 시대에서 계모는 그럴수 없다고, 《꽃신》의 계모는 시대적인 제약성이 낳은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12월 7일에 또다시 가극을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이 마음에 든다고, 노래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가극은 이런 방향으로 민족적향취가 풍기도록 발전시키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 21일 모란봉극장에서 가극 《콩쥐팥쥐》를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가극 《꽃신》을 개작하여 정전직후에 처음으로 내놓은 가극인데 노래도 좋고 음악도 좋다고, 우리 가극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장소: 국립예술극장

출연: 국립예술단

가극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잘되였다고 평가하시고 민족적인 예술을 발전시키는 우리의 방향이 옳았다고,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생활과 풍습, 정의로운 사상과 지향을 무대우에서 아름답게 살리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노래도 아름답고 의상들도 곱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앞으로도 계속 민족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은정어린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 주요노래

• 노래《돌발매기》

1막에서 콩쥐는 열두고랑발김매기를 다 한다. 그러나 고약한 계모는 그가 일은 안하고 봄의 장단에 흔들거리기만 한다고 생트집을 걸며 돌밭을 매라고 호령질한다. 콩쥐가 나무호미를 가지고 어떻게 돌밭을 매는가고 하자 그는 열손가락 손톱으로라도 매라고 벼락치듯 소리개를 지른다. 어디에 하소할 곳도 없는 콩쥐는 억울한 심정을 안고 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계모의 학대속에 나무호미로 돌밭을 매지 않으면 안되는 콩쥐의 하소연을 통하여 콩쥐의 불행한 처지와 설음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노래는 크게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첫 부분은 첫번째 소절부터 13번째 소절(가사《아니 매고 어이하리》)까지이다.

첫 부분의 가사는 나무호미로 돌밭을 매야 하는 콩쥐의 불행한 처지를 눈물겹게 토로하고있다. 첫 부분의 선률은 그의 이러한 심정을 반영하여 구슬프면서도 어둡게 울린다.

이어 짤막한 관현악간주가 둘째 부분에로 넘어가기 전에 놓이는데 콩쥐의 가슴을 긁어내리는 비애적인 정서를 보다 더해주면서 첫 부분의 정서적여운을 진하게 채색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첫 부분의 선률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가사를 약간 달리하고있으나 가사의 본질적내용은 같다. 둘째 부분의 반복은 첫 부분의 정서적내용을 보다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부분은 가사 《해님은 쉬지 않고》대목부터 마지막가사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까지이다. 해는 쉬임없이 흘러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아득

한 밭이랑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 가사는 억울한 사연을 동정해줄 사람도 없고 리해해줄 사람도 없는 콩쥐의 불쌍한 신세를 반영하고있다.

노래는 첫막에서 나오면서 콩쥐에 대한 계모의 감정과 그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 콩쥐의 처지, 앞으로의 그들의 관계를 극적으로 전개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돌 밭 매 기

• 노래《실물레》

2막에서 계모와 팥쥐가 콩쥐에게 일감을 잔뜩 맡기고 왕궁의 잔치구경을 간다. 홀로 남은 콩쥐는 쓸쓸히 실물레를 돌린다. 노래 《실물레》는 이때 콩쥐가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는 자기의 신세를 실물레에 담아 부르는 콩쥐의 형상을 통하여 불우한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과 래일에 대한 희망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노래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되여있다.

첫 부분은 첫번째 소절부터 13번째 소절(가사 《빙글빙글 도는거냐》)까지이다.

첫 부분의 가사는 외롭게 돌고도는 실물레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홀로 남은 자기의 처지를 담는 콩쥐의 쓸쓸한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슬픔에 젖은 이 선률흐름에는 자기를 남겨놓고 먼저 떠나간 부모님들에 대한 야속한 감정도 깃들어있고 외롭고 쓸쓸한 자기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비껴있다.

둘째 부분은 14번째 소절부터 37번째 소절(가사 《버선으로 해진다네》)까지이다.

둘째 부분 가사에서 콩쥐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자기를 실물레와 같이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에 놓이게 한 이붓엄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있으며 목화따서 실을 뽑고 실을 골라 무명짜서 버선을 만들면 고추같이 매운 이붓엄마가 그 버선을 신고 다니다가 다 해지게 만든다는 구절로써 이붓엄마의 하녀노릇으로 인생을 속절없이 보내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있다. 선률에서는 실물레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하소하는 콩쥐의 감정을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셋째 부분은 38번째 소절부터 45번째 소절(가사 《앉아보니》)까지이다.

셋째 부분의 가사는 좋은 세월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콩쥐의 소망을 보여주고있다. 선률정서는 그의 념원을 담아 명랑하게 울리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념원을 담은 셋째 부분의 선률은 길지 않다. 그의 공상은 오래가지 못하듯 선률은 다시 처음에로 되돌아간다.

넷째 부분(46번째 소절부터 마지막소절까지)의 선률은 첫째 부분의 다섯개 소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종지된다. 콩쥐의 설음과 쓸쓸한 심정을 반영한 이 선률은 공상으로부터 벗어나 가혹한 현실세계에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그의 념원은 가슴속에 그대로 간직되여있다. 노래는 그것을 가사로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노래는 콩쥐의 처지와 념원을 실물레를 돌리는 그의 마음속 하소를 통하여 집약하여 보여줌으로써 극중인물들의 관계와 앞으로 극발전을 위한 인물들의 감정적인 전제를 충분히 깔아주고있다.

실 물 레

천천히
작사 조령출, 작곡 리면상
물레 야 —실 물레야 목화실을감고도는 하 염없는실물
레야— 어 머님은어따 두고— 아 버지는어따
두고— 너 만홀로내손 에서— 빙글빙글 도는거
냐 물레 야 실물레 야
내설음 은 실아니 다 설음감 고 돌 지 말 아
— 목화따 서 실을뽑 고 실을골 라 무명짜 서
아 ———— 고 — 초 같 은
어 부 엄 마 버선으 로 해 진 다 네 —
좀 빨리 명랑하게
물 레 야 실물레 야 너는언 제 세월만 나

• 노래《왕자의 노래》

3막에서 콩쥐는 은별선녀의 도움으로 반월궁에 가서 왕자를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그러다가 은별선녀와 약속한 시간이 되여 황급히 떠나온다. 그때 그는 꽃신 한짝을 떨구게 된다.

왕자는 그 꽃신 한짝을 들고 그에 대한 련모의 정을 담은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아름다운 콩쥐에 대한 왕자의 끝없는 련민의 정을 반영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콩쥐와 함께 가는 길에 꽃이 피고 기쁨이 넘쳐나리라는 왕자의 내면독백을 통하여 콩쥐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인생의 행복을 꽃피워가려는 그의 결심을 보여주고있다.

노래는 왕자의 행복하고 격정에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3박자의 률동적인 정서속에 밝고 류창하게 흐르는 선률로 형상하고있다.

선률은 복합3부분형식으로 되여있다.

첫 부분은 첫번째 소절부터 32번째 소절(가사 《해가 저문듯》)까지이다. 첫 부분에서는 꿈같이 만났다가 꿈같이 헤여진 콩쥐에 대한 불타는 련민의 정을 반영하고있다.

노래에서 콩쥐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 북받치는 련정은 둘째 부분에서 나타난다. 둘째 부분은 33번째 소절(가사 《은별은별》)부터 50번째 소절(가사 《어데로 사라졌나》)까지이다.

둘째 부분에서 선률은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끝없는 사랑의 감정을 충분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자기의 희망이며 행복인 콩쥐를 알게 된 무한한 기쁨과 격정의 세계를 환희적인 정서속에 펼쳐보이고있다.

셋째 부분은 첫째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여준다. 셋째 부분의 가사는 콩쥐와 함께 가는 인생의 길에 행복만이 있을것이라는 기대와 결의적인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류창하게 흐르는 이 노래는 왕자와 콩쥐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가지가지의 사건들로 극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왕자의 노래

E♭ A♭ Fm/C E♭ mp
어 데 로 어 데 로 사 라 졌 나 은 별 ㅡ
B♭7 Cm E♭ B♭7 E♭
이 여 내 사 랑 나 의 ㅡ 기 쁨 아
E♭ B♭7 Cm E♭
ㅡ 그 대 ㅡ 몸 은 갔 으 나 그 빛 은
B♭7 E♭ B♭7 E♭
남 았 네 ㅡ 그 대 ㅡ 가 ㅡ 는 모 든 길
Cm B♭ F E♭
에 꽃 은 ㅡ 반 ㅡ 기 고 ㅡ 그 대 ㅡ
Fm E♭ B♭ B♭7 E♭ B♭7 E♭
오 ㅡ 는 모 든 길 에 기 쁨 ㅡ 있 으 리 ㅡ 기
E♭ Fm Cm E♭ B♭7 E♭
쁨 있 으 리 행 복 있 으 리 ㅡ

가극 《온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1월 4일에 가극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국립예술극장
출연: 국립예술단

— **간단한 내용**
온달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어릴 때부터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가 헌옷을 입고 헌신을 끌고다녔기때문에 항간에서는 그를 두고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평강왕에게는 울보로 소문난 딸이 있었는데 왕은 그가 울 때마다 롱말로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내야 하겠다고 말하군 하였다. 공주의 나이가 열여섯 되였을 때 왕은 그를 우로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 우로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던 공주는 궁을 뛰쳐나와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온달을 찾아가 그의 안해가 된다. 공주의 지성과 노력으로 온달은 무예를 닦게 되며 해마다 3월 3일이면 락랑언덕에서 진행되군 하는 사냥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된다. 왕은 그가 자기 딸과 사는 온달임을 알고 잡아가두게 한다. 이 소식을 듣고 공주가 온달을 놓아달라고 왕을 찾아온다. 이때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온달은 공주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며 선봉이 되여 슬기와 용맹을 떨친다.
— **주제사상적내용**
고구려인민들의 견결한 반침략애국정신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보아주시면서 내용이 좋고 극성이 있게 구성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가극에 감동적인 장면이 많고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며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 하니 민족적인 맛이 나서 좋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주인공 온달을 어려서부터 똑똑한 사람으로 형상한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달은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성품이 어질고 굳세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고 애국심이 높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의 수정방향도 제시하시였다.
우선 가극에서 온달이 공주의 방조에 의하여 유명한 장군으로 된것으로 만들었는데 온달이 장군으로 되는 과정에 공주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그것이 기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온달이 고구려의 장군으로 될수 있은것은 그가 인민들속에서 애국심을 키우고 이악하게 무술을 련마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에서는 미천한 온달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구려인민의 슬기와 용맹을 체현한 인민출신의 애국적장군으로 성장하였으며 그가 장군으로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극의 제목도 그저 《온달》이라고 하지 말고 《온달장군》이라고 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하시였다.

가극 《금란의 달》

가극은 주체46(1957)년 4월에 창작공연되였다.

장소: 모란봉극장
출연: 국립예술단

— 간단한 내용

9세기 후반기 붉은바지농민폭동을 일으켰던 폭동군의 생활과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제1장 1막은 태수가 자기의 권세와 영화를 세상에 떨치려고 마을사람들을 부역에 동원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아첨쟁이 혁을이 극성을 부린다. 백성들의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눈물은 마를줄 모른다. 이때 붉은바지농민폭동군에 들어갔던 서현이 8년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과 상봉한다. 여기서 그는 간악한 태수의 학정아래 시들어가는 마을사람들의 한을 체험하면서 복수를 다짐한다.

2막은 성안에서의 생활이다. 태수의 양딸 달미가 새로 들어온 병사 서현에게서 활쏘는 법을 배운다. 달미는 가난한 집의 딸로서 8살때 태수에게 강제로 양딸로 끌려온 처녀이다. 달미는 서현에게서 활쏘기를 배우는 과정에 이름모를 그 병사에 대한 련정의 마음을 품게 된다. 서현의 활솜씨가 소문나자 이 성에 온 신라의 세력있는 사죽대인이 그와 활쏘기를 겨루겠다고 나선다. 태수는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3막 1장이 펼쳐지면 활쏘기경기의 마지막판이 펼쳐진다. 태수가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맞히라고 하자 사죽대인이 먼저 나섰다가 실패한다. 그러나 서현은 세번째 기러기의 죽지를 맞히겠다고 하면서 정확히 명중한다. 태수는 그가 병든 기러기를 맞혔다면서 병사는 자기 딸과 결혼할 신분이 못된다고 한다.

2장이 펼쳐지면 봉황대에서 향연이 진행된다. 사죽대인은 달미보고 금란의 달이라고 하며 치근거린다. 조용한 곳에서 달미를 만난 서현은 그에게 자기가 성안에 들어온 목적을 이야기한다. 달미는 그를 도와 태수와 보초를 서는 병졸들에게 술을 먹이고 열쇠를 빼낸다. 그리하여 붉은바지농민폭동군들은 성안에 들어오게 되고 태수와 혁을을 쳐부시고 성안백성들의 원한을 풀게 된다.

— 주제사상적내용

피착취근로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4월 14일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봉건통치자들의 착취적본성과 교활성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장면들을 더 설정하며 주인공 달미가 천민출신인 서현의 일을 도와주는것을 순수 사랑에 의한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가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는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배우들이 실력이 있다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의상도 시대상에 잘 어울린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 **주요노래**

• 《서현의 노래》

노래는 3막 1장 활쏘기경기 이후장면에서 나온다. 서현은 활쏘기경기에서 사죽대인을 이기지만 태수는 이긴자에게 자기 양딸 달미를 안해로 맞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활쏘기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헤여지자 서현은 홀로 봉황대에 올라 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착취계급의 모진 억압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에 대한 주인공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자기의 청춘도 사랑도 모두 바쳐 백성들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줄 주인공 서현의 불타는 마음을 보여주고있다.

노래는 구조적으로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매개 부분사이에는 관현악에 의한 일정한 길이의 간주가 놓여있다.

첫 부분은 1번째 소절부터 19번째 소절(가사 《일어서리라》)까지이다.

첫 부분의 가사는 태수를 비롯한 착취계급의 학정속에 짓눌리워 피눈물로 세월의 년륜을 새겨온 금란성에 대한 주인공의 가슴아픈 추억과 그 원한을 가시려 이곳에 온 붉은바지농민폭동군이 기어이 아침해 솟는 래일을 맞이하고야말리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첫 부분은 음악적으로 볼 때 두 단락으로 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첫 단락은 1번째 소절부터 12번째 소절까지로서 짓밟혀 신음하는 금란성에 대한 주인공의 가슴아픈 심정을 레소조상에서 토로하고있다.

이러한 정서적여운속에서 첫 부분의 두번째 단락(13번째 소절 《분노에 불타는》

—19번째 소절)이 시작된다. 첫 단락과는 달리 화대조상에서 끝맺는 이 선률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의 감정으로 첫시작부터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노래의 첫 부분이 끝나면 관현악에 의해 다음부분으로 가기 위한 간주가 흐른다.

노래의 둘째 부분은 20번째 소절부터 31번째 소절까지(가사 《어이하오리까》)이다.

둘째 부분의 가사는 달미와 사랑의 정을 누리는것보다 백성들의 원한을 먼저 풀어주려는 주인공의 감정표현을 통하여 정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 사랑도 바쳐가는 그의 아름다운 감정세계를 보여주고있다.

둘째 부분의 음악적흐름에서 특징적인것은 달미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의 교차가 선률선적진행과 속도적조절을 통해 명백하게 구별되여 표현되고있는것이다. 처음 달미에 대한 뜨겁고도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높은 음역에서 맑게 표현되고있다면(20번째 소절—24번째 소절) 원쑤에 대한 증오로 타번지는 심정을 반영한 선률(25번째 소절—29번째 소절)은 점차적인 상승진행과 속도로 명백히 구별되고있다.

노래의 둘째 부분이 끝나면 관현악에 의해 다음부분으로 가기 위한 간주가 흐른다.

간주다음에 나오는 노래의 셋째 부분은 투쟁의 길에 나선 긍지와 자부심, 승리에 대한 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셋째 부분(32번째 소절—마지막소절)에서는 앞의 부분들과는 달리 주로 4/4박자로 흐르면서 힘있고 기백있는 성격을 뚜렷이 살리고있다.

노래는 가극에서 서현의 성격적특질, 다시말하여 짓밟힌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 달미에 대한 사랑, 자기 개인보다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노래의 하나이다.

서현의 노래

(♪= 136)
분노에불 타는 이심장바 쳐서 아ㅡ침해 빛 솟는날위 하
여 ㅡ 일ㅡ어서 리 라 ㅡ
수집은그 대의 타 는마-음 ㅡ 내 모를리있 으리
점차 빨리
오 ㅡ 그러나달 미님 백성의원 쑤 갚을일일각이
본래 속도보다 좀더 느리게
천추인데 ㅡ 아 어ㅡ이하오리 까 ㅡ
(♩= 130)
백 성들 이 여 어 둠 을헤치고
ㅡ 먼 동 이 트리라 괴 로움 도 슬 픔도없 는
광 명 한해ㅡ빛ㅡ 솟 ㅡㅡ는 금란의아침은밝ㅡ
아오리라 금ㅡ란아 밝 아오리라 ㅡ

• 《달미의 노래》

노래는 2막에서 서현에게서 활쏘는 법을 배우는 달미가 그를 생각하며 부르는 곡이다.

노래는 서현에 대한 달미의 순박하고도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노래선률은 복합3부분적구조를 가지고있다.

첫 부분은 1번째 소절부터 20번째 소절(가사 《어이 설레는고》)까지이다.

가사는 서현이에 대한 처녀의 순박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담고있다. 가사는 만나면 부끄럽고 손이 떨리고 마음이 설레이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처녀의 소박하고 순진한 사랑의 세계를 반영하고있다.

선률의 정서는 처녀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이런듯 맑고 아름답다. 선률의 매개 단락은 거의 모두 하강진행으로 유순하게 흐르고있다. 이러한 선률의 정서는 남모르게 가슴속에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한 처녀의 수집은 모습을 엿보게 하고있다.

특히 강박에 점4분소리표와 그다음에 놓이는 16분소리표의 음조진행은 우아한 정서적특징으로 하여 첫 부분의 전반에서 관통되면서 사랑에 대한 처녀의 애틋한 정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둘째 부분은 21번째 소절부터 43번째 소절 (《설레이지 않은것을》)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우뢰가 울고 비바람 세차도 끄떡없었을 달미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이 가사는 무엇에도 유혹되고 흔들리지 않던 마음이건만 서현의 름름한 모습과 뛰여난 재능에 사정없이 끌려들어가 진정할길 없어하는 달미의 마음과 서현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고있다.

정서적측면에서 볼 때 둘째 부분 선률은 앞의 부분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적이다.

둘째 부분이 끝나면 10소절가량의 관현악간주가 있다.

그다음 셋째 부분이 시작된다. 가사는 내용적으로는 첫 부분과 류사하고 선률은 꼭 같다. 하여 노래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상정서적내용을 통일짓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둘째 부분의 정서적흐름의 여운속에서 울리는것으로 하여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애수에 젖어있던 첫 부분보다 지향성이 내재되여 있다.

이렇게 노래는 서현에 대한 달미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의 세계를 아름다우면서도 열정에 넘친 정서로 소박하게 표현하고있다.

이 노래는 권력과 황금으로 너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저주와 환멸을 반영한 노래들과 대조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서 서현을 따라 정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달미의 감정적전제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달미의 노래

천천히
작사 리태화, 작곡 함홍근
어 인—일인 가 내 —마음 내 —몰 라 —
라 — 그 —병 사 가 르 치—는
활 불—잡 으 면 부 끄—러 워 라 —
내 ——손 길 어 이 떨 —리 는 고 —
내 —마 음 어 이—설 레 는 고 —
더 열정적으로
지 심 도 울 리 는 우 뢰 가 운—들 —
고 요 한 내 마 음 흔 들 리 지 않 은것을 ———
— 비 바 람 사나웁 게 불 어 세 여
도 — 잔 잔 한 내 마 음 설 레이지 않 은 것

―상식―

판 소 리

지난 시기 민간설화나 이야기를 운문화하여 노래로 만든 설화창의 성악연주양식이다.

극적인 성격을 띠는 장편서사가를 한사람의 가수가 독연형태로 부르는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보통 북장단을 반주로 한다.

기본표현수단은 창과 아니리이다.

창은 주로 인물들의 심리정서적주정토로를 표현하며 아니리는 극적정황설명과 대화의 수단으로 쓰인다.

이밖에도 너름새연기동작, 가벼운춤동작, 화용(표정), 비용(흉내) 등 보조적인 표현수단들이 리용된다.

18세기에 활동한 직업적인 민간성악가수들인 광대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많은 민간설화나 이야기들이 판소리로 불리워지게 되면서 하나의 독특한 연주양식으로 확립되였다.

판소리는 자연스러운 발성법과 모순되는 탁성 즉 쐑소리로 부르는 성악형식으로서 노래의 가사는 한문투로 되여있고 선률은 시조조의 음조투로 되여있으며 한가하고도 침침하며 무거운 선률정서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박타령》), 《수궁가》(《토끼타령》), 《적벽가》 등이 그 대표적 작품들이다.

창극 《선화공주》

창극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천민서동에 대한 향가《서동요》를 소재로 하여 봉건귀족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인민적지향을 보여주려고 창작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12월 27일 이 작품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모란봉극장
출연; 국립민족예술단

간단한 내용

마를 캐서 살아가는 서동이라는 총각이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온다. 서동은 그를 안해로 삼기 위하여 도읍지에 와서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주면서 선화공주가 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듯 한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다. 항간에 퍼진 《서동요》의 내용을 알게 된 왕이 대경질색하며 당장 서동이를 잡아들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서동은 잡혀들어오고 선화공주를 이미전부터 마음에 들어하던 흑룡은 선화를 꼬여낸 서동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서동은 선화공주에 의해 무사히 빠져나가며 그 죄로 선화공주는 귀양살이를 보내라는 왕의 어명을 받게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서동이 선화를 구원함으로써 두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된다.

주제사상적내용

신분제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천민출신의 서동과 왕궁의 선화공주가 사랑을 맺는 이야기를 통하여 근로하는 인민들의 슬기와 행복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면서 봉건왕과 관료들의 포악성을 폭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을 보아주시고 좋은 작품이라고, 무용도 좋고 연등춤의 의상도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 《선화의 노래》

노래는 3막 1장 달빛밝은 밤 자기로 하여 래일이면 죽게 되는 서동에 대한 생각으로 모대기는 장면에서 선화의 노래로 불리워진다.

노래의 가사는 자기로 하여 죽게 되는 서동에 대한 선화공주의 동정심과 사랑, 자기자신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상식—

서 도 창

서도지방 민간가수들의 전통적인 창법 또는 가창양식.

지난날 《방아타령》, 《룡강기나리》, 《구녕변가》, 《산념불》 등의 서도민요와 《배따라기》를 비롯한 직업적인 민간가수들의 창법과 가창양식은 서도창의 전형이다.

서도창은 남도창에 비하여 맑고 부드럽고 유순하며 꺾임새가 심하지 않다.

서도창은 또한 일반적으로 청이 높을뿐아니라 통성이 깊고 진하며 굴림새를 많이 쓰는것이 특징이다.

가극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가극은 전신 48%에 3도화상을 당한 방하수소년의 생명을 구원한 흥남비료공장 병원외과집단과 함흥의학대학 학생들의 아름다운 소행자료에 기초하여 창작완성된 작품으로서 천리마시대의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5월 7일 이 가극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함경남도립예술극장
출연단체: 함경남도가무단(당시)

— 간단한 내용

가극은 5막 6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은 첫 부분에서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나날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들의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을 보여준다. 20년간 앉은뱅이로 고생하던 처녀가 걸어서 퇴원하며 장파렬로 입원했던 로동자 용진은 회복기에 들어선다. 이때 심한 화상을 입은 박영남소년이 병원에 실려온다. 소년의 치료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대담하고 새로운 치료대책이였다.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을 앞두고 경험과 의술만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적경향과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외과과장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으면서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한다. 여기에 의료집단과 대학생들, 용진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입원환자들이 모두 떨쳐나선다. 영남이의 상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회복되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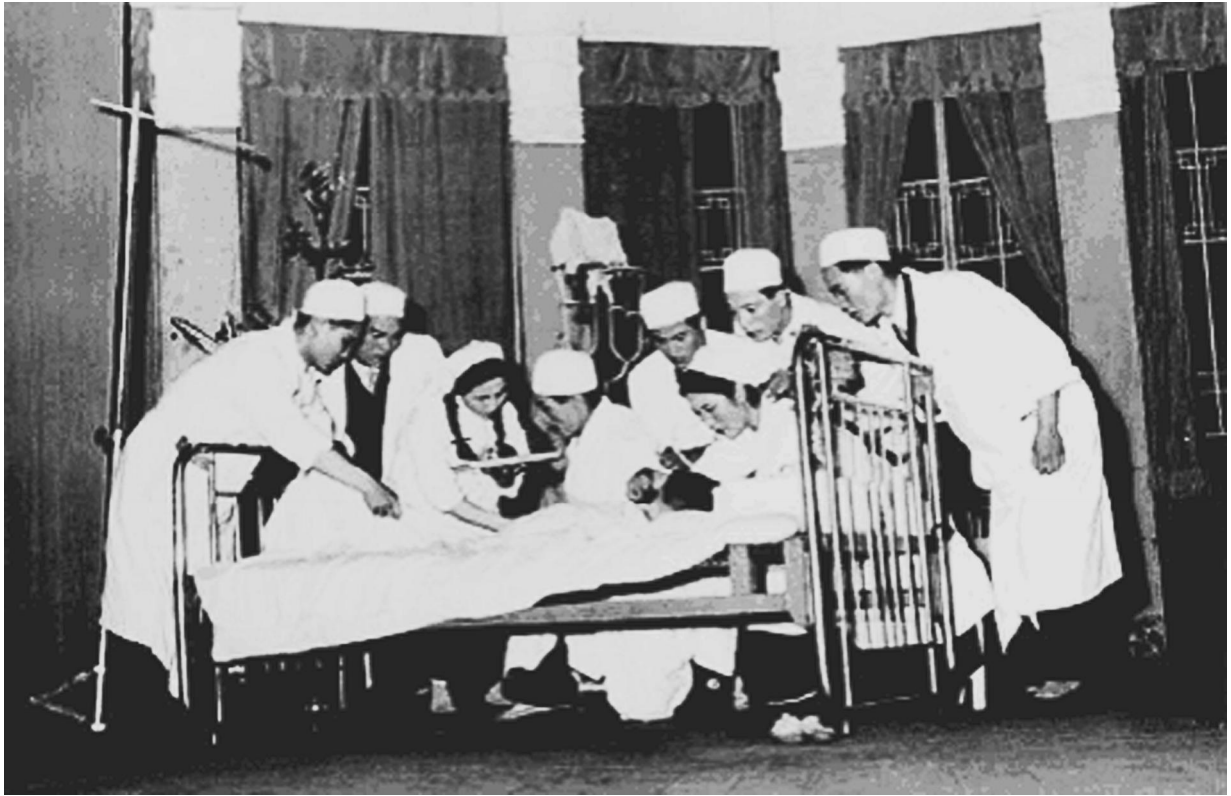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며 친히 편지까지 보내주신다. 방송을 통하여 전달되는 어버이수령님의 편지내용을 감격에 목메여 새겨듣고있던 외과과장은 영남이를 껴안으며 수령님의 말씀대로 인민의 생명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복무할것을 결의다진다. 마지막부분에서 가극은 영남이의 퇴원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주제사상적내용

가극은 어느 한 병원 일군들이 화상당한 소년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미풍을 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인간애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보시고 참 잘 만들었다고, 이 작품에는 가식이 하나도 없다고,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사실주의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우집단이 매우 든든하고 좋은 예술인들을 가지고있다고, 작곡이 잘되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작품에서 로동자들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장면이 좋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좋은 작품을 창작한 창조집단에 감사를 주시였다.

— **주요노래**

• 노래《과장의 노래》

주인공은 영남이의 치료대책문제를 놓고 생각하던 끝에 밖에 나갔다가 어깨가 떨어진 볼품없이 된 눈사람을 보게 된다. 그는 눈사람의 어깨를 보강해준다. 눈사람은 다시 귀여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장은 이런 방법으로 영남이의 피부를 이식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는 영남이를 살릴수 있는 방도가 바로 피부이식수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깊은 생각에서 깨여나지 못한다. 그는 살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것이 무슨 의사인가고 자신을 타매하며 영남이의 수술문제를 놓고 피로와한다. 바로 이 장면에서 노래가 나온다.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으려는 뜨거운 지향과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그의 고상한 풍모를 반영하고있다.

노래선률은 복합3부분적구조를 가지고있다.

가사에서는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난관을 몰아치는 눈보라에 비유하고있다.

첫째 부분에 영남이에 대한 주인공의 애정과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 비껴있다면 셋째 부분에서는 영남이의 꿈을 지켜주려는 주인공의 애정의 감정이 보다 더 뜨겁게 안겨오고있다.

노래는 주인공 강성준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의사로서의 그의 량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그의 성격을 음악화하는 대표적인 곡으로 된다.

과장의 노래

천천히
작사 집체, 작곡 고인환
p Em
Em/B
Em
자 유 로 운 창 —공 에 — 나 래 를 치 — 며
Am
Em
Am
Em
달 나 라 로 — 가 겠—다 는 꿈 — 많 은 영 남 이
mp Em
G/B
B
천 진 한 어 린 새 가 — 나 래 를 치 — 며
p Am7
Am6
Bm
어 지 러 운 — 꿈 속 에 서 — 헤 매 이 다 — 니
열정을 안고
3
mf Bm
눈 — 보 라 야 — 함 부 로 퍼 붓 지 말 —
Bm
Em
라 —너 에 게 시 들 어 질 꽃 봉 오 리 아 니 다 —
D
mp G
mf Am/E
Am6
붉 은 — 넥 타 이 를 자 랑 —스 레 날 리 며 공 산 주 의 꽃 동 산 에

가극 《붉게 피는 꽃》

가극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가극을 발전시키며 민족음악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극에서 고질적인 결합의 하나였던 쐑소리를 없애고 맑고 부드러운 소리로 새롭게 창조된 현실주제가극의 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1(1962년) 8월 1일 몸소 가극을 보아주시였다.

장소: 평안북도립예술극장(당시)
출연단체: 평안북도가무단(당시)

ㅡ 간단한 내용

서막, 종막, 6개의 장으로 된 가극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원쑤앞에서도 두려움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용감하게 싸운 평안북도 운산의 안옥희녀성의 투쟁실화에 기초하여 만든것이다.

가극의 서막에서는 안옥희의 남편이 전선으로 떠난다. 1, 2장에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평안북도 운산의 친정집에 찾아온 안옥희가 놈들의 폭격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난 사이에 미제침략군놈들이 집에 달려들어 불을 지르고 안옥희의 아들 영수를 불붙는 집에 넣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장면과 샘골로인의 길안내를 받아 정찰나왔던 중국인민지원군 리주황이 영수를 구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있다. 제3장에서는 전우들과 고향이야기를 나누며 원쑤

를 격멸할 굳은 결의를 다지는 주인공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3장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정신과 함께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인민과 미제침략자들사이의 첨예한 계급적모순, 심각한 극적갈등을 보여주고있으며 새로운 사건진행에로 넘어갈수 있는 극적전제를 마련한다. 4, 5, 6장은 리주황이 적들에게 붙잡혔다는것을 알고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적의 소굴로 들어간 주인공 안옥희가 리주황을 구원하고 놈들에게 발각되자 수류탄으로 적들을 전멸시키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작품의 종막에서는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의 전우들과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있다.

— **주제사상적내용**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애국의 넋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붉게 핀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보아주시고 민족음악으로 현실생활을 그린 극을 하니 좋다고 하시면서 계급교양에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시였다.

— **주요노래**

• 노래 《동호의 노래》

노래는 서막에서 주인공의 남편인 동호가 전선으로 떠나면서 부르는 곡이다.

노래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아름답고 억세게 피여나는 붉은 꽃마냥 참되게 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애국의 한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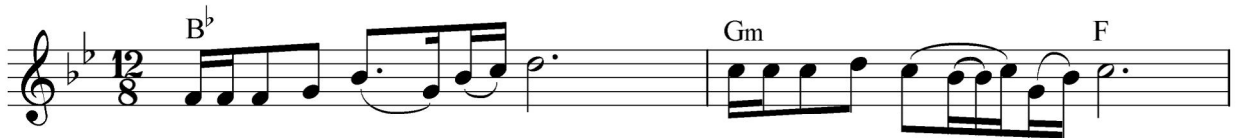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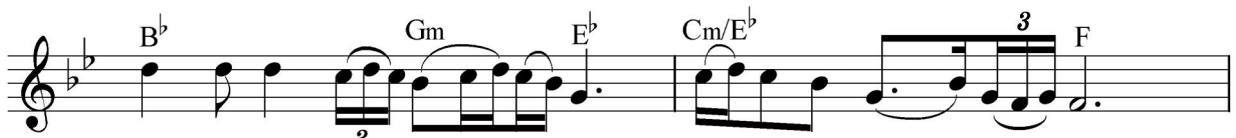
노래가사에서는 조국을 위해 바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을 아름답고 붉게 피는 꽃에 비겨 형상하였다.

가사 1절에서는 단순히 자연의 꽃이 아니라 오래오래 피는 꽃, 그 어떤 비바람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꽃으로 붉게붉게 피리라는 주정토로를 통하여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투쟁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가는 조국의 아들로 아름답고 참되게, 억세게 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가사 2절에서는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밝은 해빛과 수천수만송이의 꽃들이 피여나는 꽃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귀중한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에서는 우리모두의 요람인 꽃밭과도 같은 조국을 지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수호성전에 떨쳐나서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높은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노래선률은 민요풍의 선률로서 대악절형식에 의거하고있다.

선률은 조국을 위한 한길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를 랑만적인 정서로 펼쳐보이고있다.

동호의 노래

내 마음에 피는 꽃 가슴깊이 피는 꽃
밝은 해빛 받으며 붉게붉게 꽃피리
우리 영수 귀엽게 꽃밭속에 자라며
행복의 꽃 활짝 핀 우리 꽃밭 지키리

- 영수와 주황의 2중창

노래는 가극의 1장에서 주인공의 아들 영수와 중국인민지원군 리주황의 2중창으로 불리워지는 곡이다.

노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길에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피여난 애국의 붉은 꽃의 아름다움과 억센 모습을 통하여 반미항전의 길에서 변함없이 싸워가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노래가사는 조국을 위한 수호전에 떨쳐나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붉은 꽃에 비겨 형상적으로 서술하였다.

노래는 민요풍의 선률로서 서로 다른 장단리듬에 의하여 네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첫번째 소절부터 14번째 소절(가사 《아름답게 피였네》)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15번째 소절부터 26번째 소절(가사 《산에 들에 꽃피여》)까지이며 셋째 부분은 27번째 소절부터 30번째 소절(《꽃밭으로 모여라》)까지, 네번째 부분은 31번째 소절부터 마감까지이다.

첫 부분부터 둘째 부분의 가사는 이 땅우에 피여나는 수천수만송이의 아름다운 《붉은 꽃》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어디 가나 피여나고 조선에서도 중국에서도 피여나며 오래오래 붉게붉게 피여나는 꽃,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모두 아름다운 꽃에 대한 사랑과 정이 가사의 구절구절마다에서 풍기고있다.

셋째 부분의 가사는 조국의 품으로 비유한 꽃밭으로 너와 나 할것없이 모두 모이라는 구절을 통하여 우리 인민모두는 조국과 떨어져 한순간도 살수 없고 참다운 인생

을 꽃피울수 없음을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셋째 부분 가사는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의 가사의 내용을 주제사상해명에로 이끌어가는 발전단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넷째 부분은 앞의 부분들의 내용을 결속짓는 부분으로서 불소나기가 쏟아져도 영웅조선 이 땅우에 붉은 꽃이 피리라는 내용을 통하여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결의를 반영하고있다.

노래는 두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며 따라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는 특색있는 2중창형식을 취하고있다.

노래선률은 첫 부분을 반굿거리장단 두개를 한 단위로, 둘째 부분을 엇모리장단으로, 셋째 부분을 4/4박자의 잦은모리장단으로, 마감은 다시 반굿거리장단으로 안받침하고있다.

이러한 장단들의 안받침으로 하여 노래선률은 민족적이면서도 밝고 랑만적이고 지향적인 정서로 흐르고있다. 선률의 흥겹고 즐거우며 락천적인 성격은 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과 락관, 소중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 조국수호의 드높은 열정과 기개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 선에 -도꽃피 고
중 국에 -도꽃피 네
붉 게붉 -게-피였 네
2중창
붉 게붉 -게꽃피 네
아 름답 -게-피였 네
엇모리
어 느꽃-이
고 -운-가 모 두 모-두 곱 -구-나
어 디 가-나 고 -운-꽃
언 제 든-지 피 는-꽃
마 음속 에 꽃 -피-여 -
산 에 들-에 꽃 피 여
친 한동 무내 동무
마 음고 운내 동무
모 두모 두모 여라
꽃 밭으로모 여라
폭넓게
주황
꽃 보다 -도더고 운
이 나라 -의인민 들
불 소나 -기퍼붜 도
마 음속 -에-꽃 피 리

백일홍이 피였네 곱게곱게 피였네
붉게붉게 피였네
오래오래 피는 꽃 붉게붉게 피였네
조선에도 꽃피고 중국에도 꽃피네
아름답게 꽃피네 여기저기 꽃피네
어디 가나 고운 꽃 언제든지 피는 꽃
(관현악간주 4소절)
어느 꽃이 고운가 모두모두 곱구나
붉은 꽃이 곱구나 너도나도 곱구나
친한 동무 내 동무 마음 고운 내 동무
모두모두 모여라 꽃밭으로 모여라
꽃보다도 더 고운 이 나라의 인민들
영웅조선 이 땅에 붉은 꽃이 피리라

- 안옥희의 노래

노래는 주인공 안옥희가 중국인민지원군 리주황이 원쑤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어이 그를 구원하리라 마음 다지는 장면에서 불리워진다.

노래는 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목숨바쳐서라도 기어이 구원하려는 안옥희녀성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조국의 붉은 꽃으로 아름답게 피여나려는 그의 성격을 잘 살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민요풍의 선률로서 진양조풍의 장단성에 의거하고있는 노래선률은 근엄한 정서적성격을 띠고있다.

노래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1절과 2절의 선률에서 첫 두 소절만 거의 같이 구성하고 나머지 소절들은 다르게 전개한것이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국인민지원군전사를 구원하려는 주인공의 결심을 보여주고있다.

1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대목이 가사의 마감구절에 있는데 이때 선률은 동도진행과 순차진행이 결합된 음조의 점차 상승진행으로 전진적성격속에 표현하였다.

그러나 2절의 선률에서는 박자를 12/8로 교체하고 1절선률에는 거의 없었던 이강음적요소와 부점소리표들을 적극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보다 진취성있고 기백이 있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선률진행은 중국인민지원군전사를 기어이 구원하리라는 주인공의 굳은 의지를 1절과 다른 음악정서로, 다시말하여 락관과 신심에 넘친 정서로 반영하고있다.

18/8
Fm
내 비 록 연-약 한 녀 자 의 몸 이 지—만
B♭m Fm
목 숨 걸고나서리라- 그 동 무-구 원 하리 라
Fm B♭m A♭ B♭m
귀 여-운 우리영-수 구원해 준 지원군 동-무 —
Fm E♭ Fm
미국놈께 잡히-여 사 경 에—놓-였 으나 —
A♭ B♭m Cm
내 어이- 내 어이- 가 만있으 랴 내 어이- 내 어이-
Fm 2 2절 Fm
가만있으 랴 — 또다시지주세상안오게—하기위—해
B♭m A♭ 12/8
우리 영수우리영옥이 행 복한-앞날 위 해 나는 가-리라
A♭ Fm B♭m Fm
목숨 바—쳐 나 는—가-리라 목 숨 바—쳐 —— 서
B♭m A♭ E♭ Fm
지원군 동-무 구 원하 려 나 -는가 -리 라 —

창극 《배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1일에 몸소 창극을 보아주시였다.

장소: 평양대극장
출연: 국립민족예술극장(당시)

— 간단한 내용

박수무당의 형상을 통하여 미신행위의 허황성을 풍자적수법으로 폭로하고있다. 황해도 어느 마을에 퇴직한 세 재상이 서로 이웃해서 살았는데 재산은 많으나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 명산대찰에 세집 부인들이 같이 가서 100일기도를 하여 낳은것이 모두 딸들이였다. 리판서의 딸은 세월네, 김정승의 딸은 네월네라 이름을 지었으며 경상감사의 딸은 백의 백곱이나 오래 살라고 배뱅(백백)이라고 지었다. 배뱅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그의 부모들은 잘사는 정도령과 혼사를 약속한다. 배뱅이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을 때 그 마을에 사는 명도가 배뱅이를 마음에 두고 사랑을 고백한다. 배뱅이는 명도와 사랑을 약속한다. 명도는 정도령이 례장을 보내기 전에 살 곳을 마련하고 데리러 오겠다고 배뱅이에게 약속을 남기고 떠나간다. 배뱅이는 명도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정도령이 함께 살자고 계속 청원한다. 명도를 생각하며 심화병을 앓고있던 배뱅이는 정도령의 례장이 오자 그만 그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만다. 부모들은 너무 기가 막혀 배뱅의 죽은 넋이라도 불러올가 하여 팔도의 이름있는 무당을 모두 불러 3년동안이나 굿을 하나 죽은 혼신이 돌아올리 만무하다. 이러한 때 평양에 살던 한 난봉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객주집로친에게서 배뱅이네 집에서 굿을 하는 사연과 그 집 래력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가짜 박수무당(남자무당)이 되여 배뱅이네 집을 찾아가 굿을 하는데 배뱅이가 자랄 때부터 례물의 내용까지 신통히 알아맞힌다. 부모들은 혼이 빠져 진짜배뱅이의 혼신이 온줄 알고 박수무당에게 많은 재물을 내놓는다. 그러다가 객주집로친에 의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

— 주제사상적내용

량반관료들의 우매성과 무당들의 미신행위의 허위성을 풍자적으로 폭로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극을 보시고 《배뱅이》는 현시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노래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며 아리랑노래들이 많지만 보다 더 현대적인 아리랑노래를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 **주요노래**

• 노래 《사랑가》

노래는 명도와 배뱅이가 부모의 억지혼례를 피하여 량반이 없는 곳을 찾아 이 세상 그 어디라도 가서 근심걱정없이 살 그날을 그려보며 앞날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는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소박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는 배뱅이의 깨끗한 마음을 반영하고있다. 동시에 전라도 지리산의 홍류동, 강원도 금강산의 만폭동, 릉라도와 관서팔경 등을 꼽으며 우리 나라 팔도강산 그 어디에 가서도 살아갈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래일에 대한 그들의 꿈과 희망, 앞날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 노래 《명도의 노래》

배뱅이와 사랑을 언약하고 떠나갔던 명도가 팔도강산을 돌아다녀보고 배뱅이와 살 곳을 정해놓고 그를 데리러 오는 장면에서 불리워진다.

노래는 오래동안 보지 못한 련인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이제 만나게 되리라는 무한한 기쁨을 반영하고있다.

—상식—

남 도 창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도지방 민간가수들의 전통적인 가창양식.

남도창의 전형은 극적장편서사시가인 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화창가수들속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남도창은 일반적으로 가수들의 가창에서 우리 인민의 자연스러운 발성법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남자인지 녀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쐑소리(탁성)를 본색으로 하고 있다.

판소리의 가창양식이 쐑소리를 본색으로 하는 남도창의 전형으로 되고있는데로부터 판소리를 흔히 남도창이라고 한다.

남도창은 판소리음악뿐아니라 판소리가수들이 부르는 단가와 남도민요인 《륙자배기》, 창극 등 과거 우리 민족음악의 일련의 양식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음악유산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남도창의 부정적요소를 극복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가극 《녀성혁명가》

현실주제의 작품을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강원도 가무극장의 창조집단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투사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민족가극 《녀성혁명가》를 창작완성하였다.

주체54(1965)년 5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가극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장소: 강원도가무극장

출연단체: 조선인민군협주단

— 간단한 내용

6개의 장으로 구성된 가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한 녀성혁명가의 혁명정신과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머슴군의 딸로 태여난 옥순이는 아버지가 고역끝에 세상을 떠나자 몸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격분한 옥순이는 지주놈을 절구공이로 까눕히고 혁명군에 입대하여 3년전에 헤여졌던 애인과도 만난다. 옥순이는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믿음직한 녀성혁명가로 성장한다. 어느날 그는 꼬마대원 민호와 함께 임무를 받고 길을 가다가 일본수비대와 맞다들게 된다. 옥순이는 민호에게 정찰자료를 넘겨주고 자기가 적들을 유인하다가 체포된다. 유격대에서는 그의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전투준비를 다그친다. 놈들은 비밀을 알아내려고 옥순이를 고문하고 회유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는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도 떳떳이 노래를 부르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유격대원들이 원쑤들을 족치고 옥순이를 구원한다.

— **주제사상적내용**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극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요를 바탕으로 하니 우리의 감정에 맞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극을 민요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악기를 발전시키면 민족가극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3. 재형상한 가극

가극 《홍 루 몽》

18세기 중국 청나라작가 조설근이 창작한 장편소설 《홍루몽》에 기초하고있는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60년대에 창극으로 각색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98(2009)년에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가극으로 재창조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홍루몽》을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 지향에 맞게 현대화하여 창극으로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주체51(1962)년 12월 완성된 창극 《홍루몽》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작곡이 잘되였다고, 곡조도 좋고 춤추는 장면에서 중국곡도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작품을 더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창극《홍루몽》창조사업에서 제기되였던 편향들이 극복되고 완성되게 되였다.

주체52(1963)년 1월 10일 또다시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번보다 좋아졌다고, 쐑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로 하니 좋다고 하시면서 소설이 긴데 각색을 잘하고 가사도 듣기 좋게 잘 지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손님들과 창극《홍루몽》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작품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주체97(2008)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어버이수령님의 지도에 의하여 창작공연되였던 창극 《홍루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가극으로 재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창조사업을 피바다가극단에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극창조에 앞서 피바다가극단의 성악배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이 준비한 가극노래들을 들어주시고 노래형상과 가극창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주체97(2008)년 3월과 4월 여러차례에 걸쳐 가극《홍루몽》 재창조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5대혁명가극과 같은 예술에서 주체가 선 작품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고전작품들과 다른 나라 작품들을 재현하여 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극 《홍루몽》창조를 위해 주단역배우들을 선발할데 대

한 문제, 편곡력량을 잘 꾸리고 음악을 배합관현악으로 할데 대한 문제, 무용을 새롭게 창작하며 무대미술을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흐름식립체무대미술로 할데 대한 문제, 가극창조사업에 지난 1960년대에 창극《홍루몽》에 참가하였던 배우들을 동원시킬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불편없이 창조사업을 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8(2009)년 한해동안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 작품을 몸소 보아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주체98(2009)년 3월 이 작품을 보아주시고 원전인《홍루몽》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가부장적전통이 지배하는 귀족가문의 조락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봉건시기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인기를 끈 고전소설인데 이런 유명한 작품을 조령출선생과 리면상선생이 놀랄 정도로 각색도 잘하고 노래도 잘 지었다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가극은 작품도 좋고 형상도 완전무결한 멋쟁이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인공역을 맡은 배우들과 신인배우들이 잘한다고 평가하시면서 배합관현악울림도 정말 듣기 좋으며 춤장면도 중국맛이 나면서 화려하게 되였다고 하시며 제4장 1경 《대관원의 꽃바다》가 정말 황홀하다고, 무대장치가 좋고 무대미술이 특색있고 화려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곡에서 선률은 좋은데 해금을 약하게 써먹었다고 하시면서 서곡을 관현악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해금으로 4소절정도 울려주다가 관현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금을 잘 써먹는것은 결국 호금을 련상케 하여 중국맛을 살리는데 좋으며 첫 음악제시부부터 중국맛을 독특하게 살리는것과 함께 작품이 비극이라는것을 전제해주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출연하는 시녀들의 옷색갈과 자막을 잘 살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가극을 보아주시고 가극 《홍루몽》을 재창조하여 내놓은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면서 가극 《홍루몽》을 중국맛이 나게 형상하기가 어렵지만 잘 만들어내놓았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첫 포성을 울린 피바다가극단이 5대혁명가극의 고귀한 유산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예술단체답게 가극 《홍루몽》창조과정을 통하여 능력있고 관록있는 예술단체로서의 실력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의 주체예술의 위력한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 가극해설

ㅡ 주제사상적내용

청나라 말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여 봉건귀족생활의 부패상과 착취계급들의 악랄성을 보여주면서 봉건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무제한한 구속과 봉건적인 신분차별을 철폐할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대본: **김일성**상계관인 조령출
작곡: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리면상
등장인물: 가보옥
　　　　　림대옥
　　　　　설보채
　　　　　자견: 대옥의 시녀
　　　　　대부인: 대옥의 할머니

— 이야기줄거리

6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가극은 보옥의 고모4촌인 림대옥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할머니에게 의지하여 살기 위해 찾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씨가문의 좌상인 대부인의 총애를 받는 이 가문의 세습자 가보옥과 지체가 낮은 귀족의 딸 림대옥은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 서로 리해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순결한 사랑은 봉건적질서를 철저히 존중하는 가씨가문사람들의 방해로 하여 이룩될수 없게 된다.

보옥의 결혼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자 가씨가문에서는 가풍에 잘 맞지 않는 대옥을 배척하고 부자집딸이며 봉건적질서에 충실한 보옥의 이모4촌 설보채를 대상자로 정하며 보옥을 속이기 위해 대옥이와 결혼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설보채와 강제결혼시킨다.

시녀를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된 대옥은 앓던 몸인데다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아예 자리에 눕게 되며 보채가 탄 가마가 보옥의 집에 도착하는것과 동시에 숨이 끊어지고 만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얼굴가리개를 벗겨보고 비로소 자기가 속히운것을 알게 된 보옥은 대옥이를 찾으며 통곡하나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원통하게 죽은 대옥이를 생각하며 눈물속에 몸부림치던 보옥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찬 봉건사회를 저주하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집을 뛰쳐나간다.

선군시대에 새롭게 재창조된 가극 《홍루몽》은 원작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피바다》식가극창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중국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주요노래

• 《사랑가》

노래는 가극의 주제가로서 제2장 2경 《사랑의 달밤》장면에서 보옥과 대옥의 2중창 및 방창으로 불리워진다.

가극에서 노래는 보옥과 대옥의 사랑선에서 주인공들을 성격화하면서 순결한 사랑을 갈라놓는 봉건사회의 신분차별을 폭로비판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노래는 보옥과 대옥의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벗을 부르는 찌꼬리마냥, 나비 기다리는 꽃송이마냥 마음속으로 그리던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개방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열렬한 사랑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에는 또한 쌍쌍이 날아예는 나비와도 같이 다정하게 봄날을 즐기려는 주인공들의 가슴속 심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랑만적인 색채가 진하게 느껴진다.

노래의 감정세계는 민족적향취가 짙으면서도 아름다운 선률로 하여 더욱 뜨겁게 형상되고있다.

12/8박자에 기초하여 라내림대조로 불리우는 선률은 복합2부분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단순2부분으로 이루어진 노래의 첫 부분 선률에서는 민족적색채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점차적으로 고조되다가 정서적으로 폭발되면서 주인공들의 사랑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일정한 선률형태로 반복되면서 정서적축적을 이루다가 터뜨리는 둘째 부분 선률에서는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확신감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으려는 심정을 대변하듯 의지적인 정서로 흐르다가 마지막에 녀성방창으로 울려주는 대목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확인해주듯 여유있고 서정적으로 흐르면서 깊은 정서적여운을 남기고있다.

• 《림대옥의 수놓는 노래》

노래는 제2장 1경에서 대옥이 정성껏 꽃수를 놓을 때 대옥과 녀성방창으로 불리워지며 같은 장에서 대옥이 보옥에게 꽃수를 놓은 패물주머니를 넘겨줄 때 관현악으로 울린다.

가극에서 노래는 대옥이의 사랑선에서 그를 음악적으로 성격화하면서 극발전을 심화시킬수 있는 감정정서적바탕을 마련해주면서 보옥에 대한 대옥의 애틋한 사랑의 감정과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의 가슴속깊이 내재된 미래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대옥의 이러한 감정세계를 통속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어들을 통해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특징지어주고있다.

노래가사의 사상감정은 다정다감하면서도 풍만한 서정으로 일관된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있다.

6/8박자의 리듬을 타고 화소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률은 복합2부분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단순2부분으로 된 첫 부분의 선률정서는 대옥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이런듯 밝고 아름답다.

선률은 첫 부분에서 마치 대옥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감정을 속삭이듯 동도진행과 순차진행이 특색있게 결합되여 처음부터 밝은 정서속에 다정한감을 주면서 아기

자기하게 흐르고있다. 리듬적으로 확대될뿐아니라 음구적으로도 보다 높은 위치에서 정서적으로 승화되는 선률진행은 가슴속에 품고있는 사랑의 감정이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념원을 음악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선률은 둘째 부분에서 마치 대옥이의 사랑의 꿈을 소중히 감싸주듯 보다 내심적인 감정으로 첫 부분과 대조되여 여유있게 흐르면서 보옥에 대한 애틋한 정과 가슴속에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한 대옥이의 수집은 모습을 엿보게 한다.

선률은 마지막악단에서 첫 악단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정서적통일을 이루는것과 함께 뜨겁고도 열렬한 대옥이의 사랑의 감정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종결되고있다.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뿌슈낀의 운문시에 기초하여 1879년에 챠이꼽스끼가 가극으로 창작하였다.

가극은 주체47(1958)년에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가극으로 창조하였으며 그후 주체99(2010)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재형상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5월 4일 평양음악대학 학생들이 창조한 가극《예브게니 오네긴》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로씨야의 가극을 처음으로 형상하였는데 잘하였다고, 다른 나라의 고전작품을 형상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 형상하였다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에 실력있는 교원들이 많고 그들이 학생들을 잘 키워냈기때문에 그들의 예술적형상수준도 높다고 치하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이번 공연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인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더 훌륭한 작품들을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4월 3일 무대부문에서 지난시기에 창조하였던 다른 나라 예술작품들과 우리 나라 고전작품들을 재현하여 무대에 올리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98(2009)년 6월 7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창조집단이 준비한 가극《예브게니 오네긴》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잘하였다고, 노래와 음악을 높은 예술적수준

에서 특색있게 잘 형상하였다고 고무해주시면서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필요한 작품을 품을 들여 더욱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곡가가 쓴 원곡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우리 식으로 잘 다듬을데 대한 문제, 관현악반주의 형상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무대의상제작에서 옷색갈과 형태에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학의 모든 교원들과 학생들이 마음을 든든히 먹고 달라붙어 올해(2009년)안으로 가극을 완성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으며 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창작력량보장문제, 물질적조건보장문제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알아보시고 다 풀어주시였다.

주체98(2009)년 8월 26일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의 장면발표회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가극《예브게니 오네긴》 장면발표회를 잘하였다고, 장면발표회에 출연한 교원, 학생들이 가극의 극적성격에 맞게 노래와 연기를 잘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대학에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을 빨리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대학에서는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창조사업에서 요구성을 더 높이고 21세기의 혁신적안목에 1970년대의 창조기풍을 가지고 달라붙어 가극을 손색이 없게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을 원만히 창조하려면 노래와 연기연습도 잘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무대미술과 장치, 조명, 환등, 의상, 소도구를 준비하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시며 이를 위한 물질기술적보장대책까지 다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9(2010년) 2월 5일 완성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을 또다시 보아주시고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으로 가극을 훌륭히 재창조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잘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전반적으로 특색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작품은 창작된지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도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 가극해설

— 주제사상적내용

이 작품은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할 청년들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봉건귀족층의 부패성과 19세기 로씨야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있다.

ㅇ주체47(1958)년 5월 4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

출연단체: 평양음악대학(당시)

장소: 모란봉극장

ㅇ주체99(2010)년 2월 5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
출연단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장소: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음악당
등장인물: 예브게니 오네긴(바리톤)
라리나: 녀지주(메조쏘프라노)
따찌야나: 라리나의 큰딸(쏘프라노)
올가: 따찌야나의 녀동생(메조쏘프라노)
렌스끼: 올가의 약혼자(테너)
그레민: 공작(바스)

ㅡ 이야기줄거리

3막으로 구성되여있다.

때와 장소: 1820년경, 로씨야의 어느 한 마을, 뻬쩨르부르그

제1막은 3개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은 녀지주 라리나의 저택의 정원이다.

딸 따찌야나와 올가의 노래소리를 집안에서 들으면서 라리나는 유모를 상대로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하고있다.

수확한 보리단을 가지고 소작인들이 등장한다.

여기에 올가의 약혼자 렌스끼가 친우 오네긴을 데리고 방문하여온다. 따찌야나의 순수한 마음은 일시에 상류계의 청년인 오네긴에게 포로되며 오네긴도 이 소녀에게 상당한 흥미를 가진다.

렌스끼는 오로지 올가에 대한 사랑을 바치며 아리아를 부를 정도이지만 올가는 그러한 그의 진지함을 놀려줄 기미이다.

제2장은 따찌야나의 방이다.

따찌야나는 불안한 생각에 잠겨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유모에게 청춘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따찌야나의 달아오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알지 못할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힌 그는 오네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쓴다.

이윽고 날이 밝자 그는 유모에게 그 편지를 부탁한다. 부끄러움으로 책상에 얼굴을 수그리는 따찌야나의 마음을 관현악은 웅변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제3장은 다시금 녀지주 라리나의 저택의 정원이다.

농사군처녀들의 가벼운 노래소리가 멀어지자 따찌야나는 자신의 소행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신을 책망하고있다.

여기에 오네긴이 온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에 있는 따찌야나를 향하여 무정하게도 그는 편지의 내용을 비평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을 남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당신을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있다는 등으로 참으로 분

별있는체 하면서 설득한다.
따찌야나는 자기의 사랑의 꿈이 깨여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제2막은 2개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은 라리나 집의 무도회장이다.
따찌야나와 올가도 춤추고있다.
놀고먹는 사람으로서 별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는 오네긴의 평판은 녀성들사이에서 매우 좋지 않다.
녀자들의 뒤소리를 얼핏 들은 오네긴은 시뜩하여서 밸풀이로 올가에게 접근한다. 들뜬 올가는 역시 렌스끼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네긴과만 춤추기를 계속한다. 하여 렌스끼와 오네긴의 관계는 점차 험악한 분위기로 되여간다.
따찌야나는 애인과 친우의 배반에 점점 분노가 더해가는 렌스끼와 그것을 야유하면서도 후회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오네긴을 안절부절하며 지켜본다. 그들의 대립을 집주인 라리나와 여러 손님들이 말리지만 이미 때가 늦어 두사람은 결투를 하는데까지 이른다.
제2장은 물방아간근처이다.
이른아침 렌스끼는 오네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지나간 날들을, 그토록 열렬하게 사랑한 올가의 일을 생각한다.
이윽고 오네긴이 도착한다.
이전에는 친우이지만 지금은 적으로 된 이 현실을 두사람은 각각 믿어지지 않는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화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높은 두사람인것이다.
중개인 자레쯔끼의 어마어마한 지시에 따라 그들은 권총에 의한 결투를 한다. 오네긴의 탄환이 명중하자 렌스끼는 넘어진다. 그옆에 급히 다가온 오네긴의 얼굴에는 후회와 번뇌가 짙게 어려있다.
제3막은 2개 장이다.
제1장은 뻬쩨르부르그에 있는 그레민공작저택에서의 무도회장이다.
친우를 결투로 죽였으므로 방랑의 려행을 떠났던 오네긴은 그 상처도 완치되지 않은채로 귀국하여 이 무도회에 곧바로 왔지만 전과 같이 춤에 참가할 기분은 없다.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문뜩 오늘날 그레민공작부인으로 된 따찌야나의 모습이 안겨온다. 그것은 이미 오네긴이 가볍게 대해주던 소녀와는 다른 아름답고 성숙한 녀인이였다.
따찌야나도 오네긴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한다.
그레민공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오네긴을 향하여《사랑은 나이에 관계없다. 그 녀자는 나에게 있어서 천사의 광채》라고 태연한 어조로 말하며 처를 소개한다.
따찌야나가 나간 후 오네긴은 또다시 어리둥절하여《저 녀자가 따찌야나인가, 옛날 내가 차겁게 설교한것이 저 처녀인가?》라고 하면서 격하게 타오르고있는 그 녀자에 대한 사랑을 독백하는것이다.
제2장은 그레민공작저택의 한 방이다.
여기서 따찌야나는 오네긴을 만난다. 그 녀자의 마음도 격하게 동요하며 과거로부터 갑자기 소생한 사랑, 억누를수 없는 사랑앞에서 당황해하고있다.

심한 고통속에서 따찌야나는 자기를 이겨낸다. 두사람의 격렬한 심리갈등을 묘사하는 음악속에 오네긴의 간청을 고통스럽게 거절한 따찌야나는 일어나 나간다.

오네긴은 홀로 《이 수치, 이 슬픔》라고 부르짖는다.

— 주요노래

• 《렌스끼의 아리아》

2막 2장에서 렌스끼가 결투에 나서기 전날밤에 의혹과 고통속에 모대기며 부르는 노래이다.

가사는 뿌슈낀의 운문시에 기초하여 작곡가자신이 썼다.

가극에서 열정적인 젊은 시인인 렌스끼는 귀족청년인 오네긴에게 자기의 애인 올가의 언니인 따찌야나를 소개하여준다. 이것을 기회로 따찌야나에게는 사랑이 움텄으나 오네긴은 그의 뜨거운 마음을 랭담하게 짓밟으면서 오히려 렌스끼에게 불만을 품고 올가를 유혹함으로써 두 친우사이에 결투가 약속되게 된다.

젊어서 비명에 죽게 되는 렌스끼가 부르는 아리아에는 밝은 날 새벽에 결정될 자기운명에 대한 위구심과 올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있다.

《렌스끼의 아리아》 중에서

• 《그레민의 아리아》

3막 6장의 경축적인 사교계의 무도장면에서 불리우는 노래이다.

본의아니게 결투에 나서서 친우 렌스끼를 총살하고 무위도식하면서 떠다니던 오네긴은 뻬쩨르부르그의 무도장에서 뜻밖에 사교계의 녀왕으로 나타난 따찌야나를 보고 몹시 놀란다.

《그레민의 아리아》는 따찌야나에 대하여 묻는 오네긴에게 대답을 주는 공작 그레민의 노래이다.

노래에는 따찌야나를 안해로 맞은 후 불행은 먼 지난날의 일로 되고 비록 몸은 늙었지만 새생활의 보람과 기쁨을 찾은 그레민의 끝없는 행복감이 부드럽게 표현되고있다.

《그레민의 아리아》 중에서

4. 외국가극

《주체적인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려면 민족문학예술에 기초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진보적문학예술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 정 일

《피가로의 결혼》

1786년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모짜르트, 월프강 아마데우스(1756－1791)에 의해 창작되였다.

모짜르트는 윈고전주의음악의 대표자로 가극작품만도 《피가로의 결혼》(1786년), 《돈 쥬앙》(1787년), 《마술피리》(1791년)를 비롯하여 17편이나 창작하였다.

모짜르트는 가극 《피가로의 결혼》에서 귀족사회에 대한 강한 풍자와 비판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반귀족적인 경향성으로 하여 가극은 상연 초시기에 윈에서 환영을 받을수 없었다.

그가 창작한 가극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작가 보마르쉐의 3편으로 구성된 련속희곡을 각색한 작품이다.

보마르쉐가 창작한 희극의 제1편 《쎄빌랴의 리발사》는 젊은 난봉군 알마비바백작이 떠돌이리발사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처녀 로지나와 결혼하는 내용이며 제2편 《피가로의 결혼》은 알마비바백작의 시종으로 된 피가로가 백작부인과 짜고 그녀자의 몸종이며 자기의 약혼녀인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이고있는 백작을 골탕먹이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3편 《죄많은 어머니》는 백작저택에 와있는 귀족청년 케루비노가 백작부인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라는것이 밝혀지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가극 《피가로의 결혼》은 이 세편의 희극중에서 제2편의 내용을 담고있다.

가극은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동안에 일어난 일을 줄거리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보마르쉐의 원작에는 《하루동안의 대소동》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첫공연: 1786년 5월 1일 윈, 브르크극장
대본: 로렌쪼 다 폰테(이딸리아어)
연주시간: 3시간 15분
등장인물: 알마비바백작(바리톤)
백작부인(쏘프라노)
피가로: 백작의 시종(바리톤)
수쟌나: 피가로의 약혼녀(쏘프라노)
케루비노: 소년시종(쏘프라노)
마르첼리나: 하녀(메조쏘프라노)
바르똘로: 의사(바스)
바질리오: 음악교사(테너)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4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8세기초, 에스빠냐 쎄빌랴교외

작품에서는 귀족 알마비바백작의 시종 피가로가 상전인 백작과 맞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봉건귀족계급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평민계급의 반항정신도 보여주고있다.

백작의 시종 피가로와 백작부인의 시녀인 수쟌나는 결혼을 앞두고 그 준비로 분주하나 백작 알마비바는 그에 아랑곳없이 수쟌나를 롱락하기 위한 흉계를 꾸민다.

한편 피가로를 마음에 둔 하녀우두머리 마르첼리나는 돈을 꾼 피가로로부터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할 때에는 자기와 결혼한다는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를 위협한다. 그러나 백작의 비호밑에 강요되는 마르첼리나의 부당한 요구는 피가로가 마르첼리나와 바르똘로사이에 생긴 자식이라는것이 판명되는것으로 해결된다.

또한 백작의 기도를 눈치챈 백작부인이 수쟌나로 가장함으로써 결국 알마비바백작은 자기의 안해에게 수쟌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이로 하여 백작은 웃음거리가 되며 자기 모습을 드러낸 부인에게 쩔쩔매며 사죄한다.

가극은 부인이 백작을 용서하고 등장인물모두가 기쁨의 중창을 부르는 속에 막을 내린다.

작품은 희가극으로서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전통적인 아리아보다 안삼불음악을 많이 쓰고있다.

또한 가극음악이 전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특히 가극의 노래중에서 서곡과 1막에서의 피가로의 아리아 《더이상 못 날으리》, 2막에서의 케루비노의 아리에따 《사랑의 괴로움을 아는 그대》, 3막에서의 백작부인의 노래 《어디 있더냐 즐거움의 나날》,

4막에서의 수잔나의 아리아 《빨리 오라 그리운이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것으로 하여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ㅡ 주요노래

《더이상 못 날으리》

제1막 마지막장면에서 주인공 피가로가 케루비노에게 불러주는 아리아이다.

백작 알마비바가정의 심부름군총각인 케루비노는 사치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도 백작부인을 사모하고있던중에 그것이 백작에게 탄로되여 이 집에서 쫓겨나 군대로 가게 된다.

아리아는 이러한 장면에서 주인공 피가로가 주눅이 든 케루비노를 조롱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에는 더는 사치한 생활을 못하게 된 케루비노에 대한 희롱과 사나이로서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를 군대에로 떠밀어보내는 권고가 담겨있다. 노래는 락천성과 해학성으로 가득차있다.

《더이상 못 날으리》중에서

ㅡ상식ㅡ

아 리 아

유럽식가극에서 주로 절가화되여있지 않은 성악형식으로서 주인공이 관현악반주를 동반하여 성격적으로 부르는 서정적인 독창곡을 말한다.

아리아는 성악가의 높은 기교를 발휘할수 있게 어렵게 작곡되면서 주로 주인공의 주정을 토로하는 역할을 한다.

가요에서는 선률이 가사를 떠나 생각할수 없고 또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지만 아리아는 순수한 음악적론리의 비중을 높이는것이 일반적수법이다.

구조는 특징적인 중간부를 가진 3부분형식이 많고 이밖에 2중적2부분형식, 변주곡적 및 론도형식 등의것도 있다.

아리아는 전문가본위적으로 되여있어 인민들이 리해하기 힘들뿐아니라 절이 없이 길게 되여있어 음악과 극의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랑의 묘약》

도니제띠 가에따노(1791－1848)가 1832년에 창작한 가극이다.

도니제띠는 벨리니, 로씨니와 함께 19세기 전반기 이딸리아가극을 대표하는 3대작곡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20살때 첫 작품을 내놓은 뒤 30년동안 67편의 가극을 창작하였다.

가극 《사랑의 묘약》은 도니제띠가 34살때 창작한 41번째 작품이다. 그는 이 가극을 단 2주일동안에 완성하였다.

도니제띠는 가극 《사랑의 묘약》에서 희극적요소에 서정성을 더해줌으로써 종래의 단순한 희가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사랑의 묘약》이란 제목은 당시 빠리에서 상연되고있던 오베르의 가극 《묘약》에서 따온것이다.

가극《사랑의 묘약》이 빠리에 가서 공연된 후 오레르의 《묘약》이 무대에서 밀려나 더는 상연되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있다.

첫 공연: 1832년 5월 12일 밀라노, 테아또르 카노비아나극장

대본: 펠리체 로마니(이딸리아어)

연주시간: 1시간 50분

등장인물: 아디나: 농장주(쏘프라노)
네모리노: 마을청년(테너)
벨꼬레: 하사관(바리톤)
둘카마라: 약장사(바스)
쟈네따(쏘프라노)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2막으로 구성되여있다.

때와 장소: 19세기, 이딸리아의 어느 한 마을

가극은 마을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젊고 아름다운 농장주 아디나가 책을 읽고있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녀자에게 홀리운 네모리노가 멍청하게 바라보는 속에서 아디나는 지금 읽고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준다.

여기로 벨꼬레군조가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온다. 벨꼬레 역시 아디나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다.

이때 마을광장에 약장사 둘카마라가 도착하여 가짜묘약을 팔기 시작한다. 네모리노는 그것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믿고 사서 마시는데 그것은 실지로는 누거리 포도주였다.

취해버린 네모리노가 아디나에게 희떠운 태도를 취하자 이에 놀란 아디나는 기분이 나빠서 벨꼬레의 사랑의 청원을 받아들인다.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는 약설명서를 믿고있던 네모리노가 편안한 기분에 잠겨 있는데 그때 《군대 래일 아침 출발》의 명령이 내려지자 아디나와 벨꼬레는 오늘중으로 식을 올리려고 한다. 놀란 네모리노는 하다못해 래일 아침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모두에게 바보로 취급될뿐이다.

락심한 네모리노는 둘카마라에게 또 한병 묘약을 달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물어줄 돈이 없다. 그때 뜻하지 않게 만난 벨꼬레는 군대에 들어가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네모리노를 꼬인다. 네모리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는 다시 묘약을 사서 마신다.

네모리노가 홀로 좋은 기분으로 있는 곳으로 마을처녀들이 나타나 네모리노에게 알랑거리기 시작한다. 실은 대부자인 그의 숙부가 죽었으므로 유산이 들어온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그것을 본 아디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놀라지만 둘카마라로부터 사랑의 묘약을 사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갔다는 사연을 알자 네모리노의 진심에 감동된다. 그리고 벨꼬레로부터 계약서를 사고 그와의 결혼도 그만두게 된다.

벨꼬레는 단념하고 출발하며 묘약이 효력을 내였다고 대만족한 둘카마라도 사랑하는 애인과 마을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을을 떠나간다.

가극에서 네모리노가 부르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테너가수라면 누구나 부르고싶어하는 유명한 곡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ㅡ 주요노래

《남몰래 흘리는 눈물》

2막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네모리노의 로만스》라고도 한다.

아디나를 짝사랑하여온 네모리노는 무정한 그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사랑의 묘약을 살 약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먹고 군대에 입대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디나는 너무도 무정했던 자신을 질책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다.

노래에는 아디나의 눈물에서 자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네모리노의 기쁨과 감동이 표현되고있다.

서정이 풍만하게 흘러넘치는 부드럽고 우아한 통절가요형식의 노래이다.

물결모양을 그리며 일관하게 흐르는 분산화음반주가 노래의 정서를 돋구어준다.

이 노래를 로만스라고 부르는데는 높은 성악기교를 피하면서 서정적으로 씌여진 가요에 가까운 노래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너무 느리지 않게(Larghetto)

《남몰래 흘리는 눈물》 중에서

《이완 쑤싸닌》

1836년에 로씨야의 작곡가 글린까, 미하일 이와노비츠(1804－1857)에 의해 창작되였다.

글린까는 로씨야적선률에 유럽적인 기교를 융합시켜 로씨야민족음악을 새롭게 발전시킨 로씨야고전음악의 창시자이다.

가극 《이완 쑤싸닌》은 글린까가 민족음악의 길을 개척하면서 내놓은 최초의 작품으로서 로씨야음악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글린까이전시기 로씨야에서는 이딸리아가극만을 이딸리아말로 상연하였으며 로씨야가극이란 존재하지조차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창작된 가극 《이완 쑤싸닌》은 로씨야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투쟁을 형상한 첫 작품으로서 로씨야민족가극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가극 《이완 쑤싸닌》을 일명 《황제에게 바친 목숨》이라고도 한다.

10월혁명전까지 로씨야에서는 매해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에서 가극공연을 시작할 때면 항상 《이완 쑤싸닌》을 상연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로씨야에서는 가극 《이완 쑤싸닌》이 처음 상영된 날을 민족고전음악의 탄생일로 기념하고있다.

첫 공연: 1836년 11월 27일 뻬쩨르부르그궁정극장
대본: 로젠
연주시간: 3시간
등장인물: 이완 쑤싸닌: 농민 (바스)
안또니다: 쑤싸닌의 딸(쏘프라노)
와냐: 쑤싸닌의 양아들(앨트)
쏘비닌: 안또니다의 약혼자 (테너)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4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613년, 돔니노, 모스크바, 뽈스까군진영

가극은 1613년 로씨야에 기여든 뽈스까군대를 물리치는 싸움에 목숨을 바친 농민영웅 쑤싸닌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를 담고있다.

가극은 이완 쑤싸닌과 딸 안또니다, 마을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의용군을 환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이완 쑤싸닌은 뽈스까군대의 침입으로 정세가 불안하여 의용군으로 나갔던 사위감 쏘비닌이 돌아왔지만 딸 안또니다의 결혼식을 할 결심을 못하고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적극적인 권고로 마침내 결혼식을 할것을 결심한다.

결혼식날 아침 혼례준비로 온 마을이 들끓고있는데 뽈스까침략군이 쳐들어와 이완 쑤싸닌에게 황제가 은신한 곳으로 자기들을 안내할것을 강요한다.

이완 쑤싸닌은 이 사실을 양아들 와냐를 통해 로씨야군대에 알리는 한편 자신은 적들을 끌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적들을 눈보라치는 깊은 수림속에 끌어들여 무주고혼으로 만들 결심을 품었던것이다.

험준한 산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침략자들은 이완의 숨은 계책을 알아차리고 그를 무참히 학살한다. 최후의 순간에 이완 쑤싸닌은 기세드높이 로씨야의 승리를 소리높이 웨친다.

가극의 노래들중에서 《쑤싸닌의 아리아》, 《안또니다의 로만스》, 《와냐의 아리아》, 합창 《영광》은 널리 알려져있다.

ㅡ 주요노래

○《안또니다의 로만스》

3막에 나오는 노래이다.

쑤싸닌은 뽈스까의 침략군이 이른새벽에 집앞에 몰려와 모스크바로 가는 길잡이가 될것을 강요할 때 원쑤들을 수림속 함정에 처넣을 최후의 각오를 안고 집을 떠나간다. 결혼식날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게 된 그의 외동딸 안또니다는 혼례식을 축하하러 온 마을사람들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 아버지를 빼앗긴 자기의 슬픔을 토로한다.

2개의 절로 구성된 로만스의 선률은 매우 애절하며 감정표현이 진실하고 절절하다.

《안또니다의 로만스》 중에서

○《와냐의 아리아》

4막 1장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뽈스까침략군의 강압으로 놈들의 길잡이로 떠나가면서 이 급보를 미닌의용군부대에 알리라는 아버지 쑤싸닌의 마지막부탁을 받은 양아들 와냐는 타고가던 말까지 숨이 차 죽게 되자 맨몸으로 힘껏 달려 한밤중에야 부대에 도달한다. 그는 굳게 닫겨진 철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이 아리아를 부른다.

노래에는 나이가 어리고 무사처럼 힘이 세지 못하여 군인들을 깨워일으킬수 없는 와냐의 안타까움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쑤들에게 침략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져있다.

보통속도로 조용히(Moderato anuma)

《와냐의 아리아》 중에서

ㅇ《쑤싸닌의 아리아》

4막 2장에서 주인공 쑤싸닌이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앞에 두고 이 노래를 부른다.

쑤싸닌은 로씨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가다가 원쑤들을 헤여날수 없는 수림속 함정에 끌고간 정체가 드러나 새벽이면 사형당하게 된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부르는 이 노래에는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데 대한 높은 긍지감,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표현되고있다.

대화창과 아리아로 구성되여있는 노래는 숭엄하고 깊이가 있으며 감정표현이 매우 진실하고 민족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너무 느리지 않게(Adagio non tanto)

《쑤싸닌의 아리아》 중에서

—상식—

대화창(레씨타티브)

라틴어에서 온 어원은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랑독조의 가창형식으로서 서정적, 선률적이 아니고 서사적이고 언어적이다. 랑독적인 음악은 인민창작의 서사시적종류에 많은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판소리에서 볼수 있다.

대화창은 음악대화의 형식으로서 종래의 가극에서 사건과 사건을 련결하고 극을 엮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대화창이 진행될 때에는 음악성이 약화되여 음악과 극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나가지 못하므로 《피바다》식가극에서는 대화창을 없애고 절가화하였다.

레씨타티브 섹코란 건조한 대화창이라는 뜻으로서 매우 작은 악기편성으로 반주되는 대화창이다.

《루쓸란과 류드밀라》

1842년에 로씨야의 작곡가 글린까, 미하일 이와노비츠(1804－1857)에 의해 창작되였다.

작품은 로씨야의 문호 뿌슈낀의 서사시에 기초하고있다.

《루쓸란과 류드밀라》는 글린까의 두편의 가극중에서 마지막에 창작된 대표작으로서 《이완 쑤싸닌》과 함께 로씨야민족가극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작품이다.

가극의 대본은 글린까의 요청으로 뿌슈낀이 직접 쓰려고 하였으나 그가 결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한것으로 하여 작곡가자신이 여러명의 동료시인들과 함께 완성하였다.

가극 《루쓸란과 류드밀라》가 처음 상연되였을 때 관중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지만 글린까는 자신심에 넘쳐 백년후에는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후 가극은 1859년에 다시 상연되면서 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글린까가 세상을 떠난지 2년후였다.

가극에는 용감한 무사 루쓸란이 끼예브의 대공인 스비에또싸르의 딸 류드밀라와 결혼을 한 날 밤에 악마 체르노모르에게 안해를 랍치 당하였으나 악마의 온갖 흉계를 물리치고 그와 싸워이김으로써 안해를 다시 찾아 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지고있다. 원래 이 이야기에는 오락적경향성이 많이 있었으나 작곡가는 가극을 웅장하고 깊이있는 서사시적형상으로 완성하였으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로씨야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부각하면서 선을 긍정찬양하고 죄악을 야유단죄하였다. 가극은 민족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낼뿐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들도 가지고있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특히 서곡이 유명하다.

첫 공연: 1842년 12월 9일 뻬쩨르부르그궁정극장
대본: 뿌슈낀의 원작을 씨르꼬브와 비츄린(로씨야)이 각색
연주시간: 3시간
등장인물: 스비에또싸르: 끼예브공작 (바스)
류드밀라: 그의 딸(쏘프라노)
루쓸란: 기사(바리톤)
라트미르: 동방나라의 왕자(앨트)
파를라프: 무사(바스)
선의 요정(테너)
악의 요정(메쪼쏘프라노)
체르노모르: 난쟁이마술사(바리톤)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5막으로 구성되였다.

가극은 용감한 기사 루쓸란이 사랑하는 류드밀라가 악마 체르노모르에게 랍치당하자 악마의 온갖 흉계를 물리치고 그를 다시 찾아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끼예브의 성주 스비에또싸르공작은 자기의 딸 류드밀라에게 청혼을 하러 온 기사 루쓸란과 동방나라의 왕자 라트미르, 겁쟁이무사 파를라프를 위해 연회를 차리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는 속에서 류드밀라가 유괴당한다. 성주는 자기 딸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류드밀라를 시집보내겠다고 선언한다.

루쓸란은 선의 요정을, 겁쟁이무사 파를라프는 악의 요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루쓸란은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괴물의 머리를 단칼에 잘라버리며 류드밀라를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다.

루쓸란이 류드밀라를 구출하러 온다는것을 안 악마 체르노모르는 마술을 써서 류드밀라를 잠들게 한 다음 루쓸란과 결투를 벌린다.

결투에서 이긴 루쓸란은 류드밀라를 안고 돌아오는 도중에 또다시 갖은 시련과 맞다든다. 그러나 루쓸란은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류드밀라를 안해로 맞아들인다.

작곡가는 가극을 웅장하고 깊이있는 서사시적형상으로써 로씨야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부각하였다.

가극의 노래들은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이 가극의 서곡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4막에서 나오는 《류드밀라의 아리아》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음악회무대에서도 자주 불리운다.

— 주요노래

ㅇ《류드밀라의 아리아》

제4막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아리아이다.

악마 체르노모르에게 잡혀간 류드밀라는 악마의 궁중에서 화려하고 친절한 대접을 받으나 마음은 끝없이 괴롭고 쓸쓸하다. 그는 체르노모르궁중의 독백장면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 고향 끼예브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이 아리아를 부른다.

노래는 지난날의 모든 행복을 빼앗긴 슬픔을 노래하는데로부터 시작되여 점차 악마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증오와 항거의 감정으로 바꾸어진다.

《류드밀라의 아리아》중에서

《리골레또》

1851년에 이딸리아작곡가 베르디, 쥬제뻬 (1813－1901)가 창작하였다.

베르디는 생애에 26편의 가극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리골레또》, 《뜨라비아따》, 《일 뜨로바또레》, 《아이다》를 그의 4대걸작으로 본다.

가극 《리골레또》는 프랑스작가 윅또르 유고의 희곡 《환락의 왕》을 각색한것이다.

당시 왕정을 반대하고 오스트리아의 지배로부터 이딸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던 베르디는 프랑스국왕 프랑쑤아1세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 프랑스귀족사회의 타락상을 풍자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의 소재를 유고의 희곡 《환락의 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북부이딸리아를 통치하고있던 오스트리아당국에서 왕권에 대한 대중의 항거를 부추긴다는 리유로 공연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극의 배경을 빠리로부터 만또바로 옮겼으며 프랑쑤아1세의 역도 만또바공작으로 바꾸었다.

첫 공연: 1851년 3월 11일 베네찌아, 페니체극장
대본: 프란체스꼬 마리아 삐아베(이딸리아어)
연주시간: 1시간 50분
등장인물: 리골레또: 만또바공작의 신하(바리톤)
질다: 리골레또의 딸(쏘프라노)
만또바: 공작(테너)
스빠라뿌찔레: 자객(바스)
마그달레나: 자객의 누이동생(앨트)
몬떼로네: 백작(바스)
체플라노: 백작(바리톤)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3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6세기, 이딸리아 만또바

호색광이며 방탕한 령주인 만또바는 많은 처녀들과 부인들을 릉욕한다. 그의 뒤받침을 어리광대인 곱새 리골레또가 하고있었다.

어느날 몬떼로네백작은 희롱당한 자기 딸을 걱정하여 만또바와 리골레또를 책망하나 도리여 리골레또에게서 놀림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 크게 노한 백작은 리골레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한다.

만또바의 신하들도 리골레또의 소행에 분개하면서 그의 딸 질다를 랍치해다가 가두어둔다. 이 모든것을 엿보고있던 만또바는 이번에는 질다를 릉욕한다.

비분과 격분으로 참을길 없었던 리골레또는 살인업을 하는 스빠라뿌찔레에게 만또바공작을 죽여줄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살인업자의 누이동생에 의해 살인계획이 변동되게 되며 질다가 자진해서 살인업자의 칼에 맞아죽는다.

리골레또는 만또바가 죽은줄로만 알고 시체가 든 자루를 강에 던지려는 순간 멀리에서 만또바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녀자의 마음》이다.

다급히 자루를 열어본 리골레또는 실신하여 딸의 시체우에 쓰러진다.

가극은 당시의 사회적관계와 귀족들의 부화방탕한 생활, 그의 롱락물로, 희생자로 되고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처지와 운명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천대받는 최하층인물을 불구자로 형상하고 귀족에게 리용당하는 인물로 만든것과 같은 제한성도 나타내였다.

이 작품에서 작곡가는 심각한 극적내용에 관현악을 잘 결합시키고 여러가지의 기묘한 음악적효과로써 극을 전개시켜나감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그리하여 가극 《리골레또》는 베르디의 대표작으로 되였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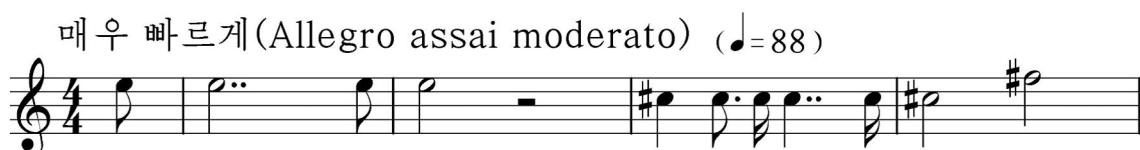
가극에 나오는 노래들중에서 《녀자의 마음》, 《질다의 아리아》가 널리 불리운다.

一 주요노래

ㅇ《질다의 아리아》

1막 2장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호색광인 만또바공작은 질다가 있는 곳을 알아내여 가난한 대학생으로 변장하고 질다를 찾아가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질다의 아리아에서는 공작에게 반한 질다의 끓어넘치는 련모의 감정이 맑고 아름다운 기교적인 선률로 표현되고있다.

《질다의 아리아》 중에서

ㅇ《녀자의 마음》

제3막에서 공작이 부르는 노래이므로 《공작의 노래》라고도 한다.

가사는 웍또르 유고의 극작품에 기초하여 삐아베가 썼다.

노래는 녀성들을 롱락하면서 향락을 일삼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 죽음을 가져다주는 공작의 어지럽고 추한 인간적면모를 보여준다.

이딸리아가요(깐쪼나)풍의 민족적성격이 짙은 노래이다. 선률이 개성적이며 구조가 선명하고 간결한 절가여서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게 되여있다.

가극《리골레또》의 첫 공연이 끝난 다음 관객들은 극중에서 처음 들은 이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녀자의 마음》은 베르디가 작곡한 노래중에서 가장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이다.

《녀자의 마음》 중에서

—상식—

오페라타

《작은 오페라》의 뜻.

경가극, 대사중심이고 연극적요소가 많다. 여기에 노래나 춤이 들어가는것으로서 음악적내용은 약하다.

《라 뜨라비아따》

1853년에 이딸리아작곡가 베르디, 쥬제뻬 (1813－1901)가 창작하였다.

가극은 프랑스작가 알렉싼드르 듀마의 장편소설 《동백꽃아가씨》를 각색한것이다.

베르디는 빠리에서 듀마의 장편소설 《동백꽃아가씨》를 각색한 연극을 깊은 감동속에 보고 이 작품을 가극으로 만들것을 결심하였으며 대본이 완성되자 4주일만에 가극을 완성하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상연되고있는 가극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첫 공연: 1853년 3월 6일 베네찌아 페니체극장
대본: 프란체스꼬 마리아 삐아베(이딸리아어)
연주시간: 2시간
등장인물: 비올레따(쏘프라노)
알프레도 제르몽: 비올레따의 애인(테너)
죠르지오 제르몽: 알프레도의 아버지(바리톤)
안니나: 비올레따의 하녀(쏘프라노)
플로라(메조쏘프라노)
가스똥: 자작(테너)
도폴: 남작(바스)
그랑빌(바스) 기타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베르디의 18번째의 가극으로서 3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850년경, 빠리와 그 주변

가극에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기생 비올레따의 사랑과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귀족청년 알프레도는 비올레따의 집에서 벌어지는 야회에 참가하여 그를 알게 되는 첫 순간에 사랑의 감정에 휩싸인다. 비올레따 역시 그에 대한 련정의 감정을 금할수 없어한다. 하여 그들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낮과 밤을 보낸다.

그러던 알프레도가 돈을 구하러 빠리로 떠난 후 어느날 그의 아버지 죠르지오 제르몽이 비올레따를 찾아와 자기의 아들과 갈라질것을 강요한다.

자기의 천한 신분을 생각한 비올레따는 알프레도의 장래를 위해 그와 갈라질것을 결심한다.

절교를 선언하는 비올레따의 편지를 읽은 알프레도는 미친듯이 몸부림치며 비올레따를 쫓아 빠리로 간다. 여기서 남작 도폴과 함께 있는 비올레따를 본 알프레도는 극도로 흥분하여 그를 모욕한다.

그후 그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알프레도가 비올레따를 찾아간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비올레따는 병으로 림종에 이른다. 여기로 알프레도의 아버지 죠르지오 제르몽이 나타나 용서를 빈다.

비올레따가 자기의 초상을 알프레도에게 넘겨주며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가극에서 나오는 노래들중에 《비올레따의 아리아》, 《제르몽의 아리아》, 《축배의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있다.

— 주요노래

ㅇ《비올레따의 아리아》

제1막에 나오는 노래이다.

가극의 주인공 비올레따는 자기의 생일날에 찾아온 귀족청년 알프레도의 사랑의 고백이 매우 절절하여 저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장면에서 불리우는 아리아는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규모가 큰 독백장면을 이루고있다.

아리아의 첫 부분에서 그는 알프레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답고 상냥하고 기교적인 선률에 담아 표현한다. 그러나 다음부분에서 그는 자기의 사랑은 실현될수 없는 헛된 공상에 불과하다는 자각을 격동된 심정으로 노래한다. 아리아의 마지막부분은 사랑과 고민, 근심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락천적으로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약간 빠르게(Allegretto)

《비올레따의 아리아》 중에서

《파우스트》

1859년에 프랑스의 작곡가 구노, 샤를 프랑쑤아(1818-1893)에 의해 창작되였다.

구노는 근대프랑스가극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다.

그에 의하여 당시 이딸리아와 도이췰란드작곡가들의 영향밑에 있던 프랑스가극은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 독자적인 길로 나갈수 있었다.

괴테의 극시 《파우스트》에 기초하고있는 가극 《파우스트》는 프랑스의 서정적가극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구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6세기 유럽에서는 마술사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고있었다.

도이췰란드의 빈궁한 가정에서 태여난 파우스트는 마술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유럽의 여러 지역을 려행하면서 초인간적인 행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들과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 예술적으로 가장 훌륭히 완성된 작품이 괴테의 극시 《파우스트》였다.

구노는 이러한 괴테의 극시 《파우스트》에서 주로 파우스트와 마르가레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을 줄거리로 하여 가극을 만들었다.

가극 《파우스트》는 첫 공연에서 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구노는 락심하지 않고 가극의 내용을 5막으로 늘구고 무용장면을 삽입하는 등 꾸준히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리하여 10년후인 1869년에는 관중의 호평을 받는 명작으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1919년까지 가극은 빠리에서만도 1 500여회이상 상연되였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극장에서도 300회이상의 공연기록을 세웠다.

첫 공연: 1859년 3월 19일 빠리서정극장

공연시간: 3시간 10분

대본: 쥴 바르베, 마쉘 칼레

등장인물: 파우스트: 박사(테너)
메피스토 펠레스: 악마(바리톤)
마르가레테(쏘프라노)
바렌틴: 마르가레테의 오빠(바리톤)
자이벨: 마르가레테의 애인(테너)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5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6세기경, 도이췰란드

과학탐구의 길에서 젊음을 다 바친 주인공 파우스트는 생의 의욕을 잃고 자기를 늙

게 한 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이때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타나 그를 유혹한다. 악마의 마술로 청춘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젊고 아름다운 마르가레테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악마의 도움으로 사랑의 경쟁자인 자이벨을 물리치고 마르가레테를 쟁취한다.

한편 싸움터에서 돌아온 마르가레테의 오빠 바렌틴은 자기 누이동생을 모욕한 파우스트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오빠의 죽음으로 하여 정신착란을 일으킨 마르가레테는 자기 아이를 죽이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감방에 갇힌다. 파우스트는 마르가레테를 구원하려고 하나 그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한다.

작품은 극구성이 째이고 음악이 우아하며 세련되여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가극의 음악중에서 《바렌틴의 아리아》, 《메피스토 펠레스의 아리아》는 음악회무대에서도 널리 불리우고있다.

ㅡ 주요노래

○《바렌틴의 아리아》

제4막 3장에 나오는 노래이다.

가극의 녀주인공 마르가레테의 오빠인 바렌틴은 부모없이 자기가 누이동생을 돌보아주는 처지였지만 굳은 마음을 먹고 군대로 나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누이동생이 불행과 재난을 겪지 말기를 바라는 오빠의 육친의 정과 조국의 명예를 지켜 사나이답게 용감히 싸우려는 애국심이 표현되고있다.

《바렌틴의 아리아》 중에서

―상식―

대 중 창

무대등장인물들의 합창과 대방창이 함께 부르는 성악연주형식.

대중창은 가극의 성악연주형식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며 가극에서 대중적장면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 성악수단으로 되고있다.

《까 르 멩》

프랑스작곡가 비제, 죠르쥬(1838—1875)가 1875년에 창작한 가극이다.

비제는 가극 《까르멩》과 함께 랑만파가극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생애에 12편의 가극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가극 《까르멩》은 마지막작품으로서 그의 창작생애를 빛나게 장식하여준 작품이다.

가극 《까르멩》은 프랑스작가 메리메의 중편소설 《까르멩》을 각색한것이다.

가극 《까르멩》은 작품의 내용으로부터 대본창작, 형상창조, 첫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여러가지 일화들을 남겨놓았다.

비제는 빠리 오페라꼬미크극장에서 상연할 가극작품의 소재로 메리메의 중편소설 《까르멩》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교구락부이며 동시에 가족관람객이 많은 오페라꼬미크극장에서 질투와 배신, 범죄로 일관된 비극적인 치정극을 공연하는 경우 초래되게 될 사회적여론과 불만이였다. 그리하여 비제는 대본작가들에게 원작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형상창조를 할 때에도 합창단성원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만 부르면 되지 춤을 추고 싸우는 연기까지 하여야 하는가고 항의하는가 하면 어떤 녀배우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까르멩의 색정적인 역을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기까지 하였다.

《까르멩》이 처음으로 상연되였을 때에도 비극을 좋아하지 않는 빠리사람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실망한 비제는 고민끝에 37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가극 《까르멩》은 그 다음해에 브류쎌에서, 1878년에는 런던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대성황리에 상연되였으며 마침내 빠리에서도 그 진가가 인정되여 1904년까지 무려 1 000회이상이나 상연되는 기록을 남겼다.

첫 공연: 1875년 3월 3일, 빠리 오페라꼬미크극장
대본: 루도비크 알레비, 앙리 메이아크(프랑스어)
연주시간: 2시간30분
등장인물: 까르멩: 집시녀자(쏘프라노)
돈 호쎄: 하사관(오장)(테너)
에스까미리오: 투우사(바리톤)
미카엘라: 돈 호쎄의 약혼녀(쏘프라노)
쯔니가(바스)
단까이로(테너)

레멘다(테너)
프란스키타(쏘프라노)
메르쎄데스(쏘프라노)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4막으로 구성되였다.

때와 장소: 19세기, 에스빠냐 쎄빌랴교외

쎄빌랴거리에서 까르멩은 싸움끝에 한 녀공을 칼로 찔러 부상시키고 체포된다. 그러나 감옥으로 호송도중 자기를 체포한 기병오장 돈 호쎄를 유혹하여 포승을 풀고 달아난다.

탈주에 성공한 까르멩은 투우사 에스까미리오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온 돈 호쎄를 또다시 유혹하여 밀수군들의 패에 가담시킨다.

호쎄는 까르멩의 밀수업자들의 무리속에서 량심상가책으로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이미 싫증을 느낀 까르멩과 다투고 자기를 찾아온 애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호쎄는 다시 까르멩을 찾아 투우장으로 온다. 투우장에서 까르멩이 자기를 배반하고 투우사를 마음에 두고있다는것을 알고 극도로 흥분한 호쎄는 까르멩을 칼로 찔러죽인다.

가극은 호쎄가 쓰러진 까르멩을 부둥켜안고 《내가 사랑하는 이 녀인을 죽였소.》라고 소리치면서 통곡하는 속에 막이 내린다.

가극은 개성적이고 표현이 다양하며 강렬한 성격을 띠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에서 인기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가극에서 나오는 서곡과 《하바네라》, 《쎄기질리야》, 《투우사의 노래》, 돈 호쎄가 부르는 아리아 《꽃노래》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 주요노래

○《하바네라》

1막에서 주인공 까르멩이 군중들과 호흡을 맞추며 이 노래를 부른다.

담배공장에서 일하고있는 까르멩이 휴식시간에 청혼하러 온 남자들에게 대답을 주는 이 노래에는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구속에도 사로잡히지 않지만 자기의 의사는 다른 사람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비제는 가극에서 에스빠냐에서 벌어지고있는 생활과 그곳의 집시녀인을 음악적으로 잘 형상하기 위하여 까르멩의 성격창조에 아리아를 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나라의 인민무곡을 리용하였다.

《하바네라》는 녀성중음가수들속에 널리 불리우는 노래이다.

《하바네라》 중에서

ㅇ《꽃노래》

제2막에서 돈 호쎄에 의하여 불리우는 노래이다.

까르멩의 유혹에 빠진 돈 호쎄는 군대복무중이지만 밤중에 까르멩을 찾아 집시들이 거처하고있는 곳으로 찾아온다. 어느덧 밤이 깊어 돈 호쎄가 병영에 돌아가려고 하자 까르멩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린다. 이 장면에서 돈 호쎄는 노래를 불러 자기의 진정을 까르멩에게 고백한다.

서정적이고 열정적인 노래에는 돈 호쎄의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있다.

제1막에서 돈 호쎄를 유혹하기 위하여 까르멩이 던진 꽃을 품속에 고이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꺼내고 부르는 노래여서 《꽃노래》라고 불리운다.

《꽃노래》 중에서

ㅇ《투우사의 노래》

가극의 2막에서 투우사 에스까미리오가 군중들의 인기속에 이 노래를 부른다.

에스빠냐에서 투우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민족경기여서 투우사는 용맹스러운 무사와 같이, 영웅과도 같이 떠받들리고 녀성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까르멩을 포함한 집시처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가극 2막의 술집장면에서 에스까미리오가 까르멩을 유혹하기 위하여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기백이 있는 행진곡조의 노래이며 전렴과 후렴이 엇바뀌는 절가이다.

《투우사의 노래》 중에서

《라 보엠》

이딸리아의 작곡가 뿌치니, 쟈꼬모(1858－1924)가 1896년에 창작하였다.

뿌치니는 베르디이후 가장 대표적인 가극작곡가이다.

《라 보엠》은 뿌치니가 네번째로 창작한 가극이다.

작품은 프랑스시인 앙리 뮤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에 기초하여 각색되였다.

작품은 작곡가 뿌치니의 3대명작중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사랑을 동정이 흘러넘치게 그린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상을 남기고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이 작품은 뿌치니의 이름을 한층 더 높여준 감명깊은 작품이다.

《라 보엠》은 아름다운 선률과 극적인 효과로써 그의 작품들중에서 가장 잘된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라 보엠》의 원작의 작가 뮤르제의 소설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였다. 이딸리아의 작곡가 레온까발로 역시 그의 소설에 기초하여 《라 보엠》을 창작하였지만 뿌치니의 《라 보엠》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레온까발로는 죽을 때까지 뿌치니와 절교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첫 공연: 1896년 2월 1일 또리노 왕립가극극장
대본: 루이지 일리까, 쥬제뻬 지아꼬사(이딸리아어)
연주시간: 1시간 40분
등장인물: 미미: 가난한 처녀(쏘프라노)
뮤제따: 미미의 친구(쏘프라노)
로돌프: 시인(테너)
마르첼로: 미술가(바리톤)
쇼우나르드: 음악가(바리톤)
콜리네: 철학자(바스)
알진도로: 정부관리(바스)
브노아(바스)
빠르피놀(테너)
열병대군조(바스)

△ 가극해설

ㅡ 이야기줄거리

4막으로 구성되여있다.

때와 장소: 1830년경, 빠리

작품은 19세기 유럽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날그날 생긴 일감

으로 살아가는 도시의 가난한 예술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의 제목인 《라 보엠》이란 방랑자라는 뜻이다.

빠리의 어느 한 빈민집에서 예술창조에 대한 뜻과 희망은 크나 너무나도 가난한 보헤미안(방랑예술가)들인 시인, 화가, 음악가, 철학가들은 불도 때지 못한 방에서 집세도 물지 못하고 굶주리며 살아가고있다. 어느날 시인 로돌프는 빈방에 홀로 있다가 불을 얻으러 온 처녀 미미를 알게 된다. 미미는 아름다운 용모와 훌륭한 재간을 가졌으나 가난과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수놓는 처녀이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며 사랑을 맺는다.

그러나 로돌프는 돈이 없어 미미를 가난과 병속에서 구원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그와 리별한다.

그후 미미의 병은 더욱 위독해져 생명이 경각에 다달은다. 미미는 마지막순간에 사랑하는 로돌프를 보고싶어 그를 부른다.

그리하여 4명의 보헤미안들은 병마에 시달리는 미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한다.

미미는 로돌프와 사랑의 지난날을 추억한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둔다.

로돌프는 격하게 미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시체우에 눈물을 뿌린다.

ㅡ 주요노래

ㅇ《차디찬 그대의 손》

제1막에서 주인공 로돌프가 부르는 노래이다.

빠리의 라틴구역에 있는 낡은 고층살림집우의 다락방에서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살고있는 로돌프는 방에서 홀로 청탁받은 시를 쓰고있을 때 미미가 성냥을 빌리러 온다. 바람이 불어 불이 꺼진 어둠속에서 손더듬으로 열쇠를 찾다가 미미의 작은 손을 잡게 되는 장면에서 로돌프가 상냥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에는 미미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있다.

《차디찬 그대의 손》 중에서

ㅇ《나의 이름은 미미》

제1막에서 녀주인공 미미가 로돌프의 정열적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그에게 공감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로돌프를 상대로 하여 부르는 미미의 아리아 《나의 이름은 미미》에는 명주실로 꽃을 수놓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없이 소박하고 솔직한 그의 아름다운 인간미가 그려져있다.

천천히 부드럽게(Andante Iento) (♩=40)

《나의 이름은 미미》 중에서

—상식—

서 곡

본래는 가극이나 오라또리오 등 큰 규모의 극작품이 개막되기 전에 그 작품의 정서나 줄거리를 미리 알려주는것으로서 기악만으로 연주되는 도입부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이 서곡풍의 양식을 담고 쏘나타형식이나 복합3부분형식의 독자적인 관현악곡으로 되고있다. 대체로 《느리게—빠르게—느리게》와 같은 대조되는 3부분형식으로 되지만 반대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것도 있다. 여기서 어느한 부분이 추가적인 발전방법으로 되기도 한다.

서곡형식은 관현악을 위하여 쓰이는것이 보통이다.

《또 스 까》

이딸리아의 작곡가 뿌치니, 쟈꼬모(1858—1924)에 의해 1900년에 창작되였다.

가극의 원작은 프랑스극작가 빅토리아 사르두가 쓴 5막짜리 비극이다.

사르두는 180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왕정제도를 타파하고 공화제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그리였다.

뿌치니는 사르두의 작품에서의 이러한 시대적배경에 성당과 궁전, 천사의 성을 무대로 하는 극적인 배경을 추가하였으며 두 주인공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것으로 작품을 끝맺었다. 이것은 당시 창작가의 사상적 및 시

대적제한성으로부터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보았기때문이다.

첫 공연: 1900년 1월 14일 로마 꼰스딴찌극장
대본: 루이지 일리까, 쥬제뻬 지아꼬사(이딸리아어)
연주시간: 1시간 50분
등장인물: 플로리나 또스까: 가수(쏘프라노)
체자레 안젤로띠: 정치범(바스)
마리오 카바라도씨: 미술가(테너)
스카라피아남작: 경시총감(바리톤)
교회의 문지기: (바리톤)
스뽀레따(테너)
샤로네(바스)
간수(바스) 기타

△ 가극해설

– 이야기줄거리

3막으로 구성되여있다.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교회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그리던 또스까의 애인인 카바라도씨는 탈옥한 공화주의자 안젤로띠를 숨겨준다.

이미부터 또스까에게 마음이 쏠려있던 경시총감은 이것을 미끼로 또스까를 손에 넣으려고 꾀한다. 그리하여 카바라도씨를 체포하고 고문에 시달리는 모습을 또스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입에서 탈옥한 안젤로띠가 있는 곳을 알아낸다.

안젤로띠가 생명의 위험을 깨닫고 자살하자 경시총감은 카바라도씨의 생명을 가지고 또스까를 위협함으로써 그를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 또스까는 그 뜻을 따르는척하면서 기회를 보아 경시총감을 죽인다.

또스까는 경시총감과의 약속대로 카바라도씨가 거짓사형을 당하게 될줄 알고 사형장에 달려간다. 그러나 사형장에는 실탄에 맞아 무참하게 총살된 카바라도씨의 시체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본 또스까는 성 안젤로성의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가극은 뿌치니의 3대작품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가극에서는 작곡가의 재능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주인공들의 성격이 음악적으로 잘 형상되고있다.

가극의 노래들중 1막의 《미묘한 조화》, 2막에서 또스까가 부르는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며》, 3막에서 화가가 편지 쓰는 장면에서 부르는 《별들은 반짝이고》가 널리 알려져있다.

— 주요노래

ㅇ《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며》

제2막에서 주인공 또스까가 부르는 노래이다.

또스까는 체포되여 사형언도를 받은 자기의 애인인 화가 카바라도씨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지만 경시총감은 그를 구원하려면 자기에게 정조를 바치라고 한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에서 불리우는 노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왔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었지만 그 모든 정성을 빼앗기고 짓밟히는 또스까의 슬픔과 고통, 사무친 원한이 담겨있다.

대화창에 이어 시작되는 노래는 매우 짧으나 그속에는 슬픔과 원한의 감정을 점차적으로 축적하여나가다가 그것을 맹렬하게 터뜨리군 하면서 형상을 힘있게 전개시켜나간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며》 중에서

ㅇ《별들은 반짝이고》

제3막에서 화가 카바라도씨가 부르는 노래이다.

공화주의사상을 신봉한탓으로 체포되여 사형언도를 받은 그는 애인 또스까의 희생적인 노력으로도 구원되지 못하고 사형장으로 끌려나온다. 이 장면에서 그는 사라져가는 새벽별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사랑의 나날을 회고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에는 또스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와 헤여져 이 세상을 떠나는 참을수 없는 슬픔이 담겨있다.

대화창에 뒤이어 노래가 시작되는데 그 규모는 15소절로 매우 작게 정하여지고 있다. 노래는 이러한 작은 규모에서 대화창에서 축적된 감정을 첫시작부터 터뜨리면서 표현력이 풍부한 매혹적인 선률로 애정과 슬픔을 맹렬하게 드러내보인다.

천천히, 부드럽고 더욱 열정적으로
(Andante Ientopassionato molto)

《별들은 반짝이고》 중에서